

일 자 리
찾 아
세 계 로

해 외
취 업
완 정
북

미 국

일자리 찾아 세계로

해외 취업 완전 정복

미국





미국 취업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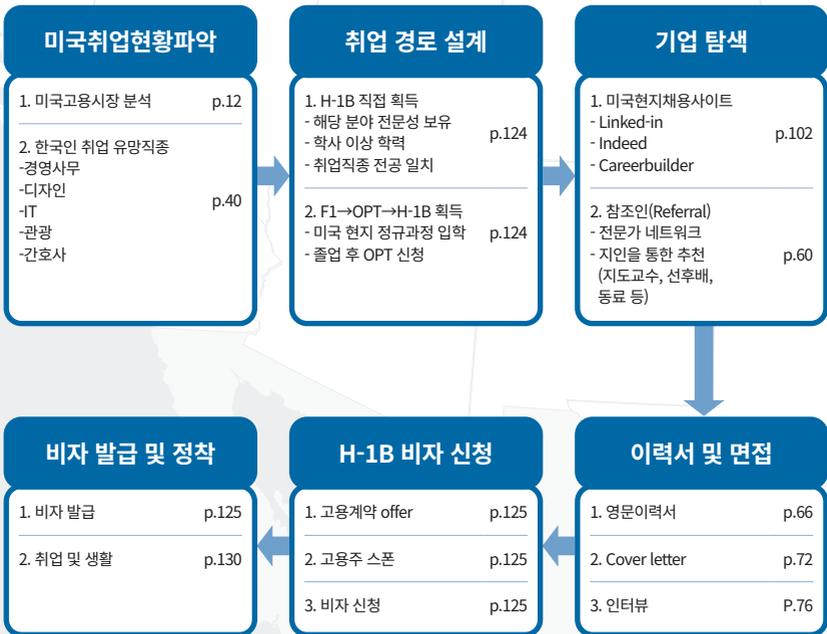


H-1B 비자

H-1B 비자는 단기 취업 비자로서 체류기간은 3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비자 발급은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이민국에 신청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많은 신청자들이 증가함으로써 추천을 통해 H-1B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H-1B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학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다. 취업경로 설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용주가 비자 스폰을 해 줄만큼의 역량이 갖추어졌다면 직접 자신을 고용할 기업을 찾으면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의 기업에 직접 고용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현지의 정규대학이나 영어연수 프로그램 등에 입학하여 F1 비자를 받고, 과정을 마친 이후 OPT를 신청하고 인턴 등의 경험을 쌓으면서 H-1B 비자를 발급해 줄 기업을 찾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출처: 코트라해외시장뉴스



J-1 비자

J-1 비자는 교환방문 비자이다. 대부분 문화교류를 위한 방문, 교환학생, 또는 단기 인턴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특히 단기 인턴을 위해서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학위수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체류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인턴생활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경력개발을 목적으로 J-1 비자를 통한 미국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미국취업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국내민간알선업체, 공공기관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취업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취업현황파악

- | | |
|---|------|
| 1. 미국고용시장 분석 | p.12 |
| 2. 한국인 취업 유망직종
-경영사무
-디자인
-IT
-관광
-간호사 | p.40 |

지원자격 갖추기

- | | |
|-------------|------|
| 1. 채용트렌드 분석 | p.44 |
| 2. 직종별 취업방법 | p.54 |

기업 탐색

- | | |
|---|-------|
| 1. 국내민간알선업체 | p.99 |
| 2. 스스로 취업하기 | p.102 |
| 3. 공공기관지원사업 | p.90 |
| 4. 미국현지채용사이트
(Linkedin, Indeed, Careerbuilder) | p.102 |

비자 발급 및 정착

- | | |
|------------|-------|
| 1. 비자 발급 | p.125 |
| 2. 취업 및 생활 | p.130 |

J1 비자 신청

- | | |
|----------------|-------|
| 1. 비자 신청 서류 준비 | p.124 |
| 2. 비자 신청 | p.125 |

이력서 및 면접

- | | |
|-----------------|------|
| 1. 영문이력서 | p.66 |
| 2. Cover letter | p.72 |
| 3. 인터뷰 | P.76 |



미국 취업 SUMMARY



☑ 미국 취업의 특징

- ▶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나, 외국인 취업에 대한 정책은 호의적이지 않은 편으로 특히, 단기 취업비자(H-1B) 발급에 국가별 쿼터제한, 추첨방식 전환 등으로 어려운 상황
- ▶ 기업의 채용절차는 우리나라와 같은 공채 시스템이 아닌 수시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정규·중신계약보다는 이직이 활발하여 경력직을 선호하므로 해당 직무에 맞는 인턴 경력은 중요한 취업 성공 요건

☑ 미국 취업 유망분야

- ▶ 경영사무직종: 모든 산업, 기업, 기관에 필수적인 직무라는 점에서 인력수요가 꾸준한 직종이다. 또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 경우 한국인 중간, 초급 관리자들을 필요로 한다.
- ▶ 디자인직종: 패션디자이너, 직물디자이너, 코디네이터 등 전 분야에 걸쳐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종이다. 특히, 많은 한상기업들이 뉴욕과 LA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어서 한국 청년에 대한 수요가 높다.
- ▶ IT직종: 미국은 초우량 IT기업들을 중심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스템분석가, SW 개발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IT 보안 컨설팅 등 구인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 ▶ 관광직종: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제한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호텔서비스, 음식서비스, 조리사, 조리보조원 등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 간호사: 미국 사회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의료보건의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유망직종의 70%가 의료보건의 분야이기도 하다.

☑ 미국 취업 준비 방법

- ▶ 준비단계
 - 취업 희망 직종에 대한 전문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자신의 장점과 단점, 적성, 장래 포부, 가치관등 철저한 자기 분석 필요
 - 어학 능력 및 자격증, 기술 등 직무 능력 중 부족한 역량 향상 노력
 - 어학 능력 부족 : 학원, 어학 연수, 유학 등을 통한 미국생활 경험
 - 자격·기술 등 직무 능력 부족 : 전공 과목 이수, 자격증 취득, K-Move스쿨 등 연수 참여
- ▶ 구직단계
 - **커버레터 작성** : 인사 담당자들이 서류전형 스크린 단계에서 지원자의 이력서를 읽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식이며, 입사 지원 동기, 자격요건, 업무능력, 경력 등이 본인이 지원하는 업무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요약하여 서술
 - **이력서 작성** : 개인정보, 지원목적, 학력, 경험 등을 작성하는 서식으로 자신의 학력과 경력에 지원하는 직장의 업무에 적합한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되, 무슨 일을 했는지 나열하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직무 기술과 성취 업적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
 - **면접** : 기업에 따라 전화/화상 인터뷰와 방문 인터뷰로 나뉘지며, 지원 이유와 직무적합성, 다른 지원자와의 차별성 등을 면접자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인터뷰 전 여러 번에 걸친 모의 인터뷰 등 연습 필요

☑ 미국 취업 준비 시 유의사항

- ▶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이 미국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비자 발급시 문제는 없는지 체크
- ▶ 초임이 높지 않고, 생활비, 주거비 등 초기 정착 비용이 많이 들며, 문화차이에서 비롯할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유념 - 취업 전 고용계약 시 고용기간, 직무 내용, 급여 내역 및 휴가, 해고 사유 등 충분히 확인 필요



미국 취업을 위한 자기분석체크리스트



질문		YES	NO
1.	미국의 고용시장 및 외국인 취업 유망 직종을 이해하고 있는가?	ME	
2.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개발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3.	기업이나 기관이 요구하는 취업의 자격요건과 역량수준을 확인하였는가?		
4.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에 근거한 비자 취득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	기업이나 기관이 요구하는 취업의 자격요건과 역량수준을 갖추었는가?		
6.	한상기업과 미국기업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7.	미국 취업을 위한 다양한 취업 채널/경로(예 : LinkedIn, 알선업체, 공공기관지원사업 등)를 알고 있는가?		
8.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영어구사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9.	초기 정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언어, 생활 등의 어려움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10.	학력보다는 경력을 중시하고, 전문성을 강조하는 미국 채용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가?		
11.	영문 이력서 및 Cover Letter을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		
123	인터뷰의 형식과 내용, 주의사항은 숙지하고 있는가?		
13.	미국 비자의 종류와 발급절차, 준비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고 있는가?		
14.	비자 발급에 요구되는 건강상태, 전과기록 등의 결격사유는 없는가?		



CONTENTS



PART 01



WA 노동시장 동향 및 고용제도

01 국가정보	012
02 노동시장 동향	018
03 고용관련 제도	024
04 임금제도	028
05 사회보장제도	032
06 개인소득세	036

PART 02



산업 및 업종별 취업전략

01 취업 유망직종 현황	040
02 채용 트렌드 및 취업역량	044
03 직종별 효과적인 취업방법	054
04 성공하는 취업 전략	058
05 미국 지역별 한국기업 진출 현황	062
06 이력서 및 면접 준비	066

PART 03



해외취업 성공 포인트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086
02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090
0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00
04 스스로 취업하기	102
05 해외취업 업무지원 기관 현황	106

PART 04



해외취업 사례

01 성공사례	
사례 01 세계인의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의학사서	112
사례 02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16

PART
05

취업비자

01 취업비자 종류 및 특징

ME

124



PART
06

정착 및 생활정보

01 정착

130

02 생활

140

03 생활 에티켓

144

04 각종 주요 용어

148



PART
07

해외 취업 Q&A

01 취업관련

152

02 생활

153

03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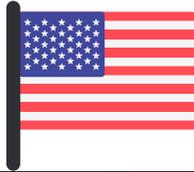
154



PART

01

노동시장 동향 및 고용제도



01

국가정보

-

02

노동시장 동향

-

03

고용관련 제도

-

04

임금제도

-

05

사회보장제도

-

06

개인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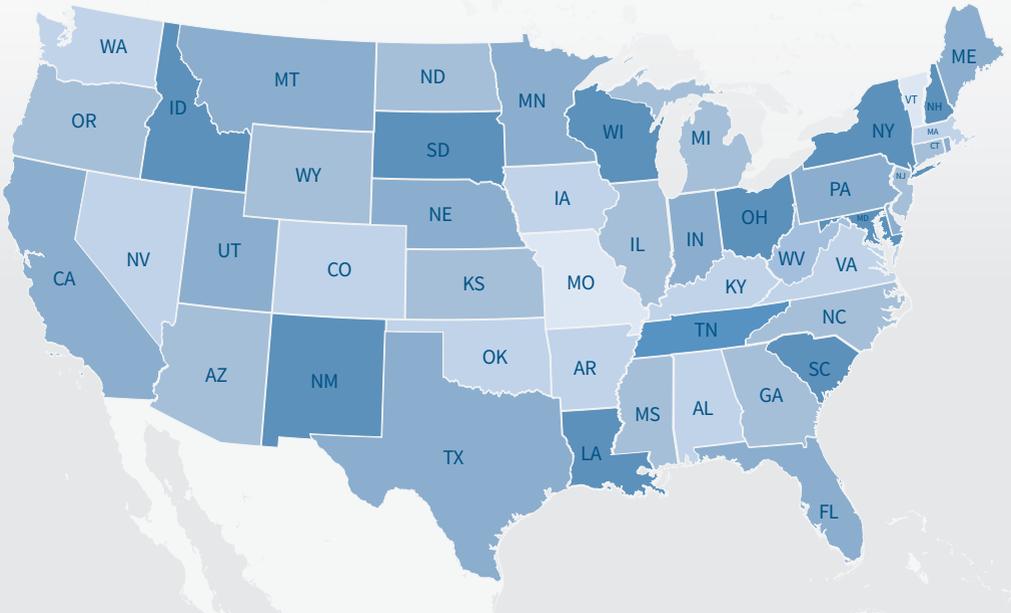


01 국가정보

01. 일반사항

미국의 국가 정보

국명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위치	미주대륙 북부 (서경 66° 57'~124° 44' / 북위 25° 7'~49° 23')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인구	330,271,681명 (자료: U.S. Census Bureau, 2021. 5. 11. 기준)
주요도시	New York(849만 명), Los Angeles(393만 명), Chicago(272만 명) (자료: U.S. Census Bureau, 2016년 2월 기준 최신 통계)
민족	백인(76.3%), 히스패닉(18.5%), 흑인(13.4%),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3%), 아시아인(5.9%),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주민(0.2%) (2019년 기준 추정치)
종교	기독교(70.6%), 유대교(1.9%), 불교(0.7%), 이슬람(0.9%), 힌두교(0.7%), 무교(22.8%)
건국(독립)일	1776. 7. 4
정부형태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의회	상·하 양원제- 상원 : 100석(임기 6년) / 하원 : 435석(임기 2년)
국가원수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





02. 한-미 관계

☰ 한-미 관계

체결협정	한국 정부의 통치권 이양 및 미국 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1948.8.11.) 상호 방위조약(1953.10.1.) 전시 지원에 관한 일괄 협정(1991.11.21.) 한-미 FTA 발효(2012.3.15.)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2014.6.23.)			
	최근 한미 교역규모(단위: US\$ 백만)			
교역규모 (상품)	구분	2018	2019	2020
	對미국 수출액	72,720	73,344	74,116
	對미국 수입액	58,868	61,879	57,492
자료: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교민	약 2,546,982명(2021년 5월 기준 통계)			

출처: 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World Trade Atlas

03. 경제지표

☰ 미국의 경제지표

지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실질 GDP)	%	2.3	2.9	2.3	-3.4
1인당 GDP	USD	60,105.85	61,577.52	62,605.88	60,114.17
1인당 명목 GDP	USD	60,105.85	63,055.98	65,253.52	63,415.99
정부부채	% of GDP	105.62	106.60	108.19	127.11
물가상승률	%	2.14	2.24	1.81	1.25
실업률	%	4.35	3.89	3.69	8.10
수출액	백만USD	1,57,195.4	1,665,786.89	1,642,820.35	1,424,934.92
수입액	백만USD	2,339,591.33	2,536,145.27	2,493,737.71	2,335,990.97
이자율	%	1.38	2.38	1.63	0.13

출처: Kotra 국가정보 재인용, IMF, 미국통계청

04. 경제동향

2021년 1분기 미국 경제는 백신 보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개인소비와 민간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6.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개인소비지출은 상품소비(23.6%)와 서비스소비(4.6%)가 모두 증가하여 10.7% 증가하였다. IMF 등 주요 전망기관은 재정정책, 백신보급 등의 영향으로 금년 중 민간소비 증가를 전망했다.

증가세를 보이던 산업생산은 2월 한파의 영향으로 주춤했으나 3월에 일부 회복되었으며 향후 더 많은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SM 제조업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제조업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간투자는 설비(16.7%), 지식재산생산물(10.1%), 주택(10.8%) 투자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산업 재고량이 많아서 5% 감소했다. 내수회복으로 수입액이 증가세(5.7%)를 보였으며,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수출액은 감소(-1.1%)했다. 전미소매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 급증은 소매업체가 증가하는 소비자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적어도 여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적으로 연방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고, 소비 심리가 개선되며, 코로나 팬데믹이 약화되어 가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물가는 빠른 경기 회복에 따른 소비 수요 증가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2021년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해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경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21년 3월 시행된 1조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21년 미국 경제는 연말까지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은행들은 2021년 2~4분기 미국 경제가 5%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해서 2021년 연간 성장률이 6.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KOTRA 재인용, IMF, 미국통계청)

05. 산업 동향

2020년 미국 GDP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7.4%로 전년대비 0.3% 비중이

감소했으며, 정부비중은 12.6% 증가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은 GDP 중 상품 산업이 16.9%에 불과하고 서비스 산업이 70.0%의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방송·통신, 데이터 처리 및 호스팅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 산업 비중은 2016년 6.7%에서 2019년 7.1%로 큰 폭으로 성장했다.

2020년 산업별 GDP 비중을 살펴보면, 금융/보험/부동산/임대가 GDP의 2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문서비스/비즈니스서비스가 12.8%, 제조업이 10.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에 예술/공연/음식/숙박, 제조업, 운송/물류/유통, 광업, 교육/헬스케어/사회 복지, 도매업, 농업/어업/수렵 등의 비중은 감소했다. 미국 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9년 말까지 최장기 경제성장을 이어갔으며, 산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감소했다. 2015년 109.468을 나타냈던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지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결과 2019년 117.872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113.762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가장 활발한 산업활동을 나타낸 분야는 정보산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약 10포인트 상승을 지속했으나, 2020년에는 5.2포인트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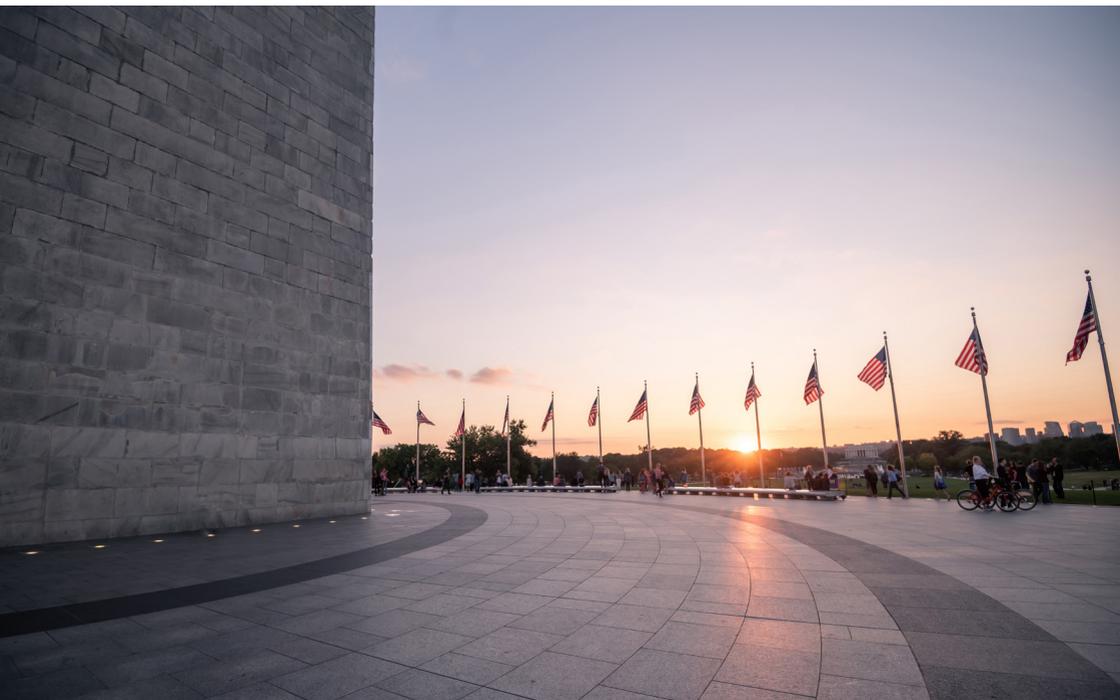


☞ 주요부문별 생산지수

산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내총생산	109.468	112.021	115.378	117.872	113.762
민간 부문	110.497	113.283	116.940	119.709	115.307
농업, 어업, 수렵	133.001	130.128	135.540	135.659	143.206
광업	119.044	120.121	126.039	140.557	124.617
가스, 수도, 전기	99.972	100.347	100.876	102.160	105.818
건설	113.337	116.868	120.122	120.091	117.826
제조업	105.467	108.160	112.745	114.960	111.704
도매업	109.412	111.213	111.878	109.538	105.193
소매업	112.981	116.995	120.068	123.099	119.690
운송, 물류 유통	109.202	113.438	118.281	122.016	106.384
정보	134.332	142.999	153.023	163.905	169.119
금융, 보험, 부동산, 대여	106.404	107.752	109.910	111.467	111.779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111.764	116.740	122.685	128.212	125.365
교육, 헬스케어, 사회복지	110.040	111.644	114.725	117.930	111.127
예술, 공연, 음식, 숙박	110.705	113.123	115.500	117.225	84.747
기타 서비스	101.850	102.665	106.048	107.483	93.922
공공 부문	100.170	101.231	102.258	103.244	101.092

주) 2012년 100을 기준으로 하는 수치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재인용,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바이든 정부는 정부주도형 산업정책 추진과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저탄소, 친환경 산업을 차세대 경제동력으로 삼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정부구매 및 연구개발에 7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정부주도 산업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증세를 통한 대규모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핵심 이슈는 미국의 반도체 자립으로 첨단 산업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 견제와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통한 미국 기술안보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 바이든 정부 주요 산업 육성 정책 방향

산업	주요내용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 정부의 혁신성장 기반 제조업 육성 정책 승계
첨단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첨단소재, 5G,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투자 및 고용창출 • 4차 산업 노동자의 권익보호, 지역 간 투자 불평등 해소, 첨단 분야 노동교육 및 인재 육성
의료/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바이오 관련 공급체인 재검토 후 미국 내 생산 확대 추진 • 미국 공공의료 및 정부기관 구매력을 통한 미국 생산제품을 우대하고 미국 의약품 수출 확대
환경/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청정에너지 경제 실현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제로 목표 제시 • 파리기후 조약에 재가입하여 기후변화 대응하는 국제협력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 • 무역협정에서 파리기후협정 준수하고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지원 금지조항 포함. 화석연료에 대한 국제기금 금융지원 중단 등 제한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간 1.3조달러 인프라 투자로 경제성장, 중산층 재건, 기후변화 대응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06. 환율 추이

▣ 연도별 미 달러 환율

구분	단위	2018.12.31	2019.12.31	2020.12.31	2021.08.17
환율	원/달러	1,116.00	1,156.00	1,088.00	1,174.50

출처: KEB하나은행



01. 인구구조

미국 연방 인구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2060년 미국 인구의 4분의 1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채워지고 평균수명은 85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흡연과 비만 등의 요인으로 기대수명 증가율은 지난 40년 간의 증가율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1970년~2015년 미국인 기대수명은 8년 가량 증가했지만, 2017~2060년 사이에는 6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세기 후반 전염병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고, 운동과 금연 촉진, 예방접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보고서는 2060년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 것으로 보이지만 기대수명 증가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모든 인종의 평균 수명이 늘겠지만, 흑인 남성, 인디언 남성, 알래스카 원주민 남성의 평균수명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인구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억3천200만명에서 2060년 4억400만명으로 약 4분의 1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출생자 비율은 2028년 미국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면서 185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외국인 이민을 금지할 경우 미국은 2035년 이후 인구가 줄기 시작해 2060년 3억2천만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2020-02-14

02. 노동정책

현행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에는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 달러로 책정돼 있다. 다만, 1개월 평균 30달러 이상 팁을 받는 서비스 업종 근로자들의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2.13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연방 최저 시급을 15.00달러로 인상하고 팁 크레딧(Tip Credit)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 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 상 노동조합이 교섭단체로서 법적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통해 교섭단위 근로



자들의 과반수 지지를 확보해 NLRB의 대표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청에서 완료까지는 평균 40~5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2020년 초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AB-5법의 ABC 검증요건을 노동, 고용, 세법에 있어서 연방표준으로 도입할 것을 공약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의 독립계약자들이 근로자로 분류된다.

출처: 박정택·김도윤 “월간노동법률”(2020-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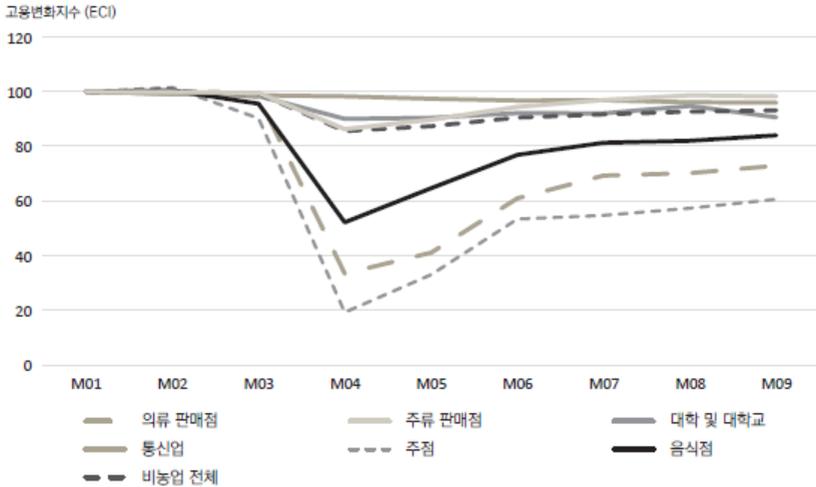
03. 노동시장 현황

▶ 코로나 19 대응 전략

2020년 3월 말 실업급여 신청자는 1주일에 6백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3월 초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주당 2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크게 고용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주점과 같이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장소에 고용된 사람들이다. 반면에 가상회의 플랫폼과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와 같이 수요가 높은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그림 >을 보면, 상대적으로 저숙련 근로자들은 고숙련 근로자들액 비해 실직 가능성이 높았다.

2020년 3월 27일 입법화된 「코로나바이러스 원조·구호·경제안정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의 예산 총액이 2조 2천억 달러(약 2,472조 원)에 달한다. 본 법안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대규모로 적시에 개인, 기업, 주정부, 지방정부를 직접 지원한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근로자와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CARES 법은 독립 계약자나 킥 노동자(Gig worker)와 같이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연간 근로소득이 7만5,000달러(약 8,428만 원) 미만인 이들에게 실업부조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단기 계약직 인력을 유지하는 기업과 비영리 기관에도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이후 예산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자 2020년 12월 추가로 9천억 달러(약 1,011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COVID Relief Deal)’을 통과시켰다.

주요 산업별 2020년 1월 이후 고용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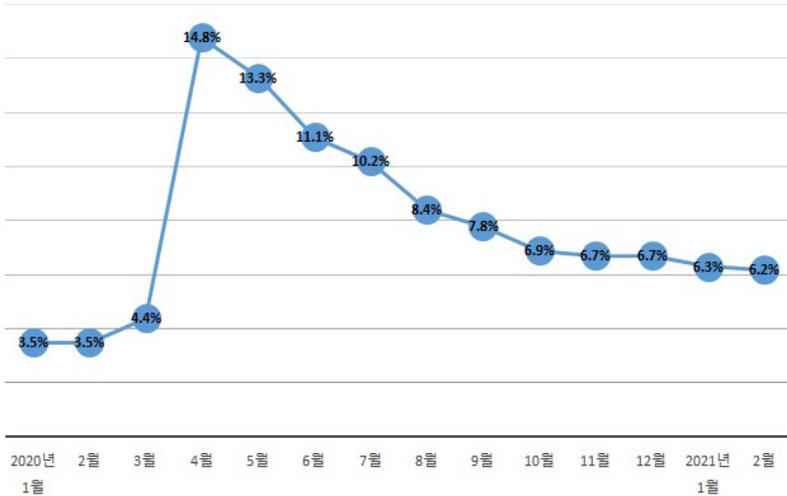
출처: 국제노동브리프 재인용(2021.02), 미국 통계청

고용시장 현황

2021년 2월 신규 고용 증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레저 및 호스피탈리티 산업이 이끌었다. 이 산업의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35만5000건 증가하였다. 특히 요식업 관련 일자리가 80%(28만6000건)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 업계의 영업 재개가 고용 증가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접종과 비즈니스의 영업 규제의 완화는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3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향후 일자리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 상황과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고 하였다. 흑인과 히스패닉 인종의 높은 실업률과 27주 이상 무직상태인 장기실업자의 비율도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2021년 2월 흑인과 히스패닉 인종의 실업률은 각각 9.9%와 8.5%로 전체 실업률(6.2%)을 웃돌았다. 장기실업자는 1년 전보다 300만 명 증가한 410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1.5%에 달했다. 2월 미국 전체 실업자수는 100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 실업률 추이(2020년 1월 ~ 2021년 2월)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재인용, 미 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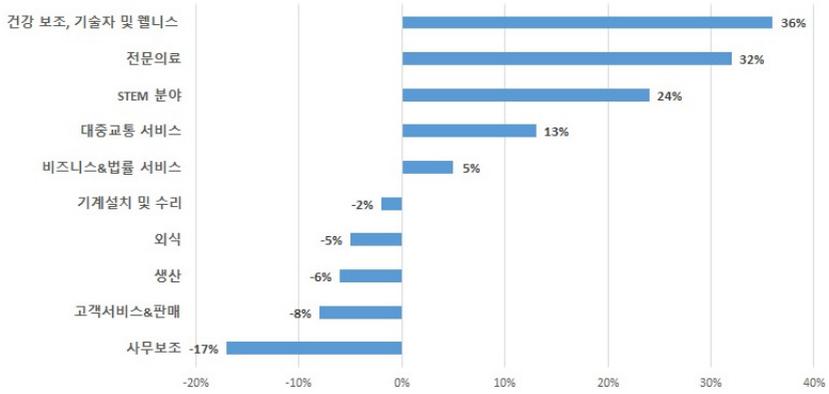
◆ 코로나 19가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

컨설팅 기업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미국 노동자의 10%에 해당하는 1700만 명이 오는 2030년까지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저임금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경제 재개가 되어도 일부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소매업과 호스피탈리티 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이 업계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여성, 소수인종, 저학력자, 젊은 층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팬데믹으로 원격근무, 재택근무, 인구증가, 전자상거래와 배달 경제의 확대, AI와 로봇 도입 활성화 등 변화가 가속화되었고 일자리 시장의 구조변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장기적으로 미국 일자리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 기술의 도입을 부추기고 자동화, 무인화, 원격화, 비대면 경제 확대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8~2030년 미국 노동 수요 변화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재인용, McKinsey Global Institute





01. 개요

미국 연방의 근로기준법은 공정근로기준법으로 FLSA(Fair Labor Standard Act)라고 한다. 그러나 연방의 공정근로기준법은 구체적인 근로규약을 명시하지 않아서 실제 구체적인 노동법규를 적용하는 역할은 노사관계법, 고용차별금지법, 고용관계법 등의 개별 법안이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 주마다 별도의 노동 법규가 존재한다.

02. 고용차별금지법

미국은 1963년 성에 따른 임금차별에 대한 동일임금법(Equal Payment Act), 1964년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공민권법 제7편(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1967년 연령으로 인한 차별과 관련해서는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DEA),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는 1973년 재활법, 1990년 미국인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이 제정되었다. 특히 공민권법 제7편은 고용차별금지법의 모델에 해당하는 일반법 내지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이후 고용차별금지입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임신, 종교, 출신국, 인종, 연령에 따라 차별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임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단체행위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차별하는 것도 금지된다.

03. 최저임금 보장

일반적으로 종업원은 주 40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당 임금은 연방정부 기준 시간당 7.25(2021년 5월 미 노동부 발표) 달러이다. 다만 각 주별로 최저임금 기준이 다른데 연방정부의 기준보다 주정부 최저임금이 높은 경우 주정부의 것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1년 미국 주별 최저임금

주명	2021년 최저임금	주명	2021년 최저임금
알라배마 주	\$7.25	몬타나 주	\$8.65
알래스카 주	\$10.19	네브래스카 주	\$9.00
아리조나 주	\$12.00	네바다 주	\$9.00
아칸소 주	\$10.00	뉴햄프셔 주	\$7.25
캘리포니아 주	\$13.00	뉴저지 주	\$11.00
콜로라도 주	\$12.00	뉴멕시코 주	\$9.00
코네티컷 주	\$12.00	뉴욕 주	\$12.50
델라웨어 주	\$9.25	노스 캐롤라이나 주	\$7.25
워싱턴 D.C.	\$15.00	노스 다코타 주	\$7.25
플로리다 주	\$8.56	오하이오 주	\$8.70
조지아 주	\$5.15	오클라호마 주	\$7.25
하와이 주	\$10.10	오래건 주	\$12.00
아이다호 주	\$7.25	펜실베이니아 주	\$7.25
일리노이 주	\$10.00	로드 아일랜드 주	\$10.50
인디애나 주	\$7.25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7.25
아이오와 주	\$7.25	사우스 다코타 주	\$9.30
캔사스 주	\$7.25	테네시 주	\$7.25
켄터키 주	\$7.25	텍사스 주	\$7.25
루이지애나 주	\$7.25	유타 주	\$7.25
메인 주	\$12.00	버몬트 주	\$10.96
메릴랜드 주	\$11.00	버지니아 주	\$7.25
메사추세츠 주	\$12.75	워싱턴 주	\$15.00
미시간 주	\$10.00	웨스트 버지니아 주	\$8.75
미네소타 주	\$10.00	위스콘신 주	\$7.25
미시시피 주	\$7.25	와이오밍 주	\$5.15
미주리 주	\$9.45		

출처: 미국 노동통계청

04. 근로시간 규정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법정 근로 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할 노동시간이란 근로자가 직접 노동을 수행한 시간,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있었던 모든 시간이 포함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출장(여행시간), 대기시간, 훈련기간, 유예기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1.5배 임금 지불은 급여지급 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05. 휴일 및 휴가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휴가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으며, 많은 경우 휴가기간이나 급여 지불 여부는 개인이 회사와 맺는 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한 고용계약의 기준이 되는 법인“The Fair Labor Standard Act(FLSA)”은 휴가나 병가 혹은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 회사가 급여 등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유급 혹은 무급 휴가 일수는 개별 혹은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연방공휴일

미국 연방 공휴일		매년 바뀌는 연방 공휴일	
01. 01	New Year's Day	1월 셋째 주 월요일	마틴 루터 킹의 날
07. 04	독립기념일	2월 셋째 주 월요일 2월 셋째 주 월요일	대통령의 날
11. 11	재향군인의 날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Memorial Day
		9월 첫째 주 월요일	노동절
12. 25	크리스마스	10월 둘째 주 월요일 10월 둘째 주 월요일	콜럼버스 기념일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주) 콜럼버스 기념일은 상당히 예외적인 기념일로, 대체로 동부주에서는 주 공휴일이기도 하나 중서부, 서부주에서는 연방 공휴일로 보되 주 공휴일은 아니어서 쉬지 않는다.

다만, 미국은 10일의 연방공휴일이 있으며 연방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금요일을, 일요일일 경우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가족의료휴가(family and medical leave)는 1993년 발효된 FMLA에 의해 보장된 무급휴가이다. 이 법규는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기업, 그리고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 적용된다. 최소한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25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 사람은 모두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종업원들이 이 FMLA 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근로자는 이런 휴가의 발생이 예측 가능한 경우 최소한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예측이 불가능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FMLA 는 다른 고용계약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06. 퇴직 및 해고

미국은 Employment at will (임의고용의 원칙)이 있다. 부당해고의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주는 언제든지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고, 종업원 역시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 다만 인사부서에서는 종업원 해고 결정을 위한 적합한 문서를 구비해야 한다. 차별 대우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기준 하에서 피고용인이 해고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과 모든 사람에게 일관된 징계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해고 결정은 반드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해고 결정에 대한 변론, 그리고 단계적인 징계 등 기업의 인사방침과 인사관리 규정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해고가 결정되면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 해고를 통보한다. 법적으로 해고 60일 전에는 피고용인에게 통보해야만 한다. 단, 회사 직원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인사기록부 기록사항과 기록 금지사항

<p>기록 사항</p>	<p>모든 승진 기록, 봉급 인상, 업무평가를 기록한다. 피고용인과의 회의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안(예: 고객으로부터 나온 피고용인에 대한 불평)을 메모로 남긴다. 이때 단순한 결론이 아닌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징계 결과 뒤 업무수행 내용과 업무수행 향상 또는 근무 태도 개선 등의 점검 기록을 포함한 피고용인의 모든 경고와 징계를 문서화한다. 의사 진단서 등 결론에 대한 피고용인의 해명을 포함해 결론과 결론 날짜, 무단결근, 반복적인 지각 등을 기록한다.</p>
<p>기록 금지사항</p>	<p>회사 변호사의 서신을 인사기록부에 보관하지 않는다. 만약 보관했을 경우, 변호사와 고객 간의 비밀보장 특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소송이 걸려올 경우 변호사 서신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불확실하거나 미완성된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 사실만 기입하며 결론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p>

07. 퇴직금 제도

법률상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가 임의로 정해도 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금은 없다. 개인연금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401K라는 세금공제형 은퇴 대비 펀드를 제공한다. 다만, 회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대규모 해고의 경우 우리나라 명예퇴직금 형태의 전별금(severance)을 주기도 한다.



04 임금제도

01. 임금의 체계

미국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직무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직무급을 기본으로 한다. 미국은 기업차원에서 직무를 중심으로 한 분석과 실증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서는 직무의 시장가치, 즉 시장임금이 형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O*Net (<https://www.onetonline.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사시기 연봉계약은 기술된 직무급을 기초로 산정되지만, 이후 성과를 반영하여 계산하는 식이다. 제조업체의 생산직원은 물가연동조항에 따른 생계비 보장이나 연공급의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직무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근속연수가 증가해도 임금수준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다. 미국은 사회보장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노후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근속기간 동안에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세금형태로 부담한다.

02. 구성요소

▶ 기본급과 직무급

기본급은 직무가치에 따른 직무급의 형태로 결정된다. 보상요인(compensable factors)은 숙련도(skill), 노력(effort)수준, 책임(responsibility)수준과 같은 직무가치와 근로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급의 조정은 대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물가상승연동조항에 따라 이뤄진다. 또한, 개인의 근속연수(seniority)를 반영하기도 한다.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숙련도가 향상되는 것을 기본급의 인상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직무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job analysis)을 해야 한다. 직무분석은 각 직무마다 이루어지는데 미국의 노동통계청의 자료집에는 23개의 주요 직무군이 정해져 있다. 실제로는 매우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직무분석을 통해서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와 직무명세서(job specification)가 작성된다.

직무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이나 조직에 기여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직무평가(job



evaluation)가 이루어진다. 이 상대적 가치는 조직외부의 시장에서 절대적 금액, 즉 시장 임금(market wage)으로 평가된다. 이를 시장조사(market survey)라고 한다. 하지만 같은 직무라고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당시의 시장수요와 공급상황, 일하는 지역(대도시 또는 중소규모 도시), 회사의 규모, 업종, 회사의 임금수준전략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성과급

개인업적평가급(merit pay)은 주로 사무관리직 등과 같이 직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직종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영업직과 같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커미션(commission)에 의한 개인성과급을 제공한다. 인센티브(Incentive)는 개인, 집단, 회사 전체의 성과를 기준으로 운영되는데 성과수준에 따라 매년 비누적으로 운영된다. 일시급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여금과는 구분된다.

◆ 복리후생비용

복리후생은 법정(legally required) 복리후생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발적(discretionary) 복리후생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 복리후생은 산업재해나 질병, 실업 등에 대한 대비책이며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이나 연금제도(pension plan)가 포함된다. 자발적 복리후생에는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호프로그램, 휴가를 포함하는 비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및 학비지원이나 자녀양육비지원 등이 포함된다.

03. 평균임금수준 현황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미국 근로자 임금이 급등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대란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임금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시간당 30.85달러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 연속 4% 넘는 오름세이다.

미국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단위: 달러)

2021년 1월	2021년 9월
28.43(3.0%)	30.85(4.6%)

출처: 미국 노동부.

주) 괄호()안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다만, 미국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주 또는 도시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정 지역의 자세한 평균 임금 수준은 미국 노동통계국(<http://www.bl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 사회보장제도

01. 개요

은퇴연금제도는 다양하며 선택에 따라 회사가 부담할 비용에도 차이가 생긴다. 은퇴 연금제도는 회사의 비용 부담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직원이 은퇴 후 일정연금을 평생 받도록 규정하고 매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제도(Defined benefit plan)와 회사가 매년 직원 은퇴기금에 적립할 의무액을 정해 놓고 적립하는 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가 있다. 직원의 은퇴혜택이 고정되어있는 연금제도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02. 미국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은 401(k) 도입과 함께 크게 발전하여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노후보장체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다.

☰ 퇴직연금제도

구분	내용
공적연금 (Social Security)	노령·유족·장애보험제도(Old Age,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 OASDI), 철도직원퇴직제도, 연방 공무원 퇴직제도, 주 및 지방공무원 퇴직제도, 퇴역군인 제도 등으로 구분
기업퇴직연금 (Corporate Pension)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연금으로서, 공적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보장을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기능
개인연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외 추가연금을 원하는 근로자가 개인차원에서 적립하는 연금

03. 의료보험

최근 몇 년간 의료 보험 수가가 많이 인상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감



소 추세에 있으며, 의료보험을 제공하더라도 적용되는 혜택을 줄이거나 직원의 공동 부담액을 늘리는 추세이다. 보험 금액은 직원 외 가족의 포함 여부, 의사와 병원의 선택 폭,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 의사나 병원 방문 시 직원의 부담액(Co-Pay & Deductible), 처방약, 치과, 한방, 안경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선택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 의료보험 종류

구분	내용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진료를 받으려면 항상 주치의에게 가야만 하고 전문분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주치의가 추천(Referral)하고 같은 지역(Group) 내의 전문의에게 갈 수 있다. 주치의가 병력을 관리해주고 소액의 본인 부담금(Co-payment)만 지불하면 된다. 주치의의 전문분야가 아닐 경우 치료가 늦을 수 있고 보험료가 비싸다.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보험회사 네트워크 내의 병원에 자유롭게 갈 수 있어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고액의 공제액(Deductible)을 부담해야 하므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개인 플랜일 경우에 HMO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메디케어 (Medicare)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로 65세 이상 혹은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메디케이드 (Medicaid)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로써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미국 내 의료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크다.

04. 사회보장연금

정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에는 퇴직 후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장연금제도와 시민권자 또는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신체적 장애로 향후 일 년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비 보조 프로그램인 사회보장 보조금 등이 있다.

05. 실업보험

연방정부와의 협력 하에 주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대공황 이후 실업과 이에 따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지원과 운영감독을 받는 제도였다. 그 후 연방정부는 조세상쇄(tax offset) 제도를 통하여 개별주로 하여금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도록 유도하였고, 현재는 모든 주가 주 차원의 실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06. 재해보험

4명 이상의 근로자를 두는 회사들은 법적으로 재해보상 보험을 들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는 산업 재해보상 보험회사에 보상 요청 클레임을 걸 수 있다. 클레임은 사고가 난 후 30일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 재해보상은 수입을 대신해주며, 의료 치료비용과 재활치료 교육혜택을 담고 있다. 대개 재해보상은 부상 기간 동안 월급의 3분의 2를 보상해 준다.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불받을 수 있다.





06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 급여세, 재산세 등이며, 소득세에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거주하는 주 또는 지방에 납부하는 세금(State and/or local income tax)이 산정되어 부과된다. 또한, 납부자의 가족 구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다.

☰ 2021년 소득세 구간

세율	1인 가구	부부 합산 신고	세대주 신고
10%	\$0 ~ \$9,950	\$0 ~ \$19,900	\$0 ~ \$14,200
12%	\$9,951 ~ \$40,525	\$19,9010 ~ \$81,050	\$14,201 ~ \$54,200
22%	\$40,526 ~ \$86,375	\$81,051 ~ \$172,750	\$54,201 ~ \$86,350
24%	\$86,376 ~ \$164,925	\$172,751 ~ \$329,850	\$86,351 ~ \$164,900
32%	\$164,926 ~ \$209,425	\$329,851 ~ \$418,850	\$164,901 ~ \$209,400
35%	\$209,426 ~ \$523,600	\$418,851 ~ \$623,300	\$209,401 ~ \$523,600
37%	\$523,600 이상	\$623,800 이상	\$523,600 이상

세법에 따라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급여 중 일부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세금으로 원천징수(Withhold)하여, 그 금액을 연방 정부나 각 주에 급여세로 납부한다. 급여세에는 사회보장연금 및 의료보험세, 실업보험세가 있다.

☰ 사회보장연금/의료보험세와 실업보험세

사회보장연금 / 의료보험세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실업보험세(Unemployment Tax)
사회보장연금으로 낸 세금은 보통 은퇴 이후에 돌려받고 의료보험으로 낸 세금은 의료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보험제도 유지를 위해 쓰인다.	실업자들의 생계유지나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다.

급여소득자의 소득세는 회사가 매월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한다. 하지만 1년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은 해당 급여소득자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세액과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1년간의 급여 총액 (Adjusted Gross Income)이 확정되는 매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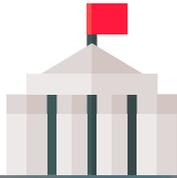


말에 당해 연도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다음해 4월 15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과부족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이다.



PART
02

산업 및 업종별 취업전략



01

취업 유망직종 현황

-

02

채용 트렌드 및 취업역량

-

03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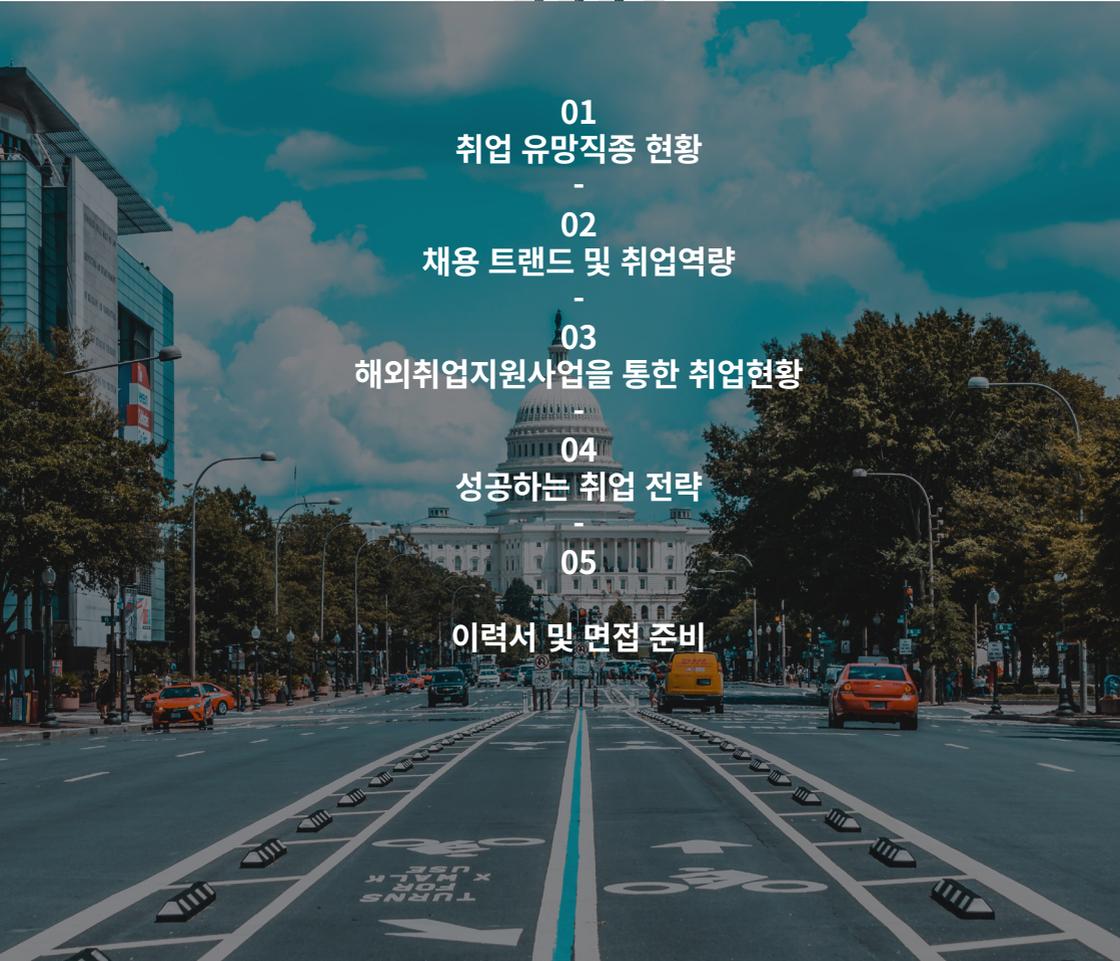
04

성공하는 취업 전략

-

05

이력서 및 면접 준비





01 취업 유망직종 현황

01. 한국인 취업현황 통계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5년간) 가장 취업이 많이 된 직종은 경영사무 직종으로 2,116명이며, 다음으로 디자인 직종 806명, IT 직종 407명, 관광 직종 216명 순이다. 연도별로 보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2019년이 1,524명으로 미국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취업자수가 901명으로 감소하였다.

☞ 미국 연도별 취업현황 (단위: 명)

직종	직무	2016	2017	2018	2019	2020	소계
경영사무	경영지원 회계세무 영업판매 무역	184	247	364	801	520	2,116
디자인	패션디자인 직물디자인 패션코디네이터	102	125	206	219	151	806
IT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시스템 운영 웹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 시스템 프로그밍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데이터베이스 관리	37	72	134	122	42	407
관광	호텔서비스 조리사 음식서비스	1	34	47	97	37	216
그 외	-	184	270	629	285	151	1,519
합계(명)		508	748	1,380	1,524	901	5,061

02. 취업 유망 직종

미국에서 취업유망직종은 IT 통신업(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자바 개발자 등), 의료서비스업(간호사 등), 산업 디자인(패션 디자인 등)이 꼽히고 있다(출처: 한국유학저



널, 2021-09-17). 또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의 직업 800개를 대상으로 2028년까지 예상되는 연간 수요(예산 고용인원 수, 미 노동부 발표자료 기준)와 해당 직업의 2018년 연봉 중간값을 기반으로 순위를 매겼다. 그 중 상위 직업을 보면, 관리 및 운영 책임자(General and operations managers), 일반행정 서비스 관리자(Administrative services managers), 경리담당 책임자(Financial managers), 영업 책임자(Sales managers),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Software developers), 의료 및 건강 서비스 관리자(Medical and health services managers), 공인 간호사(Registered nurses)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초우량 IT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스템분석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IT 보안 컨설팅 등 IT 전문가들의 구인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IT 계열은 2000년대 이후 국내 인력들에게는 기회의 직업이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IT분야는 다른 직종에 비해 외국인 채용에 대한 장벽이 높지 않다.

경영, 회계세무, 영업, 무역 관련 직종은 한국을 비롯한 동양인들이 많이 진출한 직종이다. 대학교에서 경제, 경영, 회계 분야의 전공을 하고, 미국의 세법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분야이다. 경영사무 직종은 거의 모든 산업과 기업, 기관에 필수적인 인력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인력수요가 꾸준한 직종이다. 또한,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 경우 한국인 중간, 초급 관리자들을 필요로 한다. 해외에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 등을 두고 있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의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생산 및 제조를 담당하게 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파견 또는 현지에서 채용한다.

디자인 직종은 패션디자인, 직물디자인, 코디네이터 등 전 분야에 걸쳐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많은 한상기업들이 뉴욕과 LA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어서 한국 청년에 대한 수요가 높다. 영어 구사력이 높은 경우 미국 기업에 취업도 가능하다.

관광 직종은 일자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제한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호텔서비스, 음식서비스, 조리사, 조리보조원 등에 있어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노

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전망한 2016년에서 2026년까지의 최대 고용 성장 산업 및 예상 일자리 증가 수를 보면, 외식업이 건축업 의료·보건 서비스업 및 컴퓨터 관련 기술 서비스업과 함께 인력수요가 가장 높은 산업으로 전망되었다. 간호사(RN)은 미국 사회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의료보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인력수요가 기대된다. 향후 유망직업의 70%가 의료보건 관련임을 주지한다면, 시장 확대에 따른 취업 가능성은 그 어느 산업보다 크다. 미국 간호사는 그동안 국내인력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던 직종 중에 하나였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으며, 다른 직업에 비해 복지혜택과 대우가 좋은 것이 특징이다. 전세계적인 노령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인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앞으로도 유망한 분야이다.

지금까지의 미국취업통계와 미국 취업 유망직종 분석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인 취업 유망직종을 선정하였다.

☞ 한국인 취업 유망직종 전망

취업 유망직종	배경
경영사무	미국기업 내 인 하우스 회계부서에는 동양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타 부서에 비해 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IT	인재 부재로 인재채용희망 기업들은 비자 및 영주권 스폰서를 통해서라도 인재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해당관련 제조업 역시 인력수급이 절박한 상황
디자인	디자인 분야에는 이미 많은 한국인이 진출해 있으나, 해당분야의 한국인 전문가들이 업계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아지며, 패션디자이너, 패션코디네이터, 직물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관광	2021년 미국 내 백신 접종이 확대됨으로써 해외 입출국 뿐 아니라, 미국 내 여행과 이동이 증가하고 있음. 주로 호텔의 백 오피스와 프론트 오피스, 레스토랑 등의 인력 수요가 있음.
간호사	노령화로 인하여 의료관련 모든 분야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투자 증가로 인한 해당 산업의 장기 인력 수요 급증 예상.





02 채용 트렌드 및 취업역량

01. 경영사무 직종

▶ 채용 트렌드

경영사무 직종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인력수요가 있다.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본사와 글로벌 법인을 연결하는 초급,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미국 전역에 걸쳐 꾸준하게 취업 수요가 있는 직종인 반면에 회전율이 높고 직무지속성이 낮은 편이다. 연봉의 중간값은 \$38,000 수준이지만, \$21,000에서 \$52,000 까지 능력과 경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업무 강도가 센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한국 취업자의 경우 비자 스폰서 비율 역시 낮은 편이다.

한상기업에 취업한 경우 중견기업은 \$32,000 수준, 중소기업은 \$22,00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구인 수요가 있는 한상기업의 업종을 보면, 의료용 기기 제조업, 화장품 운송업, 화장품 도매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경영컨설팅업, 봉제의복 제조업, 신발 소매업, 가정 용품 소매업 등 다양하다.

▶ 취업역량

경영사무 직종은 다시 경영지원, 회계세무, 영업판매, 무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상기업의 경우, 특히 J-1 인턴비자를 통해 취업을 하는 경우 전문 역량 보다 영어능력과 함께 팀워크, 성실성, 적응력과 같은 역량이 요구된다.





▣ 경영사무 직종 유망 분야

세부 분야	취업 역량
경영지원	경영지원 분야는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경영지원 분야 중에서 총무인사 분야는 시장분석능력과 미국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획 분야는 경영전략 수립과 재무제표 분석 등이 요구된다.
회계세무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전공자들을 선호하며, 미국의 회계 제도와 세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또한 전산처리를 위한 패키지 활용과 엑셀 등 문서작업에 숙달된 수준이 요구된다. 미국에서 회계 분야로 지속적인 경력을 쌓고 싶은 사람은 미국공인회계사(AICPA) 시험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ICPA는 어느 나라 출신이든 전공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4년제 대학졸업자라면 응시할 수 있다.
영업판매	영업판매 분야는 고객과 소비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제품, 기술, 서비스 등 유무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다. 따라서 고객 및 시장 분석능력, 대인관계능력, 친화능력이 중요하다.
무역	무역 분야는 해외 수출입 계약거래 등 무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주로 무역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출입 거래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정리하고 계약상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정리한다. 따라서 관세법에 대한 이해, 통관처리, 고객사 관리 능력 등이 요구된다.

02. IT 직종

▶ 채용 트렌드

미국 IT 산업은 전세계의 기술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IT 분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지원 전문가, 시스템 분석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하게 된다. 최근에는 AI, IoT,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IT 전문가 고용률은 2024년까지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전문가 27%,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11%, 네트워크 전문가 9%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고용증가율은 IT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창출되고 기존 산업에서 IT 활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장점은 다른 분야에 비해 외국인 채용에 대한 장벽이 낮다는 점이다.

미국 IT 전문매체 Mashable지는 IT 분야에서 고액 연봉으로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

는 10개 직종을 선정해 소개했다. 스마트폰 등 인터넷과 연결된 정보기기들과 관련된 직종들이다. 특히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사이버보안환경, 생활화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확산, 빅데이터 시대 도래와 같은 사회적 정보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IT 직종 유망 분야

분야	직무내용	학력	연봉(\$)
비즈니스 연속성 분석가 (Business continuity analyst)	기업이 정전이나 재해 발생시 데이터를 복구하고 정상 운영을 재개하도록 보장하는 일을 한다. 또한 잠재적 위험과 손실을 기반으로 복구전략을 연구하고 준비한다.	경영학, MIS, 컴퓨터과학 학사	95,000~105,000
컴퓨터 및 정보과학자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tists)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고안한다. 산업, 공학,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프트엔지니어링, 컴퓨터엔지니어링 대학원	77,000~125,000
데이터 모델러(Data modeler)	컴퓨터의 이진 프로세스를 위한 개념적, 물리적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는 설계자 팀과 협력하는 시스템 분석가이다. 시스템 간 데이터 전송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데이터나 중복 데이터를 줄이기 위한 프로세스를 고안한다.	응용수학, 정보시스템 관리 등 학사	75,000~103,000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System software engineer)	수학적 분석과 결합된 컴퓨터 과학의 원리와 이론을 컴퓨터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 시험, 유지하는데 적용한다.	컴퓨터 시스템 등 학사	73,000~114,000
네트워크 보안 관리자 (Network security administrator)	기업 및 조직 내에서 컴퓨터 시스템과 데이터를 유지하고 보고하는 IT 팀의 구성원이다. 컴퓨터 시스템과 서버의 설치, 지원, 유지, 보수를 수행한다.	컴퓨터 시스템 등 학사	68,000~88,000
컴퓨터 프로그래머 (Computer programmer)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코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논리적인 명령어로 변환하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안한다.	컴퓨터 공학 등 학사	53,000~90,000

출처: IEAA 글로벌코칭센터

❶ 취업역량

미국 IT 업종의 취업을 위해서는 실력과 경력이 중요하다. 다른 산업에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실력을 어떻게 입증하는 가가 성패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IT 전문가로서의 요구 역량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서부터 응용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다.

IT 직종은 직무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학력보다는 실제 업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채용과정에서 이를 회사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IT 분야는 세부 직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이 있으며, 최근에 채용 과정에 자신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하는 것은 취업에 도움이 된다.

IT 직종 요구 역량

IT 분야	요구역량
데이터 베이스 전문가	구조화 질의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운용 및 유지보수, 데이터 클리닝, 마이그레이션, 튜닝, 트리플 슈팅
모바일 프로그래머	네트워크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디자인 패턴, 구조화 질의어, 컴퓨터 구조, 컴퓨터 보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웹서비스, 웹 프로그래밍 기술, 와이어 프레임
웹 프로그래머	구조화 질의어, 네트워크 아키텍처, 디자인 패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자바스크립트, HTML 및 CSS, PHP, MySQL
그 외 프로그래머	자료 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 구조화 질의어, 객체지향 설계 방법론, 디자인 패턴, UML, 개정관리시스템, 웹서비스 관련 기술, 데이터 베이스 관련 기술, 리포팅 툴
네트워크 전문가	네트워크시스템, 네트워크 프로토콜, LAN/WAN, 라우터, 스위치, 브릿지, 네트워크보안,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유닉스/리눅스
소프트웨어 개발자	Go, Rust, Dart 등 프로그램 언어, 자바, 자바스크립트, SQL, 파이썬

▶ 역량 개발 방법

IT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후에는 인턴십, 프로젝트, 파트타임 업무 등을 실무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 온라인 강의(MOOCs)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자신의 전공이 IT분야가 아니라면, 나노 학위나 미니 학위를 통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발자들은 새로운 스킬을 배울 기회를 갖는 경우도 있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위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

☰ 온라인 강의 사이트

이름	웹주소	영역
유다시티	http://www.udacity.com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 마케팅, 디자인 강좌 등 IT 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 과목을 교육.
코세라	http://www.coursera.org	2012년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 다프네 콜러와 앤드류 응이 설립.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있으며, 강의 품질이 뛰어나.
인프런	http://www.inflern.com	자신의 지식을 나눠 배움의 기회를 주고, 의미있는 보상을 받는 한국 온라인 플랫폼이며, 총회원수 32만명, 누적수강생은 162만명.
칸아카데미	http://www.khanacademy.org	2006년 살만 칸이 만든 비영리 교육 서비스. 여러 분야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음.
유데미	http://www.udemy.com	2010년 만들어진 미국 온라인 교육 플랫폼. 2020년 1월 기준 190개 5천만명이 넘는 수강생과 57,000명의 강사들이 등록. 2/3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접속

IT 분야는 학력보다는 경력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현장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가 제한적인 청년들은 프리랜서 채용 사이트에 게시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원격으로 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프로젝트 전체를 이끌어줄 수 있는 중급 전문가와 팀을 구성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다. 대표적인 IT 관련 프로젝트 사이트는 프리랜서닷컴(<http://www.freelancer.com>), 업워크(<http://www.upwork.com>), 프로젝트포하이어(<http://www.project4hire.com>) 등이 있다.

03. 패션디자인 직종

▶ 패션디자인 직종 개요

패션디자인 직종은 자신의 작업을 회사의 상사와 동료,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등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이다. 토익이나 토플과 같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실생활과 업무에 필

요한 커뮤니케이션 위주의 영어 공부 필요하다. 특히 까다로운 클라이언트 등의 요구사항과 질문에 대해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활용능력이 중요하다. 포트폴리오 작성 시 한국어 보다는 영어로 제작된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포트폴리오 제작 시에는 웹사이트와 프린트된 포트폴리오 두 가지를 모두 제작하는 것이 좋다. 웹사이트 제작 시에는 자신이 지닌 디자인 스타일과 개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작하며 플래시를 사용한 화려한 애니메이션이나 테크니적인 요소보다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센스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2020년 패션디자인 직종의 연봉 중간값은 시간당 36.5 달러이고, 연간 75,810달러에 해당한다(출처: O*Net). 패션디자인 직종은 디자이너 외에 편집 및 그 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 패션디자인 직종 세부 분야

구분	세부 분야
디자인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시스턴트 테크니컬 디자이너 - 어시스턴트 디자이너 - 디자이너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편집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집부 어시스턴트 - 에디터 - 디렉터급 에디터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래픽 디자이너 어시스턴트 - 스타일리스트 - 바이어

🔍 취업역량

국내 기업과 달리 미국 기업에서는 수습 교육이 없이 바로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역량을 개발해 두어야 한다.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 패션트렌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콜렉션의 주제를 결정하고, 디자인을 위한 CAD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시현하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패션디자이너의 역할과 자질

역할	중요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트렌드를 조사한다. - 컬렉션의 주제를 결정한다. - 디자인을 위해 CAD를 사용한다. - 패브릭 샘플을 얻기 위해 제조사를 방문한다. - 패브릭, 색상, 스타일 등을 결정한다. - 디자인 아이디어를 시험한다. - 디자인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적 능력 - 커뮤니케이션 스킬 - 컴퓨터(CAD) 스킬 - 창의성 - 의사결정 능력 - 세심함

출처: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04. 관광 직종

▶ 관광 직종 개요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레저 및 관광산업 종사자수는 1,313만 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과 국내 여행자들을 위한 호텔과 음식점 등의 종사자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여행과 국제 비즈니스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로 2017년 해외 여행객의 총 지출액은 2,510억 달러였으며, 호텔 예약 총액은 1,850억 달러에 이르렀다. 2021년 상반기 미국 내 백신보급으로 여행 산업이 다시 활성화 되고 있다. 미국 교통 안전청(TSA)에 따르면 3월에는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인원이 여객기를 이용하여 여행을 했다고 보고하였다.

관광 직종 미국 취업자를 보면 호텔서비스와 음식서비스 분야에서 집중되어 있다. 먼저 호텔에서의 세부 직무는 크게 백 오피스(back office: 사무직), 프런트 오피스(front office: 객실부), 식음료수(food & beverage: F&B)로 나눌 수 있다.

호텔서비스 직무

분야	직무 내용
Back office	Planning, Marketing, Sales, Finance, HR
Front office	Front Desk, GRO, Concierge, Guest service center
F&B	식음료, 연회장, Club lounge

음식서비스 분야를 보면, 레스토랑 산업의 산업이익률(ROIC)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며, 미국내 산업 평균(12.4%)를 상회하는 15.5% 수준이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철강산업보다 높다. 급여 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음식서비스 분야의 직무는 조리와 제과제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음식서비스 직무

분야	직무 내용
조리	한식조리, 일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제과제빵	제과기능, 제빵기능, 떡제조기능

취업역량

호텔서비스 분야의 채용기준은 일반적으로 초대졸 이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중·상급 수준의 영어구사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 호텔의 구인 공고를 살펴보면, 영어 실력 외에도 경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고객 응대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마인드를 기본 소양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호텔 인사담당자들은 호텔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턴을 거친 검증된 인력을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호텔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호텔서비스 취업역량

구분	취업 역량
학력	전문 학사 이상(관련학과 졸업 우대)
영어	중·상급 수준
인성·적성	서비스 마인드, 적응력, 문제해결능력
경력	인턴, 아르바이트 등 우대(경력자 선호)

음식서비스 분야 요리사의 경우 초기 수습단계에서는 단순한 요리준비를 하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고객서비스와 레스토랑 관리 전반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음식서비스 분야에 뛰어드는 취업준비생은 경력의 일정 단계 이상에서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요리사의 핵심직무역량은 음식준비(Food preparation), 음식 안전관리(Food safety), 메뉴 기획(Menu planning), 재고관리 및 주문(Order inventory), 청결 및 위생(Cleaning)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K-Move 스텝 운영기관의 연수 내용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음식서비스 취업역량

분야	취업 역량
조리	[한식] 메뉴관리, 면류조리, 국·탕조리, 찜·선조리, 구이, 찌개, 전골, 볶음, 전·적 조리
	[양식] 스톱, 소스·수프, 샐러드, 어패류, 육류, 사이드 디쉬
	[일식] 희살·붉은생선회, 패류회, 초밥, 조림, 구이, 찜, 튀김, 면류, 국물
제과제빵	[제과] 재료혼합, 반죽성형, 반죽숙성, 포장, 생산작업, 초콜릿, 장식케이크
	[제빵] 생산작업, 반죽발효, 성형, 페이스트리, 조리빵, 고출배합빵

05. 간호사

▶ 간호사 직업 개요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s),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s) 및 물리치료사 보조, 의료보조사(Physician Assistants), 가정방문요양사(Home Health Aides) 등 의료 및 사회복지 관련 인력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6%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증 취득이 필수이기 때문에 취업까지 상당한 준비기간 소요될 수 있다.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평균 임금은 77,460 달러(2020년 1월 기준, 미국 노동청)로 높은 편이다. 기존에는 영어권 국가인 필리핀과 중국의 간호사 인력이 많이 취업을 했으나, 영주권 쿼터가 길어지면서 인력수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간호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미국 간호사 자격 요건

대표적인 부족직군 중 하나인 간호사(Registered Nurses)의 경우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간호사자격증(NCLEX-RN)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의 경우 의사소통

이 중요하므로 영어회화능력이 필수적이다. 간호사의 취업이민(EB-3)*은 노동허가서(LC)없이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어 6개월~15개월 내로 빠른 수속이 가능하지만, 미국 이민국의 청원서 처리기간이 매년 유동적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주요한 역할은 환자의 의료기록을 관리하고, 처방 및 처치를 관리하고, 치료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와 협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판단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열정과 세심함 등이 요구된다.

미국의 간호자격증은 주마다 자치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간호면허국(Nursing board)에서 발급한다. 외국 간호사에게 간호자격증을 발급하는 조건도 각 주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간호면허증 자격증 신청서, 교육과정 및 자격심사, NCLEX-RN을 필수로 한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영어능력 시험 점수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각 주마다 필요한 간호사 자격 조건은 해당 주 간호면허국 웹사이트에 나와 있으며, NCSBN 웹사이트(<http://www.ncsbn.org>)에서 모든 주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취업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에 있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정규직 채용 제의를 받아야 한다.

■ 간호사 EB-3(취업이민비자) 자격요건

- 간호대학 졸업
 - NCLEX-RN 자격증 보유
 - 경력 3년 이상으로 ICU, CCU, CVICU, PACU, ER, OR, Cath Lab 등 경력
 - IELTS 6.5(스피킹 7.0)이상/TOEFL 83(iBT)·스피킹 26 이상*
- ※ IELTS는 평균과 스피킹을 동시에 취득하지 않아도 됨. 반면에 TOEFL는 평균과 스피킹을 동일 시험에서 취득해야 함.

간호사로 근무를 하게 될 때 유의할 점은 미국인들은 대부분 당사자 앞에서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항상 먼저 칭찬하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면 말끝을 살짝 꼬집으며 본론을 말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 간호사들은 임상기술 면에서는 미국 간호사에게 뒤지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해 나가는 데에 부족한 점이 있다. 수련의가 없는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혼자 결정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다.



03 직종별 효과적인 취업방법

01. 경영사무 직종

경영사무 직종에 취업을 위해서는 관련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취업에 유리하다. 최근 월드잡 플러스의 미국 채용 공고를 보면 주요 직무 내용이 경영관리, 세일즈, 마케팅, 물류, 홍보, 무역 등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전공 수업을 수강한 기록은 도움이 된다. 만약, 비전공자이면서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싶은 사람이라면 K-Move 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미국 취업을 위한 경영비즈니스관리자 연수과정에서는 마케팅 이론과 실무, 생산운영관리 실무, 무역 및 수출입 관리, 경영인사관리와 같은 경영사무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취업에 필요한 영어회화, 영어인터뷰, 영문이력서 작성, 영작문 등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회계재무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력을 쌓고 싶은 사람은 미국공인회계사(AICPA) 시험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대적으로 한국공인회계사 시험보다 난이도는 낮고 합격률은 높은 편이다. 물론 회계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자격증이므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AICPA 시험은 어느 나라 출신이든 전공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4년제 대학졸업자라면 응시할 수 있다. 매출, 이익, 수익률과 같이 숫자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서 영어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에 좀 더 수월하다.

02. IT 직종

IT 직종 취업을 위해서는 관련 전공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취업에 유리하지만, 최근에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면접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론적 지식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채용공고를 보면 ‘Computer science or a related subject’으로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내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 전산(공학)과, 정보처리학과, 전자계산과, 산업공학과 등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소프



트웨어와 런된 학과들이 개설되고 있다.

또한,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IT 분야의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전공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정규 대학 학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다. 미국 취업을 위해서는 구글의 Career Certificates, 마이크로소프트의 Global Skills Initiatives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된다. 또한, 프로그래머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들도 있는데, ComTia의 IT 분야별 인증서(www.comptia.org)나 CLA의 프로그래밍 언어 인증(www.cppinstitute.org) 등이 있다. IT 분야는 다른 직종에 비해 채용시에 경력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미국 취업준비를 하면서 SI업체, SW개발업체, 전산실 등의 근무 경험이 있으면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

03. 패션디자인 직종

패션디자인 직종에 있어서 미국 취업은 우리나라와 달리 수습교육이 없이 바로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역량을 개발해 두어야 한다. 패션 디자인의 경우 패션 트렌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컬렉션의 주제를 결정하고, 디자인을 위한 CAD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시현하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취업이 되어서 바로 현장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디자인 계열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민간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에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04. 관광 직종

호텔서비스 분야는 지원 과정에서 관련 전공의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해당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위 과정은 아

니지만 민간 교육기관 등에서 호텔 실무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호텔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다.

미국 호텔은 수시채용의 방식으로 인력을 선발하며, 현장 경험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미국 취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호텔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호텔 인사담당자들은 호텔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턴을 거친 검증된 인력을 현장에 바로 투입하기를 희망한다. 특히, 경력이 없고 비전공자인 경우 호텔의 백 오피스 또는 프런트 오피스 직무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식음료 직무와 조리부를 중심으로 취업처를 알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음식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에 취업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장 조리경험 유무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조리학과를 졸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요리사로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드물다. 현장에서 조리 경험이 있으면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미국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동시에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반면에 영어에 대한 자신은 없지만 일정 수준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영어에 대해 자신도 없고 현장경험도 많지 않은 경우는 K-Move 센터에서 운영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에 현장 적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쌓는 것을 권한다. K-Move 센터를 통한 프로그램은 조리사 또는 제과제빵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하고 영어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 단기간에 영어 학습과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동시에 취업처를 알선해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05.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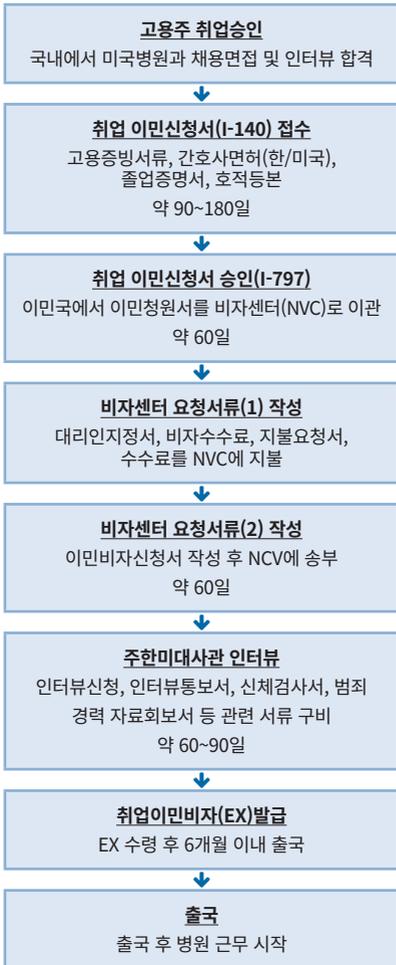
❶ 미국 간호사 취업 절차

미국 간호사 취업은 영주권(Green card)을 받고, 취업이민으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H-1B(취업비자)를 통해 미국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H-1B에서 취급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간호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H-1B 비자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간호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고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간호사는 간호학

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 국가고시(NCLEX)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취업의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후 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소송을 하는 방법과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소요시간이 적게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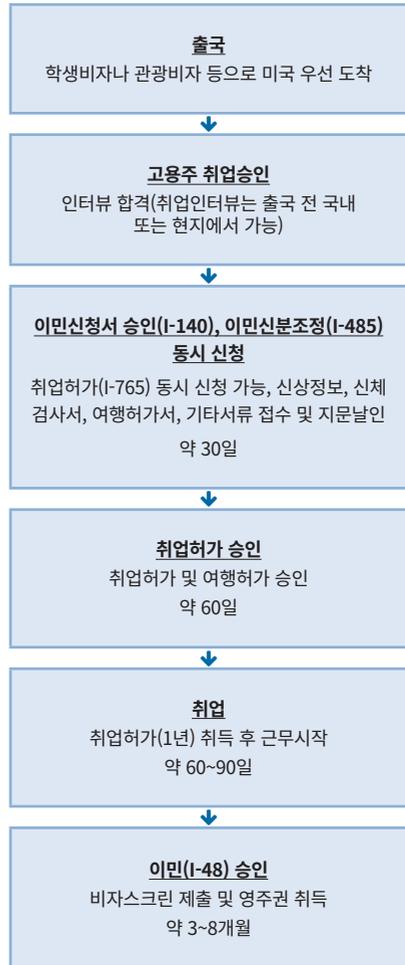
🏠 간호사 취업절차

간호사 취업절차 (국내에서 소송)



* 평균소요기간 : 1년 6개월

간호사 취업절차(미국에서 소송)



* 평균소요기간 : 1년



04 성공하는 취업 전략

▶ 비자를 먼저 생각하라.

미국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비자이다.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경우 취업비자(H-1B)를 직접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교환연수비자(J-1) 또는 학생비자(F-1)를 발급받아서 미국 현지에서 직무 관련 경험을 쌓은 후에 H-1B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학생비자(F-1)를 받고 학업을 마치는 경우, OPT를 발급받으면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OPT의 유효기간이 STEM 분야는 최대 36개월서 일반 전공 졸업생은 12개월 기간이 부여된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H-1B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H-1B 비자를 신청할 때는 회사(스폰서)가 비자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는 점을 확실히 부각시켜야 한다. 이때 H-1B 비자(연간 65,000개)는 1년에 한 번 신청하며, 현재는 추첨을 통해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비자 형태로 미국에 입국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만약 IT 직종 관련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경험이 있다면, 미국기업에 직접 지원서를 내서 H-1B 비자를 받는 것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에 현실적으로 관련 전공이 아니거나 경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교환연수비자(J-1)을 통해 단기간(12~18개월) 근무경력을 쌓는 것을 목표로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 한상기업 vs. 미국기업

미국에는 많은 한상기업들이 있으며, 다수의 취업자들이 한상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한상기업은 한국인이 대표이사인 경우로 한국적 기업문화에 대한 편안함과 영어 사용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한국적 기업문화가 미국 생활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영어 구사 능력의 향상이 늦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경력 목표를 고려해서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J-1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한상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상기업 입장에서 한국적 기업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직원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지급의 장점이 있다. 미국 기업의 경우, 취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하려면 영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미국의 어학연수 또는 미국 학교에서 학위를 받는 방법이 가능하나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경력개발을 위해 한상기업에 취업을 한 후, 업무 경력과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켜 미국 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한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영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Resume는 “Buzzword(끌리는 단어, 핵심단어)’중심으로 작성하라.

Buzzword는 “Buzzing word(윙윙거리는 소리)”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하고, 또는 “Buzz me(Call me)”와 같이 일상적인 의미가 들어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력서에서 의미하는 Buzzword는 “빠~”와 같이 인사담당자들이 이력서를 읽어 내려가다 멈출 수 있는 경고음이나 주의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이력서는 인사담당자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작성하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직장(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직무(하는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가 더 중요하다. 만약 한국에서 직장이나 인턴 경험이 있다면 어디에서 일했는 지를 설명하기 보다는 무슨 일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 지를 중심으로 기술해야 한다. 인사담당자들은 많은 이력서를 본다. 따라서 모든 이력서를 논문 읽듯이 자세하게 속독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가는 내용을 찾아 둘러보다가 주의를 끄는 대목에서 눈길이 멈추게 된다. 따라서 끌리는 단어 또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작성해야만 서류심사 이후의 면접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입사지원서(Resume)는 2장 이내에서 최근 5년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5년을 넘어서는 경력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1-2줄로 간단히 작성하면 된다.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의 수행했던 업무내용과 그 일을 통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또한 업무를 통해 본인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들의 경우 학교의 수업중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와 인턴 및 콘테스트 참여 등의 내용을 기술하면 된다. 입사지원서

와 함께 Cover letter를 작성할 때는 1페이지 이내에서 간단히 자신이 왜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지를 밝히면 된다.

▶ 참고인(Referral)을 활용하라.

미국 기업들은 공채시스템이 없이 수시채용을 한다. 대기업의 경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면 채용담당자가 필요할 때, 이력서를 검토할 수 있다. Google의 경우 매년 300,000 건의 이력서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채용담당자가 모든 이력서를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는 주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Job opening을 공고하고, linked-in에 공지하고, 헤드헌팅 회사를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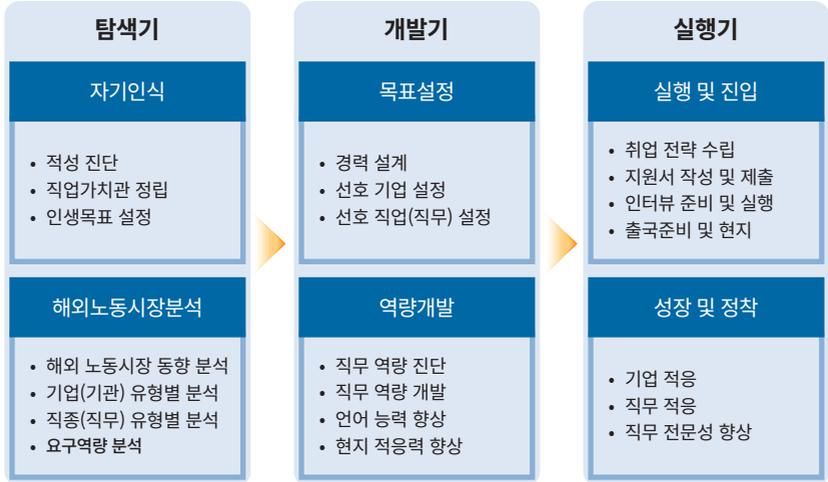
또한, Job opening 이 있을 때, 회사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적절한 사람이 있는 지를 물어보는 제도가 있다. 이때 직원들이 추천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채용이 되면, 직원에서 인센티브(예: \$1,000)가 제공된다. 따라서 직원들 역시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평소에 전문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지식과 기술, 경력을 쌓고 있는 지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장기계획을 수립하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취업은 국내 취업 실패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경우 국내 지원자들에게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경력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미국 취업에 대한 자신만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궁극적인 미국 취업의 성공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탐색기는 자기인식과 미국노동시장분석에서 출발한다. 두 번째 개발기는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시기이다. 간혹 3~4년간 미국 취업을 통해 많은 소득을 기반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대기업에 취업하겠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생활비와 세금 등으로 인해 한국과 비교해서 많은 소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실행기에는 미국 취업을 실행해서 성공하는 단계와 취업 이후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인생의 목표를 완성해 나가는 시기이다.

취업 성공 로드맵





05 미국 지역별 한국기업 진출 현황

미국에는 뉴욕, LA, 시카고, 디트로이트 등 지역에 한국의 해외지사, 생산법인, 판매법인, 서비스 법인 등이 진출해 있다. 미국 진출 한국기업들은 현지 미국인들을 고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본사와 미국 법인을 연결할 수 있는 한국인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업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아래의 진출 현황은 Kotra 진출기업정보에서 지역별로 발췌한 내용이다.

☰ 해외진출 기업

지역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진출형태	업종
뉴욕	(주)생명나무	LIFETREE BIOTECH USA INC.	해외지사	도소매업
뉴욕	EWP 리뉴어블	EWP RENEWABLE COR.	생산법인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뉴욕	그래핀 올	GRAPHENEALL LLC.	판매법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뉴욕	농심 아메리카	NONGSHIM AMERICA INC.	생산및 판매법인	식품제조업
뉴욕	누월드 코퍼레이션	NU-WORLD COR.	생산법인	제품제조업
뉴욕	대상 아메리카	DAESANG AMERICA INC.	해외지사	식품제조업
뉴욕	디케이 코스메틱	DK COSMETICS	판매법인	도소매업
뉴욕	레이언스	RAYENCE & MYVET INC.	판매법인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뉴욕	마이다소프트	MIDASOFT INC.	해외지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뉴욕	메디히어	MEDIHERE	서비스법인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뉴욕	비엔 유에스에이	BN USA INC.	판매법인	금속가공제조업
뉴욕	삼화유에스에이 아이 앤씨	SAMHWA USA INC.	판매법인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뉴욕	새한USA	SAEHAN USA	판매법인	도소매업
뉴욕	세스나그룹	CESNA GROUP	해외지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뉴욕	셰프원	CHEF ONE CORPORATION	생산법인	식품제조업
뉴욕	스타키스트	STARKIST CO.	판매법인	식품제조업
뉴욕	에이본	NEW AVON COMPANY	판매법인	도소매업
뉴욕	코롱 USA	KOLON USA INC.	판매법인	제조업
뉴욕	클레스트라 하우스저만	CLESTRA HAUSERMAN INC.	생산법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뉴욕	한국투자증권	KOREA INVESTMENT SECURITIES AMERICA	서비스법인	금융보험업
뉴욕	한화자산운용	HANWHA ASMANAGEMENT (USA) LTD.	서비스법인	금융보험업
LA	(주)마치인터내셔널	JOSEPHANDSTACEY INC.		의복,모피제조업
LA	(주)신세계 LA사무소	SHINSEGAE LA OFFICE	연락사무소	도소매업



지역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진출형태	업종
LA	(주)연일전자 미국지사	UNIL USA INC.	판매법인	기타 제품 제조업
LA	(주)이생	E-SAENG AMERICA INC.	판매법인	인쇄및기록매체 복제업
LA	(주)하이브시스템	HIVE SYSTEM USA	판매법인	전자부품, 영상, 음향 등 제조업
LA	CJ 아메리카	CJ AMERICA INC.		제조업
LA	CTR AMERICA	CTR AMERICA	생산, 판매 법인	제조업
LA	GS글로벌	GS GLOBAL USA INC.	판매법인	도소매업
LA	KGC 인삼공사 미국법인	KOREAN RED GINSENG CORP. INC.	판매법인	도소매업
LA	SBS 인터내셔널	SEOUL BROADCASTING SYSTEM INTERNATIONAL INC.	서비스법인	정보통신업
LA	세신아메리카	SAESHIN AMERICA INC.	판매법인	도소매업
LA	신한은행 아메리카	SHINHAN BANK AMERICA	서비스법인	금융보험업
LA	아쿠아즈 유에스에이	AQUAZ USA INC.	판매법인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LA	안다미로	ANDAMIRO USA CORP	판매법인	제조업
LA	에스디 생명공학	SD BIOTECHNOLOGIES (USA) INC.	서비스,판매 법인	도소매업
LA	에포카	WIN SOON INC.(EPOCA)	생산법인	식품제조업
LA	오투기 아메리카	OTTOGI AMERICA INC.	판매법인	도소매업
LA	이마트 아메리카	E-MART AMERICA INC.	판매법인, 해외지사	도소매업
LA	자생한방병원 미주분원	JASENG CENTER FOR INTEGRATIVE MEDICINE	서비스법인	보건업
LA	전라남도 LA사무소	JEOLLANAMDO LA OFFICE	연락사무소	농업,임업,어업
LA	쿠쿠홀딩스 미주법인	CUCKOO ELECTRONICS AMERICA INC.	판매법인, 해외지사	제조업
LA	한일디벨로프먼트	HANIL DEVELOPMENT INC.	서비스법인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LA	현대플랫폼	HYUNDAI PLATFORM CORPORATION	서비스법인	운수창고업
LA	홍진아메리카	HONG JIN CROWN AMERICA INC.	해외지사	도소매업
LA	(주)메이크샵앤컴퍼니	MAKESHOPNCOMPANY,INC	해외지사	정보통신업
시카고	(주)미국공앤박	KONG & PARK USA INC.	판매법인	도소매업
시카고	(주)석경에이티	SUKGYUNG AT INC.	해외지사	화학물질 등 제조업
시카고	(주)에코앤컴퍼니	ECHO&COMPANY CO., LTD.	서비스법인	정보통신업
시카고	(주)한진	HANJIN TRANSPORTATION	해외지사	운수창고업

지역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진출형태	업종
시카고	기민전자	KIMIN ELECTRONICS CO., LTD.	판매법인	기계장비제조업
시카고	디에스피	DSP USA INC.	판매법인	도소매업
시카고	삼송캐스터	TRIO-PINES USA INC.	판매법인	도소매업
시카고	수산중공업	SOOSAN USA INC.	판매법인	기계장비제조업
시카고	정우몰드 코퍼레이션	JUNGWOO MOLD CORPORATION	연락사무소	제조업
시카고	크린앤사이언스	CLEAN AND SCIENCE CO., LTD.	판매법인	제조업
시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미국법인 시카고 지점	POSCO INTERNATIONAL AMERICA CORP. CHICAGO BRANCH	해외지사	도소매업
시카고	한국타이어 테네시 공장	HANKOOK TIRE MANUFACTURING TENNESSEE, LP	생산법인	제조업
시카고	현대위아	HYUNDAI-WIA MACHINE AMERICA CORP.	판매법인	도소매업
달라스	노킬러스호성 아메리카	NAUTILUS HYOSUNG AMERICA	판매법인	정보통신업
달라스	오아씨 인터내셔널	OCI INTERNATIONAL	판매법인	도소매업
달라스	일진제강	ILJIN STEEL AMERICA	해외지사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워싱턴	엘앤제이바이오 유에스에이(주)	L&J BIO USA INC.	판매법인	제조업
워싱턴	탐여행사	TOP TRAVEL INC.	서비스법인	여가관련서비스업
워싱턴	한화(방산)	HANWHA CORP	서비스법인	제조업
실리콘밸리	(주)이오씨	EOC CO., LTD.	해외지사	제조업
실리콘밸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NAVER BUSINESS PLATFORM AMERICA INC.	해외지사	정보통신업
실리콘밸리	리우솔루션아메리카	LEEWO SOLUTION AMERICA CORP.	서비스법인	정보통신업
실리콘밸리	제이엘케이인스펙션	JLK INSPECTION US INC.	서비스법인	정보통신업
실리콘밸리	지에스디	GSD INC.	판매법인	정보통신업
디트로이트	디와이아메리카 주식회사	DY AMERICA INC.	판매법인	제조업
디트로이트	삼진아메리카(주)	SAMJIN AMERICA CORPORATION	판매법인	제조업

지역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진출형태	업종
디트로이트	천일엔지니어링(주)	CHUNIL ENGINEERING CO., LTD. USA	해외지사	제조업
디트로이트	화승알앤에이	HWASEUNG AUTOMOTIVE HOLDINGS INC.	생산법인, 해외지사	제조업





01. 영문 이력서

이력서는 인사담당자가 빠른 시간에 훑어보게 되는 서류이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학력(Education), 경험(experience), 기술(skills) 관련 항목으로 구성된다. Resume 작성 시에는 구인정보에서 제시된 Job Description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경험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문 이력서 Tip

- Buzzword(끌리는 단어, 핵심 단어) 중심으로 작성
- 무슨 일을 했는지 나열하기 보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직무기술과 성취 업적을 강조
- 이력서는 2페이지로 마무리할 것
- 통일된 글자 크기와 양식을 사용하고 질이 좋은 용지에 인쇄할 것
-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력서를 구성할 것
- 최근의 경험과 정보를 먼저 쓸 것

🔍 영문 이력서 구조

▶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 이메일 주소가 장난스럽지 않도록 유의한다(예 : dummykim@gmail.com).
-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한다.
- 우편번호를 포함한 정확한 주소 입력한다.

▶ 자원목적(Objective statement)

- 특별하게 원하는 구직분야나 직위, 조건들이 있다면 명확하게 기입한다.
[예 : Type and level of positions(internship or entry-level).]
학력(Educational background)
- 학위를 줄임말 없이 정확히 쓴다(예 : Bachelor of Science).
- 최근 취득 학위부터 상위에서 기입한다.



▶경험(Experience)

- 직업경험, 인턴경험, 리더십 경험 등을 기입한다.
- 모든 문장은 동사(Strong action verbs)를 통해 묘사한다(Action word 참고).
- 직업경험 기술시 숫자를 활용한다.
- 경험항목과 기술항목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직무 기술서를 숙지한다.

취업을 위한 성공적인 이력서 작성은 짧은 서류심사의 시간 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짜임새 있는 이력서(resumé) 작성에서 시작한다. 통용되는 양식 내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지원하는 직장의 업무에 적합하지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 기술. 특히, 단어선택 (Wording)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적절한 단어선택과 기술을 위해서 아래 Action Words 참고한다. 이력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성해 보도록 하자.

이력서 작성 체크리스트

- 2 페이지
- 지원하는 포지션에 맞도록 구성
- 읽기 쉽고 깔끔한 구성
- 통일된 양식, 폰트
- 정확한 문법과 적절한 단어 사용(하단 참고)
- 매력적인 디자인
- 질 좋은 흰색 혹은 아이보리 용지에 인쇄
- 적극성이 보이는 단어와 동사활용
- 오타 주의
- 항상 최근 항목이 먼저 오도록 구성
- 대학 1학년 이후로는 고교 정보는 생략
- 다음과 같은 표현 피하기(예 : “Duties included…” and “Responsible for…”)
- 적절한 숫자 활용
- 3명 이상의 전문가에게서 리뷰요청
- 인칭대명사 피하기 예, “I” or “my”



영문이력서에 필수적인 Action Verbs

LEADERSHIP

Achieved Guided
 Administered Handled
 Advised Hosted
 Allocated Improved
 Allowed Incorporated
 Appointed Increased
 Approved Initiated
 Assigned Influenced
 Attained Instructed
 Authorized Instituted
 Clarified Intervened
 Coached Judged
 Conducted Launched
 Converted Led
 Coordinated Managed
 Decided Mediated
 Delegated Moderated
 Designated Motivated
 Developed Organized
 Directed Oversaw
 Educated Presided
 Employed Prioritized
 Empowered Recommended
 Enabled Recruited
 Encouraged Sanctioned
 Endorsed Scheduled
 Enforced Streamlined
 Enhanced Strengthened
 Established Supervised
 Evaluated Trained
 Executed United
 Facilitated
 Fostered
 Generated

CREATIVITY

Acted Entertained
 Adapted Envisioned
 Applied Established
 Brainstormed Fashioned
 Combined Formulated
 Composed Founded
 Created Illustrated
 Customized Improvised
 Designed Modeled
 Developed Performed
 Directed Produced
 Displayed Shaped
 Engineered Visualized

RESEARCH

Analyzed Gathered
 Ascertained Identified
 Assessed Integrated
 Collected Invented
 Compared Investigated
 Computed Justified
 Conceptualized Located
 Concluded Measured
 Conducted Prescribed
 Confirmed Prioritized
 Critiqued Projected
 Deciphered Rated
 Deliberated Researched
 Detected Replicated
 Determined Reported
 Devised Reviewed
 Diagnosed Scrutinized
 Estimated Solved
 Evaluated Studied
 Examined Substantiated
 Experimented Summarized
 Extracted Surveyed
 Forecasted Systemized
 Formulated Tested

ACCOMPLISHMENTS

Accelerated Maximized
 Achieved Pioneered
 Boosted Restored
 Completed Spearheaded
 Enhanced Succeeded
 Expanded Surpassed
 Expedited Transformed
 Exceeded Upgraded
 Improved Won

TEAMWORK

Accommodated Improvised
 Adapted Instructed
 Adjusted Mediated
 Aided Motivated
 Altered Participated
 Amended Partnered
 Assisted Stimulated
 Collaborated Supported
 Contributed Tailored
 Cooperated Unified
 Fostered

COMMUNICATION

Addressed Lectured
 Advertised Listened
 Advocated Marketed
 Arbitrated Mediated
 Articulated Negotiated
 Attested Observed
 Authored Outlined
 Clarified Officiated
 Collaborated Participated
 Communicated Persuaded
 Composed Presented
 Consulted Promoted
 Contacted Proposed
 Convinced Publicized
 Counseled Recommended
 Debated Reconciled
 Defined Recorded
 Discussed Recruited
 Drafted Referred
 Edited Responded
 Expressed Reported
 Explained Responded
 Formulated Spoke
 Influenced Suggested
 Informed Summarized
 Interacted Translated
 Interpreted Wrote

TECHNICAL

Analyzed Installed
 Applied Operated
 Assembled Programmed
 Built Regulated
 Calculated Remodeled
 Computed Repaired
 Conducted Replaced
 Coded Restored
 Constructed Solved
 Developed Specialized
 Devised Standardized
 Engineered Transmitted
 Fortified Upgraded
 Utilized

PROBLEM SOLVING

Adapted
Advocated
Aided
Alleviated
Answered
Arranged
Assisted
Augmented
Clarified
Coached
Customized
Eased
Elevated
Ensured
Extended
Extracted
Finalized
Fulfilled
Generated
Implemented
Interceded
Intervened
Lightened
Polished

Procured
Rectified
Reduced
Refined
Reformed
Rehabilitated
Reinforced
Relieved
Remedied
Remodeled
Repaired
Restored
Retrieved
Revitalized
Revived
Resolved
Settled
Simplified
Solicited
Streamlined
Strengthened
Supplemented
Supported

ORGANIZATION

Approved
Arranged
Catalogued
Categorized
Charted
Classified
Collected
Compiled
Correlated
Distributed
Executed
Filed
Generated
Implemented
Inspected
Linked
Logged
Maintained
Monitored
Orchestrated
Organized
Oriented

Planned
Prepared
Prioritized
Processed
Provided
Recorded
Registered
Regulated
Reserved
Responded
Retrieved
Reviewed
Scheduled
Screened
Sorted
Submitted
Supplied
Standardized
Systematized
Updated
Validated
Verified

FINANCIAL

Administered
Adjusted
Allocated
Analyzed
Appraised
Assessed
Audited
Balanced
Budgeted
Calculated
Compared
Computed
Conserved
Corrected
Counted

Estimated
Forecasted
Inventoried
Invested
Managed
Marketed
Measured
Planned
Programmed
Projected
Purchased
Projected
Quantified
Reduced



☰ 각 전공별 핵심역량 요약

Mechanical Engineers should focus on :

- Computer and Applied Mathematics
- Breadth and emphasis on fundamentals
- Research Skills
- Analytical skills

Nuclear, Plasma, and Radiological

Engineering should focus on :

- Planning, designing, and developing nuclear equipment
- Communication skills
- Research skills
- Critical thinking
- Decision making skills
- Managerial skills
- Interest in environment
- Concern for health and safety of others

Agricultural Engineering focus on:

- Machine design and development
- Interest in biological sciences
- Communication skills
- Research skills
- Critical thinking
- Detail oriented

Chemical Engineering focus on:

- Management of operations and equipment maintenance
- Trouble-shoot operations
- Research and development
- Problem-solving ability
- Computer skills

Bioengineering focus on :

- Interdisciplinary background
- Research, design and fabricate instruments
- Ability to work in teams
- Analytical skills
- Problem-solving skills
- Communication skills

Aerospace Engineering focus on:

- Technical and computer expertise
- Written and oral communication skills
- Research skills
- Problem-solving skills

Material Science Engineering focus on:

- Physics and Chemistry
- Computer expertise
- Interdisciplinary background
- Research skills
- Problem-solving ability

Industrial Engineering focus on:

- Design, plan, and control production and service systems
-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 Technological background
- Interpersonal skills
- Research skills
- Problem-solving ability
- Computer skills

General Engineering focus on:

- Technical expertise
- Understanding of commercial feasibility
- Critical problem solving skills
- Strong communication skills
- Ability to work in teams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focus on:

- Desig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 Technical and computer expertise
- Problem-solving skills
- Written and oral communication skills
- Research skills

Civil Engineering focus on:

- Visualize, design, and plan projects
- Technical and computer expertise
- Communication skills
- Research skills
- Problem-solving ability
- Leadership and management of self and others

CHRIS B.

Campus: 205 E. Illinois St. Champaign, IL 61820 *

Permanent: 747 E. Superior Ave. Chicago, IL 60659

EDU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rbana-Champaign, IL
Bachelor of Science in Bioengineering May 2011 GPA: 3.30/4.00
Illinois Leadership Certificate Program

Related Coursework:

Power Circuits and Electromechanics	Biomedical Instrumentation	Solid State Electronics
Plasma and Fusion Science	Magnetic Resonance Imaging	Computational Neurobiology
Cellular Biomechanics	Bimolecular Engineering	Biomechanical Movement

RELATED EXPERIENCE

SIEMENS MEDICAL SOLUTIONS Hoffman Estates, IL
Molecular Imaging Division Engineering Intern Summer 2009

- Conducted performance tests on nearly 200 MRI machines
- Collaborated with three engineers to create an electronic component for SPECT system
- Tested new software on redesigned hardware when working with a software group
- Documented test results and presented analysis to Division's management team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IL
Cellular and Structural Biology Research Assistant Fall 2008

- Performed more than 150 nuclear extractions and spread preparations
- Fractionated nuclear proteins for Western Blot analysis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EMBS), UTUC Urbana, IL
Programming Director Fall 2007- Spring 2008

- Developed campus-wide awareness campaign to increase student interest in EMBS, increasing membership by over 37% from the previous year
- Created new Bioengineering Seminar Series and hosted alumni and recruiters from five leading medical device companies

ADDITIONAL EXPERIENCE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IL
Student T.A for Cellular Biomechanics January 2009- Present

- Grade homework assignments and provide feedback to over 50 students weekly
- Respond to students' questions during office hours
- Provide review sessions and enhance understanding of course material

UNIVERSITY OF ILLINOIS HOUSING Urbana, IL
Project Manager

- Oversee network for two University residence halls consisting of more than 1,200 residents
- Assist students with technical problems related to computing and connectivity

SKILLS

Computer: SQL, MATLAB, HTML, Visual Basic, JavaScript, ProENGINEER

Language: Fluent in Spanish, Intermediate French

02. Cover Letter 작성

인사 담당자들은 서류전형 스크린 단계에서 커버레터를 읽은 후 지원자의 이력서를 읽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커버레터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커버레터 작성 Tip]

(1) 커버레터는 특정인에게 보내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에는 수신인 란에 “해당 관계자에게(To who it may concern)”라고 쓰는 것이 통용되었는데, 커버레터에서 이를 쓰게 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결례로 간주된다. 커버레터의 수신인을 명확히 언급하고 가능하면 인사 담당자의 이름이나 인사 담당 부서(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또는 인사 담당자(Personnel Manager)로 명기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예	부적절한 예
Dear Human Resources Director: Dear Hiring Manager: Dear Selection Committee: Dear Search Committee:	Dear Sir: Dear Sir or Madam: Dear Sirs: To whom it may concern:

(2) 오타자 등 글실수 글몰!

아무리 잘 작성된 커버레터라 할지라도 인사 담당자의 이름을 오기(misspell)하거나, 잘못된 직함을 쓴다면 눈 밖에 날 수밖에 없다. 커버레터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3) 자신의 경력과 능력과 초점을 맞추라!

목표하고 있는 기업과 부서의 구성원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지원하는 기업에 알맞은, 또는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과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 커버레터의 구조

• Heading

- 상단에 자신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한다.

• First Paragraph

-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힌다.
- 수신인은 인사부(Human Resources)나 해당담당자(Personnel Manager)로 명기한다.
- 어떤 자리에 지원하는지, 왜 본인에게 인터뷰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를 설득한다.

• Second Paragraph

- 자격요건, 업무능력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설명한다.
- 보유 기술이나 경력이 현재 지원하는 업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히 서술한다.
- 뒷받침할 증명서류가 있으면 첨부해도 좋다.
- 가독성을 위해 한 문장 또는 한 단락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는다.

• Closing Paragraph

- 담당자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다.
- 신속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명시한다.
- 끝맺음은 프로페셔널하게 한다(예: Sincerely, Regards,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Sample Cover Letter for a Software Engineer

Christine Smith
VP Technical Services
XYZ Company
1224 Main St.
Anytown, PA 55555

Dear Ms. Smith:

Are you searching for a software engineer with a proven ability to develop high-performance applications and technical innovations? If so, please consider my enclosed resume.

Since 2002, I have served as a software engineer for Action Company, where I have been repeatedly recognized for developing innovative solutions for multimillion-dollar, globally deployed software and systems. I am responsible for full lifecycl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software, from initial requirement gathering to design, coding, testing, documentation and implementation. My technical expertise includes cross-platform proficiency (Windows, Unix, Linux and VxWorks); fluency in 13 scripting/programming languages (including C, C++, VB, Java, Perl and SQL); and advanced knowledge of developer applications, tools, methodologies and best practices (including OOD, client/server architecture and self-test automation).

My experience developing user-friendly solutions on time and on budget would enable me to step into a software engineering role at XYZ Company and hit the ground running. I will follow up with you next week, and you may reach me at (215) 555-5555. I look forward to speaking with you.

Sincerely,
Your Name

▶ 비즈니스 메일 작성법

업무관련 서신이나 비즈니스 이메일은 격식을 차리되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능동적인 문장을 사용하며, 보내기 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덧붙여 수신인의 직책을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예의이다.

≡ 직책/직위

회장	chairman	부장	General Manager
부회장	Vice chairman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사장	president	과장	Manager
부사장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대리	Assistant Manager
전무이사/전무	Senior Managing Director	수석연구원	Principal Research Engineer
상무이사/상무	Managing Director	책임연구원	Senior Research Engineer
이사/이사대우	Director	대표이사	President&CEO
감사	Auditor General	팀장	Office Manager
고문/자문	Advisor	영업부장	Sales Director

> 인사말(greeting)

-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To whom it concerns(관계 자에게) / Dear Sir(남자인 경우) / Dear Madam(여자인 경우)을 사용한다.

> 상대방에 대한 호의 표현(compliment)

- 자신이 원하는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좀 더 성숙하고 자연스러운 비즈니스 매너를 보여줄 기회가 된다.
- 예 : I enjoyed your presentation about [topic] on [date].

It was good to meet you at [event] on [date].

Thank you for contacting [company].

▶이메일 목적(reason for the email)

- 본론으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
- 분명한 소통을 위해 이메일의 용건을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적어주어야 한다.
- 예 : I am writing to inquire about ~
I am writing in reference to ~.
I am emailing to ask about ~.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용건(call to action)

-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답변사항을 작성한다.
- 설부른 판단이나 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체크 사항이 여러 가지인 경우는 서술형보다는 bullet point를 사용하여 목록을 정확히 적는 것이 좋다.
- 예 : Could you send me those files by Thursday?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send me a brochure.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끝맺음(closing)

- 상대방의 협조와 관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
- 공손한 태도로 다음 이메일 답변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 예 :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what you think.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첨부파일을 보내는 경우

Please see the statement attached.

Please see the attached file(s).

I am sending you the brochure as an attachment.

I am attaching my file for your consideration.

Sample Subject : Meeting about new Internet service provider

Subject: Meeting about new Internet service provider 1/8/2013

Mr. Jones,

I have been researching our choices for internet providers over the past week, and I wanted to update you on my progress. We have two options: TWS and Camcost. Both offer business plans, and I will go over the pricing of each plan at the meeting on Tuesday. Both of the options I listed speed and data usage offerings as well. I called your personal provider, Go Satellite, but they did not have any business offerings. They primarily do residential internet service.

I will talk with Joe in IT regarding these options and get their suggestions. I will also send out meeting requests to everyone, including Mr. Kim in operations. If you have any questions prior to the meeting, please let me know. Thank you.

Kind Regards,
David Kim
Administrative Assistant
Jones Office Solutions
(555) 555-5555

03. 면접 Tip

서류전형이 통과되었다면 취업의 가장 큰 관문 면접의 기회를 갖게 된다. 미국 기업의 인터뷰는 크게 전화 인터뷰와 방문 인터뷰로 나뉜다. 전화 인터뷰(phone interview)는 지원자가 job description/requirement에 부합되는 지 기본적인 내용을 유선 또는 화상을 통해 확인하고, 방문 인터뷰(onsite interview)는 회사마다 직무마다 차이가 있지만, 조직문화와 지원자와의 적합성 (Fit)을 보기위해 대략 1~3명의 인사담당 매니저 또는 실무 매니저들과 1:1 또는 3:1로 30분에서 60분가량 진행된다. 이때 교통비(항공료 포함) 및 숙박비는 대개 회사에서 지원한다.

여러 차례에 걸친 다양하고 심도있는 인터뷰가 진행되지만, 핵심적으로 지원자가 준비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지원이유와 직무적합성, 차별성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다음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인터뷰 질문 예이다.

☑ 인터뷰 질문 예시

About self:

- Tell me about yourself.
- Why are you interested in this position?
- What are your long and short term goals?
- What do you consider to be your greatest strengths and weaknesses?
- What qualifications do you have to be successful in this role?
- What do you know about our organization?
- What personal strategies do you use to deal with stressful work situations?
- How others see you:
- How do you think a professor or employment supervisor would describe you?
- Name three words that others use to describe you.

Communication skills:

- What do you do when you feel like someone is not listening to you?
- Give an example of a time that you communicated something negative to a superior.
- Describe a recent oral presentation that you made. What was the audience and how did you prepare?
- Leadership and management skills:
- Describe a volunteer, work, or school experience where you held a leadership position.
- What is the biggest project you ever had to plan? How did you organize it?
- Tell me about a major problem you encountered and how you dealt with it.
-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effectively influenced a person or group. Contrast with a time when you were not successful in using your influence.
-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backed down on an issue. Why?

Teamwork skills:

- Describe an incident that taught you a lot about building team spirit.
- Tell me about the most diverse team or group you were a part of. What were its strengths?
- Tell me about a time when a team member didn't come through on a promise. How did you approach the person and how was the problem solved?

Creativity and problem solving skills:

-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devised a creative solution that was “outside the box.”
- Give me an example of a time when you were able to take meaningful action in solving a practical problem.
- What is the most significant improvement you have ever made to a project?
-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thought and acted objectively in the course of reacting to an emotionally charged problem or situation.
- Tell me about a major change you attempted which a team or organization wasn't ready for. What did you do?

Conflict resolution skills:

- How do you handle negative feedback?
- Describe a time when you and a co-worker or teammate did not agree. How did you handle the situation? What was the outcome?
- Tell me about a situation in which you disagreed about the direction or idea that your boss suggested. How did you communicate your disagreement? What was the outcome?

인터뷰에서 당황하지 않고 좋은 답변을 하려면 실제 인터뷰 전 여러 번에 걸쳐 모의 인터뷰 (Mock interview)를 통해 연습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아래의 인터뷰 답변기술 방법을 숙지하여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한다.

미국에서는 현장 인터뷰를 마친 후, 감사 메일을 보내는 것은 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사메일의 내용은 인터뷰를 볼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인터뷰를 통해 해당 직무와 회사가 자신과 잘 맞는 것 같아서 꼭 일하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감사메일을 통해 혹시 인터뷰 동안 전달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강조할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간단히 전달할 수 있다. 현장 인터뷰 후 24시간 내에 감사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다. 감사메일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지원자가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터뷰의 절차는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실리콘 벨리의 IT 직종에 지원을 하는 경우는 다른 직종보다 좀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IT 기업의 인터뷰 절차

단계	주요 내용	기타사항
0단계: 인터뷰 요청	- 채용 담당자(recruiter)가 인터뷰 가 능여부를 확인함	-
1단계: Phone screening interview(30분)	- Resume 내용이 맞는지, 커뮤니케 이션은 가능한지, 원하는 position 에 맞는지를 확인	- 확인되면 HR 담당자(팀장)에 게 전달.
2단계: Phone technical interview (30~60분)	- HR 매니저 또는 팀원 - 기본기술능력, 인성, 문제해결능력 확인	- IT 기업의 경우, 알고리즘, 데 이터 스트럭처 등에 대해 질문, 실제 PC를 켜서 on-line 코딩 사이트 접속하는 경우도 있음.
3단계: On site interview (4~8시간)	- 팀장 및 동료, HR 매니저 등 4~6명 - 기본 직무에 대한 이해력, 전문지식 및 기술, 실무에서의 이슈 해결능력 등을 확인	- HR 매니저는 회사의 인사시스 템, 근무조건 설명하고 지원자 의 생각을 확인
4단계: Offer letter (인터뷰 후 2~3주)	- 고용계약에 서명할 것인지 확인	-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는 지 확인해야 함 - H-1B 발급은 회사에서 부담하 며 \$15,000 정도 소요됨

04. 고용계약 관련 유의사항

채용이 결정되면 ‘오퍼레터(Offer Letter)’를 보내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통 오퍼레터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연봉과 복지혜택 등의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니, 이를 수락한다면 서명을 해서 보내 달라. 이 레터는 일정기간 당신에게 직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계약서도 아니며 당신과 회사 간에는 임의 고용관계가 존재한다.”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용계약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④ 고용 기간(employment term)

많은 경우 고용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용인이 고용주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중요 업무를 담당해서 갑자기 사직을 할 경우 회사에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고용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7년 이상의 개인 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이행할 수 없다.

④ 업무 범위(scope of work/duties)

일반적으로 직무기술서에 상세하게 직무에 관한 설명이 있더라도 고용인의 업무 범위는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는 회사 상황에 따라 고용주의 필요가 달라질 경우, 고용인의 업무를 바꾸거나 다른 업무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지를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④ 보상(compensation)

미국은 다양한 보상 체계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월급 외에도, 보너스, 스탁옵션 등 어떤 종류의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할 것인지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성과급 보너스 보상의 경우, 성과를 기준으로 한 보너스의 산출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예를 들어, 세일즈 관련 직책인 경우 매출 기준인지, 순 이익 기준인지, 세금 후/전 계산을 하는 지)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④ 휴가(vacation)

유급 혹은 무급휴가, 혹은 병가를 언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휴가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휴가를 쓰는데 제한은 있는지 등을 정하는 것이다. 유급휴가의 경우,

몇몇 주의 노동법은 이를 일종의 보상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유급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고용주가 고용계약서에 유급 휴가를 주기로 정한 경우라면,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1년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가 쌓이게 되어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여야만 한다. 많은 회사들이 별도로 고용계약서에 유급휴가를 제시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유급휴가를 직원들이 쓰도록 장려한다.

📌 해임 혹은 해고(termination of employment)

미국내 모든 고용은 기본적으로 “employment at will”로 간주됩니다. 즉, 고용주나 고용인은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통보에 의해서 사직 혹은 해고해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Employment at Will에 대한 몇가지 예외상황이 있는데, 이를 정확히 해 이후 부당 해고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타

이외에 IT 회사나 컨설팅펌의 경우 계약서 내 ‘고용인이 개발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조항’과 ‘경쟁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고용계약서에는 해고 사유가 되는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만약 고용계약서가 존재 할 경우 고용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만 해고 할 수 있어 임의 고용관계에 따른 자유로운 해고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보통 계약서 대신 오퍼레터를 이용한다. 오퍼레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 표준 양식을 만들어 사용해야 하며 서명본은 종업원 인사파일에 넣어두어야 한다.

📄 Offer Letter 예시

Employment Offer Letter

by [Dissolution Legal Forms](#)

Banana Enterprises
11847 74th St.
New York, New York
38473

November 15, 2009

Robin McDonald
7394 Fleyburne Drive
New York, New York
27384

Dear Ms. McDonald,

I am pleased to advise you that I have chosen to extend an offer of employment to you for the position of Systems Analyst. This position commences as soon as possible and is a permanent full-time position. This position also includes overtime hours as required. The rate of pay for your position will be \$28.00 per hour. You will receive your payment weekly. Initially, you will be placed on probation for 3 months.

In addition to your salary, you will be provided with the following benefits/compensations:

1. A pension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Employer's standard pension.
2. Benefits provided according to the Employer's current benefit plan.

Copyright © 2009
Used under license by [Dissolution Legal Forms](#).

신규 직원이 맡을 업무와 관련해 회사 기밀 유지 서약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채용 시 받아두는 것이 좋다. 미국 이민법은 직원 채용 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고용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토대로 확인해 Immigration Form I-9을 작성해야 한다.

Immigration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Form I-9
 OMB No. 1615-0047
 Expires 08/31/2019

▶ START HERE: Read instructions carefully before completing this form. The instructions must be available, either in paper or electronically, during completion of this form. Employers are liable for errors in the completion of this form.

ANTI-DISCRIMINATION NOTICE: It is illegal to discriminate against work-authorized individuals. Employers **CANNOT** specify which document(s) an employee may present to establish employment authorization and identity. The refusal to hire or continue to employ an individual because the documentation presented has a future expiration date may also constitute illegal discrimination.

Section 1. Employee Information and Attestation *(Employees must complete and sign Section 1 of Form I-9 no later than the first day of employment, but not before accepting a job offer.)*

Last Name (Family Name)		First Name (Given Name)		Middle Initial	Other Last Names Used (If any)	
Address (Street Number and Name)			Apt. Number	City or Town		State ZIP Code
Date of Birth (mm/dd/yyyy)	U.S. Social Security Number		Employee's E-mail Address		Employee's Telephone Number	

I am aware that federal law provides for imprisonment and/or fines for false statements or use of false documents in connection with the completion of this form.

I attest,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I am (check one of the following boxes):

<input type="checkbox"/> 1.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input type="checkbox"/> 2. A noncitizen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See instructions)	
<input type="checkbox"/> 3. A lawful permanent resident (Alien Registration Number/USCIS Number): _____	
<input type="checkbox"/> 4. An alien authorized to work until (expiration date, if applicable, mm/dd/yyyy): _____ Some aliens may write "N/A" in the expiration date field. (See instructions)	
Aliens authorized to work must provide only one of the following document numbers to complete Form I-9: An Alien Registration Number/USCIS Number OR Form I-94 Admission Number OR Foreign Passport Number. 1. Alien Registration Number/USCIS Number: _____ OR 2. Form I-94 Admission Number: _____ OR 3. Foreign Passport Number: _____ Country of Issuance: _____	QR Code - Section 1 Do Not Write in This Space

Signature of Employee	Today's Date (mm/dd/yyyy)
-----------------------	---------------------------

Preparer and/or Translator Certification (check one):

<input type="checkbox"/> I did not use a preparer or translator.	<input type="checkbox"/> A preparer(s) and/or translator(s) assisted the employee in completing Section 1. <i>(Fields below must be completed and signed when preparers and/or translators assist an employee in completing Section 1.)</i>
--	--

I attest,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I have assisted in the completion of Section 1 of this form and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Signature of Preparer or Translator		Today's Date (mm/dd/yyyy)	
Last Name (Family Name)		First Name (Given Name)	
Address (Street Number and Name)		City or Town	State ZIP Code

STEP Employer Completes Next Page STEP

Immigration Form I-9

Section 2. Employer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Review and Verification

(Employers or their authorized representative must complete and sign Section 2 within 3 business days of the employee's first day of employment. You must physically examine one document from List A OR a combination of one document from List B and one document from List C as listed on the "Lists of Acceptable Documents.")

Employee Info from Section 1	Last Name (Family Name)	First Name (Given Name)	M.I.	Citizenship/Immigration Status
-------------------------------------	-------------------------	-------------------------	------	--------------------------------

List A	OR	List B	AND	List C
Identity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Identity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Title	Document Title	Document Title
Issuing Authority	Issuing Authority	Issuing Authority
Document Number	Document Number	Document Number
Expiration Date (if any)(mm/dd/yyyy)	Expiration Date (if any)(mm/dd/yyyy)	Expiration Date (if any)(mm/dd/yyyy)
Document Title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width: 80%;"> Additional Information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width: 15%; margin-left: 10px; font-size: 0.8em;"> GR Code - Sections 2 & 3 Do Not Write In This Space </div>	
Issuing Authority		
Document Number		
Expiration Date (if any)(mm/dd/yyyy)		
Document Title		
Issuing Authority		
Document Number		
Expiration Date (if any)(mm/dd/yyyy)		

Certification: I attest,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1) I have examined the document(s) presented by the above-named employee, (2) the above-listed document(s) appear to be genuine and to relate to the employee named, and (3)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 employee is authoriz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The employee's first day of employment (mm/dd/yyyy): _____ (See instructions for exemptions)

Signature of Employer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Today's Date (mm/dd/yyyy)	Title of Employer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Last Name of Employer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First Name of Employer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Employer's Business or Organization Name
Employer's Business or Organization Address (Street Number and Name)	City or Town	State ZIP Code

Section 3. Reverification and Rehires (To be completed and signed by employer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A. New Name (if applicable)			B. Date of Rehire (if applicable)	
Last Name (Family Name)	First Name (Given Name)	Middle Initial	Date (mm/dd/yyyy)	

C. If the employee's previous grant of employment authorization has expired, provide the information for the document or receipt that establishes continuing employment authorization in the space provided below.

Document Title	Document Number	Expiration Date (if any) (mm/dd/yyyy)
----------------	-----------------	---------------------------------------

I attest,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is employee is authoriz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and if the employee presented document(s), the document(s) I have examined appear to be genuine and to relate to the individual.

Signature of Employer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Today's Date (mm/dd/yyyy)	Name of Employer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	---------------------------	---



Immigration Form I-9

LISTS OF ACCEPTABLE DOCUMENTS All documents must be UNEXPIRED

Employees may present one selection from List A
or a combination of one selection from List B and one selection from List C.

LIST A Documents that Establish Both Identity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OR	LIST B Documents that Establish Identity	AND	LIST C Documents that Establish Employment Authoriza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S. Passport or U.S. Passport Card 2. Permanent Resident Card or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Form I-551) 3. Foreign passport that contains a temporary I-551 stamp or temporary I-551 printed notation on a machine-readable immigrant visa 4.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that contains a photograph (Form I-766) 5. For a nonimmigrant alien authorized to work for a specific employer because of his or her status: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Foreign passport; and b. Form I-94 or Form I-94A that has the following: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he same name as the passport; and (2) An endorsement of the alien's nonimmigrant status as long as that period of endorsement has not yet expired and the proposed employment is not in conflict with any restrictions or limitations identified on the form. 6. Passport from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SM) or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RMI) with Form I-94 or Form I-94A indicating nonimmigrant admission under the Compact of Free Associ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FSM or RMI 	OR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river's license or ID card issued by a State or outlying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provided it contains a photograph or information such as name, date of birth, gender, height, eye color, and address 2. ID card issued by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agencies or entities, provided it contains a photograph or information such as name, date of birth, gender, height, eye color, and address 3. School ID card with a photograph 4. Voter's registration card 5. U.S. Military card or draft record 6. Military dependent's ID card 7. U.S. Coast Guard Merchant Mariner Card 8. Native American tribal document 9. Driver's license issued by a Canadian government authority <p style="text-align: center;">For persons under age 18 who are unable to present a document listed abov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School record or report card 11. Clinic, doctor, or hospital record 12. Day-care or nursery school record 	AN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 Social Security Account Number card, unless the card includes one of the following restriction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OT VALID FOR EMPLOYMENT (2)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3)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2. Certification of report of birth issu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Forms DS-1350, FS-545, FS-240) 3. Original or certified copy of birth certificate issued by a State, county, municipal authority, or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bearing an official seal 4. Native American tribal document 5. U.S. Citizen ID Card (Form I-197) 6. Identification Card for Use of Resident Citizen in the United States (Form I-179) 7.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issued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xamples of many of these documents appear in Part 13 of the Handbook for Employers (M-274).

Refer to the instructions for more information about acceptable receipts.



PART
03

해외취업 성공 포인트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

02

정부의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

0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04

스스로취업하기

-

05

해외취업 업무지원 기관 현황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 공공기관, 해외취업 박람회(설명회), 기타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1. 월드잡플러스(웹/앱)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는 청년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관 별로 분산된 해외진출정보(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등)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 기본정보 및 취업전략, 일자리(구인/구직)정보, 해외취업 후 경력관리, 국내 복귀 후 재취업 등 해외진출 전(全) 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 진로적성 진단과 연계한 커리어플래너 제공
- ✓ 주요 국가별 기본 정보 및 유망 직종 취업전략 제공
- ✓ 외국어, 직무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 ✓ 실시간 채팅 기능을 활용한 해외취업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 영문/일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무료 첨삭 서비스 제공
- ✓ 해외취업, 해외연수(K-Move스쿨),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모집 공고 제공
- ✓ 청년해외진출 멘토링, 해외취업설명회(박람회)참여, 해외취업 아카데미 신청 정보
- ✓ 취업사실 확인 및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지원
- ✓ 해외진출 경력관리시스템 운영 및 국내 재취업 정보 제공
- ✓ 부당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



▶ 일자리 검색하기

월드잡플러스



WORLDJOB+
International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소개
 일자리찾기
 해외취업가이드
 해외취업상담
 공지&뉴스
 마이페이지
 경력관리

▶ 해외취업

지역 선택	직종 선택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상세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상세조건"/>

체크포인트

- (1) 앱스토어에서 월드잡플러스 앱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친구추가(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 링크드인(Linkedin)에서 worldjob plus를 검색하는 경우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2)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또는 이력서 작성 시 희망 국가와 직종을 체크해두면 나에게 맞는 해외취업 정보를 [마이페이지] > [빅데이터 기반 추천정보]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력서를 미리 등록해두면 구인공고가 올라왔을 때 바로 지원도 가능하다.
- (3) 해외일자리 BEST 20은 평균연봉 2,400만 원 이상, 주거지원 등 근무 조건이 양호한 일자리를 골라 월 2회 선정하고 있으니, 일자리 검색 시 BEST20 스티커를 확인하자!

🔍 해외진출 정보 찾기

국가별 기본정보 및 취업전략, 비자정보, 진출현황, 취업 성공수기 등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가이드 화면

WORLDJOB+ International Jobs and Information Network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조건보기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소개	일자리찾기	해외취업가이드	해외취업상담	공지&뉴스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해외취업준비 해외진출의 모든것 주요국가취업정보 출입국절차	영·일문 이력서가이드 영·일문 이력서 작성법 & 영어인터뷰 대비 영문이력서 작성신청 일문이력서 작성신청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지역별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국가별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온라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청년해외진출 K-MOVE 멘토링 사업소개 멘토찾기 멘토링 콘텐츠 나의 멘토링				
해외취업 가이드북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K-Learning 해외취업 K-Class	해외진출 성공수기 해외진출사건테스트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 체크포인트

- (1) 국가별 해외취업 가이드북, 해외진출 성공수기 등 알짜정보가 곳곳에 있으니 찾아서 이용하자!
- (2) 영문/일문 이력서 첨삭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이니 구인공고에 지원하기 전에 미리 이용하자!

월드잡플러스 영문 이력서 첨삭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요청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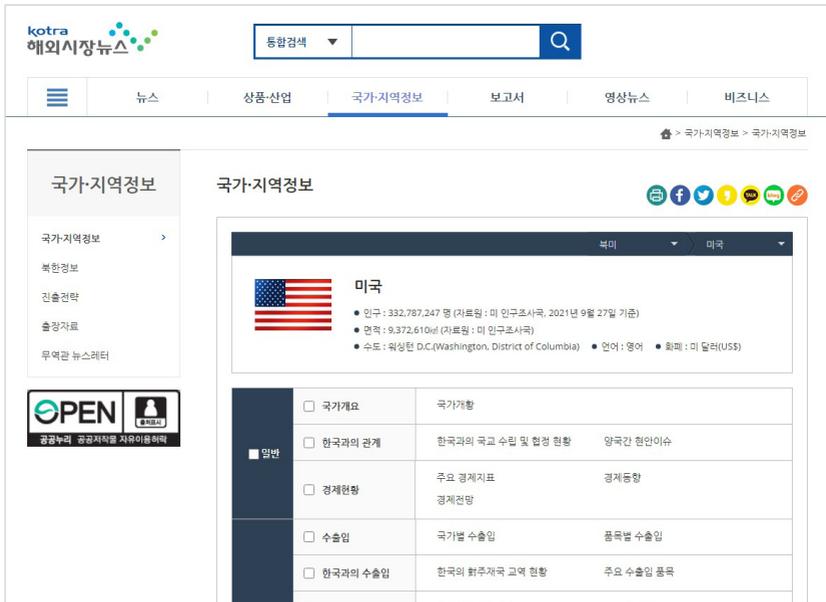
영문 이력서 컨설팅 신청

신청현황	리뷰
<p style="font-size: small; color: #0070C0;">Request for resume correction</p> <p style="font-size: x-small; text-align: right;">신청자 : 권O민 만족도작성일 : 2021-03-28 23:37:52</p> <p>만족도 점수 ★★★★★</p> <p style="font-size: x-small;">원래의 형식으로 이력서에 자신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표현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p style="font-size: small; color: #0070C0;">Request for Resume Correction</p> <p style="font-size: x-small; text-align: right;">신청자 : 임O원 만족도작성일 : 2021-03-27 00:36:48</p> <p>만족도 점수 ★★★★★</p> <p style="font-size: x-small;">Thank you so much !!!</p>

02. KOTRA

Kotra는 해외시장 뉴스(www.news.kotra.or.kr)를 통해 뉴질랜드 등 94개국에 대한 국가정보, 무역·투자진출 현황, 취업유망분야 등의 자료와 해취투게더 카페(cafe.naver.com/kotrajobinfo)를 통해 비자정보, 정착생활 후기 등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제공하는 국가정보



스크린샷은 Kotra 해외시장뉴스 웹사이트의 '국가·지역정보' 섹션을 보여줍니다. 상단에는 검색창과 메뉴가 있으며, '국가·지역정보' 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국가·지역정보' 하위 메뉴가 나열되어 있고, '미국'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메인 콘텐츠에는 미국의 국기, 인구(332,787,247명), 면적(9,372,610제곱킬로미터), 수도(워싱턴 D.C.)와 언어(영어), 통화(미국 달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일반' 탭이 선택된 상태에서 '국가개요', '한국과의 관계', '경제현황', '수출입' 등의 항목이 표시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과 관련 링크가 제공됩니다.

03.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는 글로벌시장 리포트를 통해 주요 국가의 해외시장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잡투게더(www.jobtogether.net)를 통해 해외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02 정부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취업 단계별로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지원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지원절차 등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취업준비단계별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 현황

구분	추천 프로그램	비고
관심	해외취업센터 상담	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센터 (카카오톡 실시간 채팅상담 / 전화, 이메일, 방문상담, 온라인 화상상담 등)
	· 해외취업 설명회 · 대학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참여방법, 채용정보, 비자정보, 고용동향 등 제공(월드잡플러스 공지사항 참조)
	청년해외진출 K-Move 멘토링	국가·직종별 멘토가 해외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온라인 콘텐츠 형식으로 전달
준비	해외취업 아카데미 (K-Learning, K-Class)(서울/부산/군산/통영 해외취업센터)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법, 글로벌 네트워킹 스킬 등 교육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신청)
	역량 강화 온라인강의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외국어, 직무 등 글로벌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제공
	청해진 대학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자 과정과 K-Move스쿨, 중장기 통합지원 프로그램
	K-Move스쿨	직무·어학교육 맞춤형 교육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
도전	공공알선(해외취업센터) 상담	실시간 채팅상담, 전화, 방문상담을 통한 상세상담
	월드잡플러스 구인공고 지원	국내외 K-Move센터를 통해 발굴·모집된 해외구인기업과 구직자 매칭
	해외취업박람회	(공단, KOTRA, 한국무역협회 등)기업과 구직자의 온·오프라인 채용 면접을 통해 해외취업 지원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국내외 민간알선 기관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매칭
성공	해외 K-Move센터 헬프데스크	해외 17개소(KOTRA,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취업자의 해외정착 지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취업자의 초기 정착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1, 2, 3차)
	해외진출 성공수기 공모전 지원	해외취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해외취업 정보와 노하우 제공
	취업자 경력관리 및 이(전)직 지원	월드잡플러스 경력관리시스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취업자의 현지정착 지원, 경력이동경로 파악, 이(전)직 지원 등



01. 해외취업센터

센터에서는 해외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 채용관 운영을 통해 면접을 지원하며, 해외취업 정보제공,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역량진단, 설명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 해외취업센터 현황

구분	내용
온라인 상담신청	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상담->방문상담예약
서울해외취업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02호(02.6964.7071~7077)
부산해외취업센터	부산 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르즈빌딩 610호(051.715.7017~7020)
군산청년 해외취업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 1길4, 상공회의소 4층(063.443.1558)
통영청년 해외취업센터	경남 통영시 충렬로 31, 통영청년센터 2층(055.648.6544, 055.649.6544)

☰ 해외취업센터 이용정보

구분	내용
해외취업상담	방문, 전화, 이메일, 온라인 화상상담(해외취업 알선 지원) 실시간 채팅 상담(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상담>실시간 채팅문의)
해외취업 아카데미 (무료)	해외취업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글로벌 인재의 조건, 영문/일문 이력서 작성법, 면접 요령 등 강의) 신청 : 매월 신청 진행, 기수당 정원 50명 내외로 선발
해외취업 알선	구인기업, 구직자 발굴 및 취업 알선
상시채용관	기업의 채용 설명회 및 (화상)면접 장소 제공 해외취업동아리 스터디 공간 제공

※ 아카데미 과정은 수요를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운영(IELTS 시험대비반, 독일 취업반 등)

02. 청해진 대학

청해진 대학은 해외 구인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과정을 장기적으로 대학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편성·운영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 청해진대학 사업 운영기관 현황(2021년 3월 기준)

기관명	국가	연수과정명	연수직종
대구보건대학교	일본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전문가 연수과정	의료
동명대학교	베트남	일본 IT (I-Construction) 콘텍트 전문가 양성과정(1기)	사무
동명대학교	멕시코	2021년 TU 글로벌 비즈니스 매니저 양성과정(2기)	사무
동의과학대학교	미국	2021년 일본취업 자동차 부품 및 기계설계 과정	기계/금속
동의과학대학교	일본	2021년 일본취업 자동차 와이어하네스 설계과정	기계/금속
백석대학교	일본	5차년도 청해진 대학 미국 특급호텔 경영관리자 육성과정	사무
부산외국어대학교	미국	[청해진_4차] 베트남 무역물류사무직 과정	사무
선문대학교	베트남	선문대학교 일본 IT 프로그래머 양성과정	IT
선문대학교	일본	K-서비스 전문인재 양성과정	서비스
영남이공대학교	일본	일본 취업비자 취득 IT & 자동차 취업 연수과정	IT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일본향 웹 모바일 프로그래머 전문가 양성과정	IT
한양여자대학교	일본	일본 스마트 IT 개발자 취업과정	IT

03. K-Move스쿨

K-Move스쿨은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외국어, 직무, 해외문화 및 직장예절 등 구인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K-Move스쿨 사업개요(2019. 11월 현재)

구분	내용
지원 대상	<p>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대한민국 국민 중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30%범위 내에서 연령초과자 선발가능)나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자 ▪ (대학)대한민국 국민 중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서 사업 참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 재학 중인자로 연수종료 후 해외취업이 가능한자 ※ 휴학생은 참여 불가 <p>지원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공단의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자 ▪ 연수종료 후 취업을 산정기간 내 졸업 및 해외취업이 불가능한 자 ▪ 연수 참여(예정)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중인 자 ▪ 연수개시일 1년 이내에 8개월 이상 연수 또는 취업 대상 국가에 해외체류 사실이 있는 자(교환학생 체류기간 등 예외 인정) <p>※단, ①해외 유학생 대상 모집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승인받은 과정 및 국내교육 구성이 연수과정의 50%이상인 과정은 참가가능, ②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예외 인정</p>
연수분야	IT, 경영사무, 외식조리, 무역물류 등 해외취업이 가능한 분야
연수국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중남미, 중동 등
연수 기간	<p>(단기) 200시간 이상(단, 8주 이상 구성) (장기) 600시간 이상 (트랙 II) 1,000시간 및 10개월 이상 ※ 트랙 II : 1일 8시간 이하/주말 수업 가능</p>
연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확보형 : 구인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과정 후 취업으로 연계 ▪ 자격취득 또는 훈련(교육)과정 이수형 : 해당국 부족직군, 기술·기능 및 전문 직종으로 자격취득 또는 해당국 지정 훈련과정 이수 후 취업과 연계 <p>* 호주 유아교육 과정, 필리핀 스킨스쿠버 강사 과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제제도 연계형 : 호주·캐나다·독일 등 도제훈련을 운영 중인 국가의 구인업체에서 도제식 훈련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과정 ▪ 특화모델 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신시장 개척 연계: 새로운 국가, 직종의 구인수요가 있을 시 연수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 과정 ② 과정평가형 자격 연계: 과정평가형 자격과 연계하여 연수과정 후 취업 연계 과정
지원 금액	<p>(단기) 1인당 최대 580만 원 (장기) 1인당 최대 800만 원 (트랙 II) 1인당 최대 1,350만 원</p> <p>- (민간) 개인부담금 : 정부지원금의 20% 이내(신흥시장 취업 과정의 경우 10%) (대학) 개인부담금 없음</p>
취업현황	2018년 기준 68.03% (3,560명 중 2,422명 취업)
신청방법	월드잡 플러스 검색 후 지원(일자리찾기-해외연수)

☞ K-Move스쿨 신청 및 취업절차

구분	내용
①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온라인 접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등록)
② 모집공고 지원	과정별 모집요강 확인 및 지원
③ 연수생 선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④ 연수 실시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실시
⑤ 취업 알선	해외기업 알선 및 면접(일반적으로 연수과정 80% 경과 후)
⑥ 사후 관리	연수 종료 후 1년까지

☞ K-Move스쿨 주요과정(2021년 3월 기준)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일본	장기	(사)국제경영원	일본 서비스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정(취업연계형)
2021	일본	장기	(사)국제직업능력개발 교류협회	일본 취업 웹/모바일 개발자 연수과정2기
2021	일본	트랙 II	(사)한국무역협회	일본 IT SMART Cloud IT마스터 Plus
2021	일본	장기	(사)한국무역협회	일본 IT 41기 SMART Cloud IT마스터 과정
2021	인도	장기	ICS GLOBAL	글로벌 INDIA 비즈니스 개발/운영 실무인력 양성과정 5기
2021	미국	장기	가톨릭관동대학교	6기 미국 해외취업 글로벌 물류유통관리자 연수과정
2021	미국	장기	가톨릭관동대학교	5기 미국 해외취업 국제 관광경영관리자 연수과정
2021	싱가포르	단기	가톨릭상지대학교	싱가포르 글로벌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강남대학교	일본IT취업 Java Enterprise Developer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일본 ICT 전문가 양성과정 2기
2021	베트남	장기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베트남 제조업 SCM 실무자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미국취업 경영정보시스템 활용 실무자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일본] JAVA/웹 프로그래밍 전문가 양성과정 2기
2021	캐나다	장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캐나다 유아교사 및 보조교사 전문가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경성대학교	경성대학교 [미국] Global 비즈니스 전문가 해외취업 연수과정(6기)
2021	미국	장기	경성대학교	[미국] Global Art Design 전문가 해외취업 연수과정(6기)
2021	일본	장기	경성대학교	[일본] Global IT 융합 전문가 해외취업 연수과정(3기)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말레이시아	장기	계명문화대학교	말레이시아 글로벌 기업체 인력양성 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국립안동대학교	2021년 베트남취업 품질/생산 중간관리자 2기 연수 과정
2021	베트남	단기	글로벌취업센터	베트남 생산관리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2기
2021	일본	장기	남서울대학교	일본취업 자바 웹 프로그램밍 전문가과정 5기
2021	멕시코	장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중남미관리직 취업연수과정(5기)
2021	일본	장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본 자동차설계 엔지니어(카티아) 취업연수과정(3기)
2021	미국	장기	대구보건대학교	미국 치과기공 전문가 연수과정
2021	미국	단기	대림대학교	미국 특급호텔 세프 양성과정
2021	미국	단기	대림대학교	미국 특급호텔 호텔리어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동명대학교	TU 미국 글로벌 기업 사무 실무자 연수 과정
2021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그래픽디자이너 양성과정(7기)
2021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패션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10기)
2021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IT엔지니어 양성과정(6기)
2021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무역물류프런티어 양성과정(8기)
2021	베트남	장기	동서대학교	베트남 경역지원 전문인력 양성과정(4기)
2021	일본	장기	동서대학교	일본 IT엔지니어 양성과정(5기)
2021	싱가포르	단기	동서대학교	싱가포르 식음료조리분야 정규취업 연수과정 6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테크니션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0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물류무역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0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비즈니스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0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디자인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0기)
2021	호주	장기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호주 호텔 조리 & Hospitality 자격증취득 및 취업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동의대학교	베트남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과정 2기
2021	미국	장기	동의대학교	미국 기계IT기술 전문가과정 7기
2021	미국	장기	동의대학교	미국 비즈니스 전문가과정 7기
2021	미국	장기	동의대학교	미국 아트디자인 전문가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주)디앤에스코리아	베트남취업 제조기업 관리자 연수과정(군산)
2021	일본	단기	(주)디앤에스코리아	일본취업 항공 여객운송 연수과정(4월5일)
2021	일본	장기	(주)디앤에스코리아	일본취업 IT엔지니어 전문인력 연수과정
2021	미국	단기	백석대학교	미국 호텔리어 전문인력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백석대학교	일본 IT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6기
2021	일본	장기	백석대학교	일본 IT보안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5기
2021	태국	단기	백석대학교	태국 Global Sport Protector 전문인력 양성과정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필리핀	단기	백석문화대	필리핀, 팔라우 스킨스쿠버다이빙 전문가 연수과정(10기)
2021	홍콩	장기	백석문화대	홍콩호텔관광서비스 해외취업과정(5기)
2021	캐나다	장기	부산가톨릭대학교	치과기공사해외취업연수과정
2021	미국	장기	부산외국어대학교	한미 통번역 비즈니스 실무자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 사무분야 전문가 양성과정
2021	인도네시아	장기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 언어우수자 집중취업 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사)대경위라벨인 재개발협회	베트남 청년 중간관리자 취업지원 연수과정
2021	멕시코	장기	(사)한중남미협회	멕시코 자동차와 전자업종 사무행정 및 생산관리직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삼육대학교	Global 디자인 전문가 연수과정
2021	미국	장기	삼육대학교	미국 Global e-Biz 전문가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미국 상경8기 물류 포워딩 유통 분야 취업과정
2021	미국	장기	선문대학교	미국 디지털 시각디자인 전문가 과정
2021	일본	트랙 II	소프트엔지니어 소사이어티	일본 IT개발 7기 SW DevOps 마스터 과정
2021	미국	장기	신라대학교	미국 글로벌 테크니컬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 7기
2021	미국	장기	신라대학교	미국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 5기
2021	일본	장기	신라대학교	일본 IT 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3기
2021	베트남	장기	아데코코리아	베트남 해외취업 글로벌 무역실무 전문가양성과정
2021	호주	장기	연성대학교	호주 조리 자격증 취득 및 취업과정
2021	호주	장기	영남이공대학교	호주 요리사 자격증취득 및 취업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영산대학교	베트남 비즈니스/무역/물류인력 양성과정(4기)
2021	미국	장기	영산대학교	미국 Hospitality 전문가 양성과정 (1기)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기계자동차설계 전문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자동차자동화 설비설계 전문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전기설비 전문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웹/모바일 엔지니어 전문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전자회로설계 전문가 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우송대학교	베트남 삼성협력기업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원광보건대학교	북미 디지털 심미모털사 양성과정
2021	호주	장기	원광보건대학교	호주 조리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연수과정(Certificate IV)
2021	독일	장기	원광보건대학교	독일 맞춤형 외식조리사 양성 및 취업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월드잡프렌즈	일본취업5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월드잡프렌즈	일본취업6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과정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미국	장기	인하대학교	[우수과정]미국 유통물류 경영지원 관리자 양성 과정
2021	베트남	단기	인하대학교	베트남 수출입 경영지원 관리자 양성과정
2021	일본	트랙 II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글로벌 ICT 전문가 양성과정 트랙 II 4기
2021	일본	트랙 II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글로벌 ICT 전문가 양성과정 트랙 II 5기
2021	일본	장기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우수과정]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49기
2021	일본	장기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우수과정]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50기
2021	일본	장기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우수과정]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51기
2021	베트남	장기	(주)제이엠피코리아	베트남 유통 및 무역 & 생산관리자 취업과정 3기
2021	미국	장기	조선대학교	미국취업 국제경영인 양성 및 경력개발과정 6기
2021	미국	장기	조선대학교	미국취업 국제 품질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1기
2021	대만	단기	(주)네모아이엔씨	대만 뷰티헤어 실무자
2021	대만	단기	(주)네모아이엔씨	대만 뷰티미용 실무자
2021	일본	단기	(주)더드림버스	일본 항공 여객 운송서비스직 취업과정 1기
2021	베트남	트랙 II	(주)드림힐	[트랙 II]베트남 제조기업(전자/자동차) 중간관리자 취업연수 4기
2021	중국	장기	(주)드림힐	중국진출 한국기업 사무관리직 11기
2021	멕시코	장기	(주)드림힐	중남미 중간관리자(자동차/전자)취업연수과정 3기
2021	미국	장기	(주)리얼스톤	미국 취업 e-Biz 실무자 양성과정 2기
2021	미국	단기	(주)사이다링크	2021년 해외취업 아마존 글로벌셀러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주)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1차 일본취업 호텔 및 리조트 매니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주)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1차 일본취업 Java 및 Big Data 개발자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주)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2차 일본취업 호텔 및 리조트 매니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주)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3차 일본취업 호텔 및 리조트 매니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주)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2차 일본취업 Java 및 Big Data 개발자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주)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3차 일본취업 Java 및 Big Data 개발자 연수과정
2021	사우디	장기	(주)코사솔루션	[우수과정]2021년 제14차 사우디 왕립병원 및 협력국립병원 간호사 취업 연수과정
2021	사우디	장기	(주)코사솔루션	[우수과정]2021년 제15차 사우디 왕립병원 및 협력국립병원 간호사 취업 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주)아르케	베트남 디지털경영관리자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주)아르케	일본 멀티미디어융합IT개발자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주)아이씨엔그룹	미국 경영정보전문가 양성과정 7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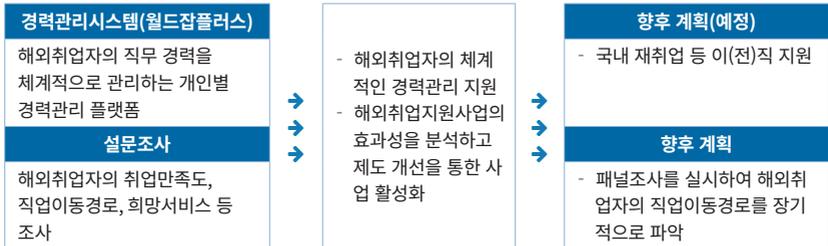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미국	장기	(주)아이씨엔그룹	미국 기업맞춤형 품질공정관리 엔지니어 양성과정 5기
2021	베트남	장기	(주)외대어학연구소	베트남 Global biz 전문가 양성 과정
2021	미국	단기	(주)위싱턴국제교류센터	제6차 글로벌 패션에디터 생산기획MD관리자 연수과정
2021	미국	단기	(주)위싱턴국제교류센터	7차 글로벌 패션에디터 생산기획MD관리자 연수과정
2021	미국	장기	(주)커리어	2021년 미국취업 Google 디지털 마케팅 실무자 운영과정 2기
2021	미국	장기	(주)커리어	2021년 미국취업 산업경영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2021	미국	단기	(주)피제이넥스	미국취업 국제무역물류전문가(CITLS)연수과정 2기
2021	일본	장기	(주)한국능력개발교육원	일본 JAVA 웹개발자 4기 연수과정
2021	중국	장기	(주)해성인재개발원	21 중국취업 중간관리자 연수과정 (제3기)
2021	일본	트랙 II	(주)현대CAD디자인직업전문학교	일본 글로벌자동차 3D설계엔지니어(트랙II 4기)
2021	일본	장기	(주)현대CAD디자인직업전문학교	일본 3D자동차부품기계설계 10기
2021	일본	장기	코세아인재개발원(주)	일본 웹프로그래밍개발전문가 연수과정 34기
2021	일본	장기	코세아인재개발원(주)	일본 웹프로그래밍개발전문가 연수과정 35기
2021	사우디	장기	팍시아 주식회사	2021년도 제3차 사우디 보사부 국립병원 및 협력병원 간호사 취업 연수
2021	미국	장기	한국교통대학교	미국 빅데이터 기반 경영시스템 실무자 양성과정
2021	베트남	트랙 II	한국능력개발직업전문학교	베트남 한국기업 생산성향상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2021	호주	장기	한국영상대학교	호주 호텔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2021	베트남	장기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	베트남 품질·환경·안전 중급관리자 과정
2021	미국	장기	한남대학교	미국 경영지원 실무행정인력 양성과정 7기
2021	미국	장기	한성대학교	미국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2021	싱가포르	단기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싱가포르 호텔실무자 취업연수과정 18기
2021	미국	단기	(주)해외인턴쉽교류센터	[미국] 글로벌 패션분야 전문가 24기 해외취업연수과정
2021	영국	단기	(주)해외인턴쉽교류센터	[영국]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과정 2기 해외취업 연수과정
2021	일본	트랙 II	(주)핵사곤지엠아이	2021년 일본취업 기계/자동차설계 엔지니어 전문가 연수과정 (5기)
2021	일본	단기	(주)핵사곤지엠아이	2021년 일본취업 공항지상직 연수과정(6기)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베트남	장기	(주)핵사곤지엠아이	2021년 베트남 국제무역 및 생산/품질 관리자 연수과정(2기)
2021	베트남	장기	(주)핵사곤지엠아이	2021년 베트남 국제무역 및 생산/품질 관리자 연수과정(3기)

04.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해외취업은 민간 해외취업알선 기관(리크루트사)을 통하여서도 가능하다.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기관 중에서 월드잡플러스를 통하여 해외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이 성사된 경우 구직자를 대신하여 공단에서 알선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05. 취업자 경력관리 및 이(전)직 지원



체크포인트

경력관리시스템은 역량개발 및 직무경험을 구직 단계부터 취업 후 국내 복귀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관리 플랫폼으로 해외취업 준비자, 취업자, 취업 후 국내복귀자 등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



03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한 사전 구직등록 이후 해외취업에성공한 청년들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공단에서 취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자격요건,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 사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지원방식
지원금 우대국가	6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3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200만원 지급
선진국 분류국가	4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100만원 지급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후 승인 순(선착순)으로 지원

※ 지원금우대국가: 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선진국 분류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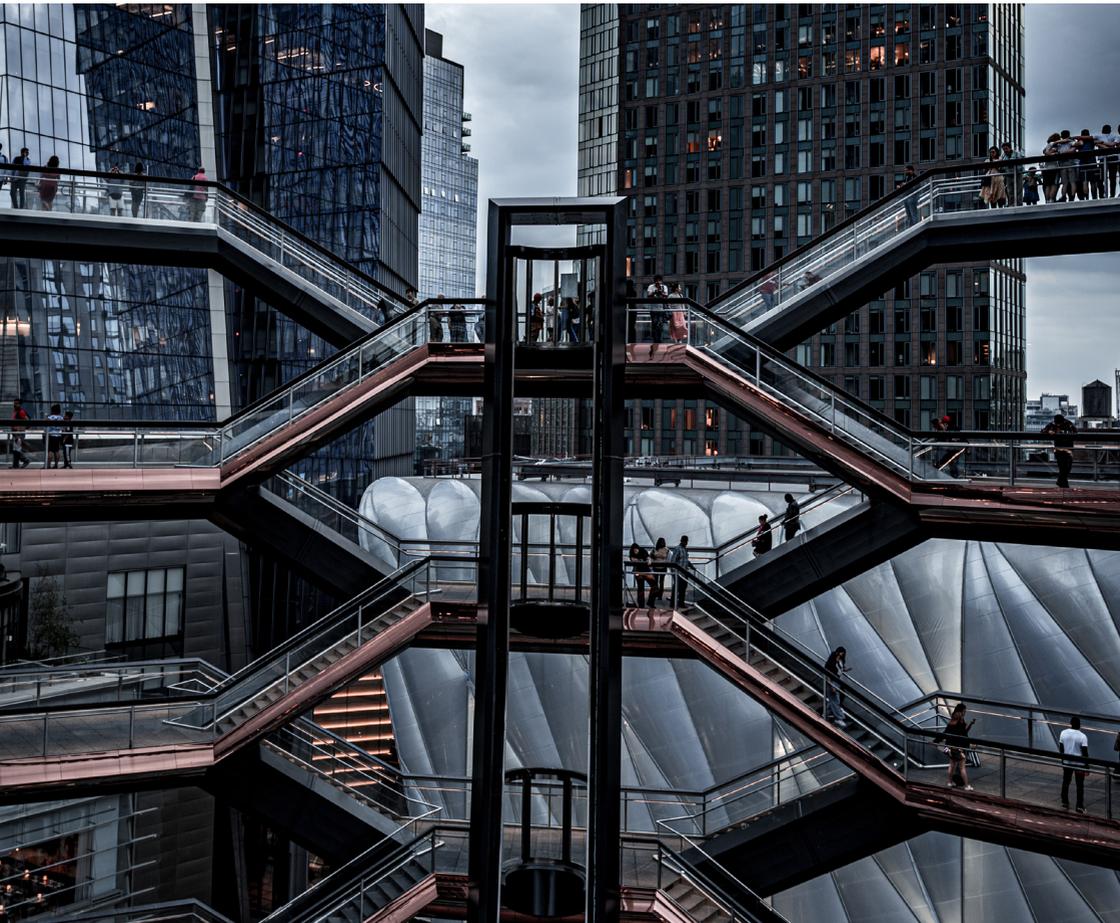
▶ 지원대상 및 취업 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① 만 34세 이하인 자 ②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근로계약서 작성)한 자
취업 인정기준	①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비자(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워킹홀리데이비자는 공단사업(취업알선, 연수사업)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 ②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 - 청소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등 ③ 임금수준 : 연봉 1,600만원 이상 ④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체크포인트

- (1) 취업 전에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만 해외취업 후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신청은 ‘월드잡플러스-마이페이지-정착지원금 신청하기’메뉴에서 하세요.
- (3) 신청 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취업사실확인(K-Move/EPS센터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을 받아야 하며 K-Move/EPS센터 확인은 월드잡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4) 1차 지원금은 근무 시작 1개월 이후부터 4개월까지, 2차 지원금은 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8개월까지, 3차 지원금은 근무시작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5) 정착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월드잡플러스 경력관리시스템에 본인의 취업경력(취업처, 재직기간 등)을 입력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04 스스로 취업하기

미국 취업 희망자가 현지의 일자리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유형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01. 주요 채용 사이트

☰ Job 포털사이트

사이트명	웹사이트 및 특징
<p><Monster></p> 	미국 최대의 글로벌 온라인 잡서치 업체이다. 구인구직부터 경력개발, 인재발굴 등의 종합 HR 컨설팅 서비스까지 겸하고 있다. (사이트 : http://monster.com/)
<p><Indeed></p> 	최근 많이 사용되는 파트타임부터 풀타임까지 각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이다. 에이전트없이 지역별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이트 : http://www.indeed.com/)
<p><CareerBuilder></p> 	경력개발 중심의 구인구직 사이트이다. 구인자와 구직자의 경력을 매치시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사이트 : http://www.careerbuilder.com/)
<p><Glassdoor></p> 	익명으로 회사 및 상사를 평가하는 웹사이트이다. 2008년 설립된 곳으로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회사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이트: http://www.glassdoor.com)





02. 링크드인 (www.linkedin.com)

LinkedIn은 '16년 2월 현재, 유효 가입자 수가 4억천명 수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Professional Social Network입니다. LinkedIn에서는 프로페셔널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경력, 관심 분야에 대해 어필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새로운 조직의 장이다.

☰ 링크드인 활용방법



회원가입

www.Linkedin.com 접속
> 성명, 이름, 이메일
등록 후 계정만들기



프로필 작성

프로필 : 학력, 경력 등 기재



채용공고 검색

채용 기업 검색 및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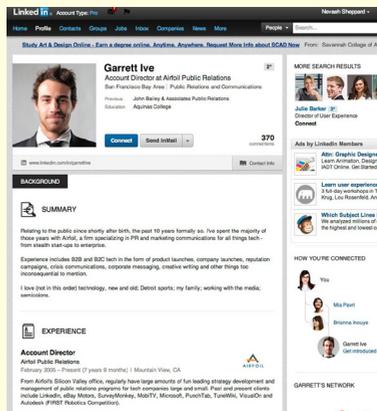


지원하기

기업 지원하기

☑ 체크포인트 - 소셜미디어 비즈니스 네트워크: 링크드인 (LinkedIn)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31조를 들여 인수한 링크드인은 전세계 약 4억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온라인 최대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업체이다. 특히 경력직과 전문직에 관련해서는 온라인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리셉션 장이다. 특히 온라인에 본인 소개와 함께 경력과 이력을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리퍼런스를 구성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경력직 채용의 반 이상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하는 점을 보아 앞으로 그 성장세와 활용도는 더 클 전망이다. 구직자에게 이 보다 더 좋은 개방형 플랫폼은 없다. 기존의 구직형태의 노동시장에서 구인형태의 검색을 통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 한인 채용 Job 포털사이트

사이트명	웹사이트 및 특징
<p><워킹유에스></p> 	<p>미국 전역에 걸쳐 한인기업 또는 미국기업의 채용정보를 포스팅하고 있다. 또한, 비자취득 방법 및 잡인터뷰 후기 등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사이트 : https://www.workingus.com/)</p>
<p><헤이코리안></p> 	<p>구인구직 뿐 아니라 부동산 등 미국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중고거래도 가능하다 (사이트: https://job.heykorean.com/web/us)</p>
<p><jobkoreausa.com></p> 	<p>미국 내 한국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구직자들에게 추천하는 한인 구인·구직 대표 웹사이트다. 한국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미국 지사, 미국 내 중소기업으로 CEO가 한인인 회사,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국 내 소규모의 개인사업, 미국인이 운영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소형규모의 개인사업체에서 주로 채용공고를 올린다.(사이트: http://jobkoreausa.com)</p>







01. 해외공관

☑ 주 미국 대한민국대사관

• 주 미국 대한민국대사관

- 주소 : 245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 232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영사과)
- 전화번호 : 202-939-5600 (대표) 9:00 am - 12:00 pm, 1:00 pm - 6:00 pm (월 - 금)
- 긴급연락처 : 202-939-5653
- 영사콜센터(24시간) : 822-3210-0404

• 워싱턴 문화원

- 주소 : 237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 전화번호 : 202-939-5688 (대표)
- Fax 번호 : 202-387-0413
- 업무시간 : 9:00 am - 12:00 pm, 1:00 pm - 6:00 pm (월-금)

• 영사과

- 주소 : 232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대사관과 별도건물이며(주차가능), 워싱턴 메트로 Dupont Circle역에서 하차하여 오시는 경우 대사관보다 가까운 거리에 소재)
- 전화번호 : 202-939-5653 (대표)
- Fax 번호 : 202-342-1597
- 업무시간 : 9:00 am - 6:00 pm (월-금)
- 총영사실 : 202-939-5657
- 동포단체업무: 202-939-6469
- 여권, 병역: 202-939-5662, 202-939-5656
- 가족관계등록/재외국민등록: 202-939-5654
- 비자(접수),국적(상실,이탈): 202-939-5663
- 비자(심사), 귀국의무면제: 202-939-5660
- 영사확인, 공증: 202-939-5661

☑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소: Korean Consulate General in Los Angeles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 전화번호: (대표전화) +1-213-385-9300, (긴급 사건사고, 24시간) +1-213-700-1147 (대표메일) : consul-la@mofa.go.kr
- 업무시간(월~금): 오전 9:00~오후 5:00(민원업무: 오전 9:00-오후4:00)



☑ 주 뉴욕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 뉴욕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소 : 460 Park Ave.(bet.57th & 58th St.) New York, NY 10022
- 전화번호 : (대표전화) +1-646-674-6000,
-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646-965-3639
- 공관 업무시간 : 월~금 오전 9:00~12:00, 오후 1:00~5:00
- 민원 업무시간 : 월~금 오전 9:00~12:00, 오후 1:00~4:30(민원업무는 사전 온라인 예약 후, 예약된 시간에 민원실 방문 가능)

• 민원업무 대표 연락처

- 자가격리관련(newyork) : newyork@mofa.go.kr
- 여권(passport_ny) : passport_ny@mofa.go.kr
- 위임장 및 재외국민등록(confirm_ny) : confirm_ny@mofa.go.kr
- 병역(mil_ny) : mil_ny@mofa.go.kr
- 가족관계(출생,혼인,사망) 등록 및 발급(register_ny) : register_ny@mofa.go.kr
- 비자(대한민국 입국사증) 및 국적(visa_ny) : visa_ny@mofa.go.kr
- 대표메일(kcg_ny) : kcg_ny@mofa.go.kr

☑ 주 애틀란타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 애틀란타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소 : 229 PEACHTREE STREE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 전화번호 : 404-522-1611~3 | 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404-295-2807
- 기업지원담당관 : 404-522-1611

☑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소 :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 전화번호 : 415-921-2251, 업무시간 외 긴급연락처 : 415-265-4859, 415-265-4746, FAX : 415-921-5946
- 업무시간 : 9:00~17:00 (월-금)

☑ 주 시카고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 시카고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소 : Korean Consulate General NBC Tower 2700,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 전화번호 : 312-822-9485(대표), FAX: 312-822-9849
- 업무시간(월-금): 9:00am-5:00pm, (민원업무: 9:30am-4:30pm)
- 업무시간 외 긴급연락처: 312-405-4425

☑ 주 휴스턴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 휴스턴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소 :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
- 업무시간: 월-금: 09:00-17:00 (민원실 운영시간: 09:00-12:00, 13:00-16:30)
- 전화번호: (대표) +1-713-961-0186 | (업무시간 외) +1-281-785-4231 | (사건사고) +1-713-598-3677

☑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소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115 W Mercer St. Seattle, WA 98119
- 대표번호: +1-206-441-1011~4 Fax : +1-206-441-7912/ 긴급전화(긴급상황발생시): +1-206-947-8293

☑ 주 보스턴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 보스턴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소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Boston). 300 Washington Street (One Gateway Center), Suite 251. Newton, MA 02458
- 전화번호 : 617-641-2830 | 비상연락처 : 617-264-0404

☑ 주 호놀룰루 대한민국총영사관

• 주소 : 2756 Pali Highway, Honolulu, Hawaii 96817

- 전화 번호 : + 1-808-595-6109 | 긴급 사건사고 발생 시(24시간) : + 1-808-265-9349
- 민원실 운영 시간 : 08:30 - 16:00 (월요일~금요일)

02. KOTRA 무역관

☑ KOTRA 뉴욕 무역관

• 주소 : 460 Park Ave. 14th Floor, New York, NY 10022, U.S.A

- TEL : +1-212-826-0900 FAX : +1-212-888-4930 EMAIL : kkotransy@gmail.com (문의하기)
- K-Move 센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 주소 : 44801 Wilshire Blvd., suite.104, Los Angeles, CA 90010, U.S.A
- TEL : (1-323)954-9500 FAX : (1-323)954-1707 EMAIL : info.kotralla@gmail.com (문의하기)
- K-Move 센터

03. 한인회

LA 한인회

- <http://koreanfed.nammoonkey.com/>
- 주소 :981 South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 TEL : (323) 732-0192, FAX : (323) 732-7009 E-Mail : Info@koreanfed.org

뉴욕 한인회

- <http://kaagny.org>
- 주소 :149 West 24th Street, 6th Floor New York, NY 10011
- TEL : (212) 255-6969 Email: office@nykorean.org

애틀란타 한인회

- <http://atlaka.org>
- 주소 :5900 Brook Hollow Pkwy Norcross, GA 30071
- TEL: 770-813-8988 FAX: 770-814-8779

PART

04

해외취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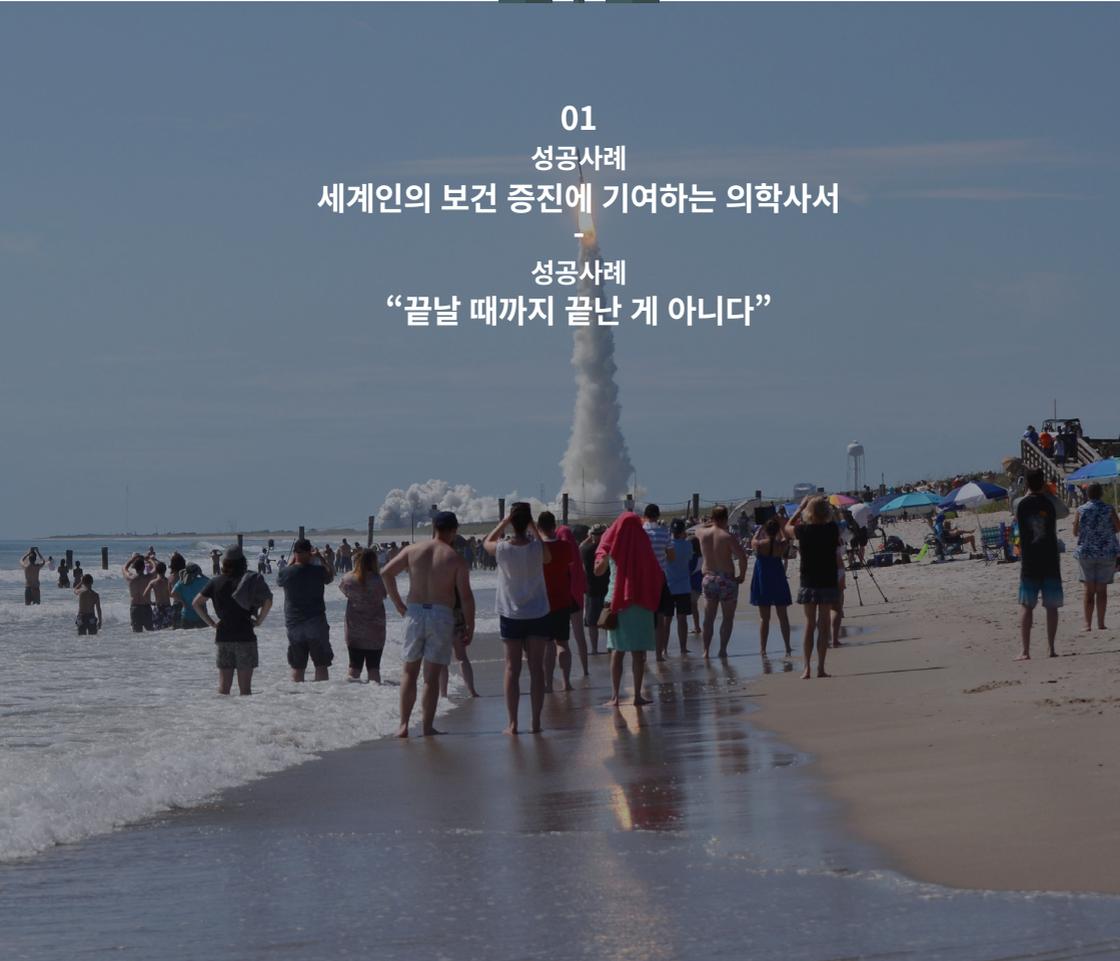
01

성공사례

세계인의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의학사서

성공사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성공사례 이

세계인의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의학사서 [미국: 김채연]

출처: 2020 해외취업 성장스토리 공모전

세계를 돌아다닌 대학생 시절

2013년 7월, 대학교 해외봉사단 일원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학생들과 스웨덴 그룹 아바(Abba)의 <Sunny>를 따라 부르며 춤을 배우는 수업을 기획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학생들이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공감을 이끌어내며 문화 교류의 가치를 배운 시간이었다. 같은 해 8월, 유엔스포츠허브개발평화사무국(UNOSDP)이 주최한 Youth Leadership Program 7기에 한국 참가자로 선발되어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33개국에서 온 30여명의 참가자들과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했고, 장애 아동을 위한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 해 여름은 처음으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교류했고 앞으로도 해외 교류의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겠다는 목표로 국제개발협력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고, 공적개발 원조와 교육, 문화 분야의 개발협력 사례에 대해 공부했다. 2014년 독일에서 6개월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했고, 2015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NEXT 재외 한국문화원 인턴십을 통해 주필리핀한국문화원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며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업무를 배울 수 있었다. 대학 진학 전까지는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없었지만 대학 재학 시절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과 필리핀에서 생활하며 국제기구에 취업이라는 목표가 견고해졌지만, 2016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잠시 한국에서 취업활동에 매진했다.

국제기구 사서를 목표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다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 중 적성에 대해 고민하고 여러 직업을 조사하던 중 사서에 대해 알게 되었다.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사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도서관 자료와 행사를 홍보하는 사서, 도서관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평가하고 수집하는 사서 등 사서라는 직업을 정보 전문가의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국제기구에서 기록 관리와 메타데이터 사서를 채용하는 공고를 보면서 사서로서 국제기구에 취업하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2017년 한국에서 사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했고,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미국 복수학위제를 통해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 미국의 도서관 시스템에서 배울 점이 많으리라 기대했고, 기록관리학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유학생 최초의 기숙사 조교

미국 보스턴을 선택한 이유는, 역사가 깊은 대학도시인 만큼 인근 대학 도서관에서 인턴십 기회를 얻고 도시의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2018년 가을학기 입학의 목표로 그 해 1월 입학원서를 제출했고 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미국 학생비자 발급을 준비했다. 대학원의 국제교류팀에서 보낸 안내 메일과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 안내문을 바탕으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했고 대사관의 비자 인터뷰를 거쳐 7월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았다.

보스턴의 비싼 생활비는 유학을 결심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지만, 운 좋게 비자를 준비하던 중 미국 대학 기숙사에서 조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매주 당직과 행정업무를 하면 기숙사 제공과 더불어 급여를 받을 수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여러 전형을 거쳐 조교로 선발되었다. 덕분에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생활비를 아껴 학업과 구직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 개교 이래 최초의 유학생 기숙사 조교였다. 능력이 있다면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며 나를 믿고 채용한 슈퍼바이저는 내 유학생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준 은인이다.

대학 도서관 인턴십을 통해 알게 된 의학사서의 길

2018년 9월부터 1년간 대학원에서 30학점을 수료하며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문헌정보학 중에서도 기록관리학을 전문으로 공부했고, 정부출연 연구소의 기록보존소에서 인턴십을 통해 기록물 수집과 보존 절차에 대해 배웠다. 미국인 동기들과 취업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CPT)을 활용해 매 학기 인턴십에 지원했다. 2019년 봄 학기에는 하버드 경영대학 도서관에서 연구데이터 사서 선생님과 디지털 연구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같은 해 여름, 하버드 의과대학 도서관의 연구 인턴십에 지원해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 기능을 개선하는 이용자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의학사서는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진로였지만 의학도서관 인턴십을 통해 치료와 의학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과 전문성을 배우며 의학사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하버드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던 중 미국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 도서관의 채용공고를 확인했고 운 좋게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의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다. 졸업을 앞둔 시점, 사서로서 풀타임으로 일한 경력도, 생명과학과 의학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지만, 대학원 시절 인턴십과 학부시절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작성했다.

비행기를 타고 면접을 보러 가다

자신만만했던 마음가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목표로 향하는 과정의 소중함을 배우고 성장한 시간이었기에 취업을 통해 미국 생활을 연장하기로 결심했다. 또 미국의 기록 관리 시스템과 도서관 서비스를 배운다면 국내에서 사서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12개월간 일할 수 있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를 발급받았다. 여름학기가 시작하는 2019년 5월부터 구직활동을 시작했다. 매일 도서관에서 채용공고를 찾고,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작성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대학 홈페이지와 북미에서 가장 활발한 사서 네트워크(American Library Association(ALA))의 채용공고를 바탕으로 50대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지원했다. 세 곳의 도서관에서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면접의 기회를 얻었다. 최종 면접 연락이 온 도서관들은 사서가 교직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3년간 유효한 취업비자(H-1b)를 발급해 주는 연구대학이었다. 전화면접 후 2주 뒤 최종면접이 있었다. 도서관 투어를 시작으로 함께 일할 사서 선생님들, 도서관 디렉터, 채용위원회를 만나면서 8시간가량 최종 면접이 진행되었다. 호텔과 항공을 지원해주고 동료의 관점으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문화가 인상 깊었다. 점심 식사 후 미리 주어진 주제에 대한 발표가 한 시간 동안 있었다. 나의 주제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의학도서관

서비스 기획이었다. 최종면접에 합격한 후 3명의 추천인 검증을 거쳐 도서관 디렉터로부터 취업비자를 발급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기숙사 조교로 일할 당시 슈퍼바이저와 인턴시절 함께 한 사서 선생님들이 추천인이 되어주셨다. 미국의 취업에서 추천인 검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턴십이나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학 인사팀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해줄 변호사를 고용해주었고 비자를 받아 의 학사서로 새로운 여정을 뉴욕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워낙 학교라는 공간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 채용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대학원 시절부터 대학 사서를 목표로 삼았다. 현재 일하는 도서관에서는 대학원에서 전공한 기록관리학을 바탕으로 도서관 아카이브에서 기록물 수집과 보존업무, 의학 분야 연구 지원을 위한 데이터 검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대학 도서관의 짧은 인턴십 동안 느낀 점은 도서관은 개인이 아닌 단체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사서 간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방향의 운영 전략을 세우고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 2회 이상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일하는 대학은 의과대학만 있는 단일 캠퍼스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규모가 크지는 않다. 25명의 풀타임 사서와 IT 전문가가 근무하고, 아카이브, 홍보, 시스템 등 다양한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속한 아카이브는 대학의 연구 및 교육 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업무를 하며 지역의 의료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자료도 수집, 프로세싱하여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일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실과 협업해 1970년대부터 수집한 보고서와 샘플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디지털 작업 후 메타데이터를 구축해 온라인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면 향후 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 믿는다.

대학으로부터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학회에 소속되기 위한 멤버십 비용을 지원받고, 대학의 수업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어 나 역시 이들 학회에 가입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의 여파로 사서 직원이 전체(혹은 부분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나는 주 3회 아카이브에서 일하고 남은 이들은 집에서 레퍼런스 업무 보조, 자기계발을 위한 웨비나, 온라인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도서관 업무 외에도 교수 회의에 참석해 다음 학기 커리큘럼 구성에 대한 논의나 대학의 다양성 문화 전략 수립에도 참가하는 등 학교 전반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대학 도서관으로 오기 전 공공 도서관에서 봉사 사

서로 OPT 기간 동안 일을 했다. 공공 도서관에서 마주쳤던 시민들과 시끌벅적하고 빠르게 뛰어다녔던 분위기가 정적인 대학 도서관과는 사뭇 다를 수 있지만 의학사서로서 의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구하고 보급한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려 한다.

앞으로의 목표는 경력을 쌓아 세계보건기구(WHO)나 국제연합(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정책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보건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사서가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부전공인 기록관리학과 아카이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속한 기록 보존관에서 보존 가치를 지닌 기록을 평가하고 수집하는 기록관리원이 되고 싶다. 매주 미국 Medical Library Association (MLA)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생명과학 및 의학 분야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취업하기 위해 제2외국어로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사서로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내가 다닌 대학의 정문에는 ‘진리와 봉사를 세계로’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하는 사서가 되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이곳에서 사서로 일하면서 보고 배운 것들을 국내에서 쓰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도서관 시스템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성공사례 02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김지은

출처: 2020 해외취업 성장스토리 공모전

취업준비과정

저는 미국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를 졸업하고,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1년의 OPT 기간을 이용해 뉴욕 현지 방송국에 취업한 뒤, 이후 미국 워싱턴 D.C 연방정부 산하 국제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서류와 면접 준비입니다.

사실 저의 해외 취업 이야기는 먼저 유학 준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학 비용이 부담

됐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돌아보면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이력서와 학업 계획서(Statement of Purpose), 면접 등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후 취업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이력서와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시태그(#)로 나열하고, 그걸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사고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것이 점차 확고해지면 면접에 대한 답변도 자연스럽게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간결하게 고쳐 나가는 작업을 수십 번 했던 것 같아요. 당시 다니던 대학교에 원어민 첨삭 서비스가 있었는데, 이것 많이 활용했습니다. 또, 뉴욕에 와서는 KOTRA 채용박람회에서도 제공하는 이력서 첨삭과 멘토링 서비스가 있는데, 현지 사정에 밝으신 멘토님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주위를 둘러보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접 준비는 카메라로 찍어서 제삼자의 입장에서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고, 제가 저를 보는 일에 나름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이 과정에서 몰랐던 습관을 찾아내고 고칠 수 있었습니다.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저는 영어 토론 스터디를 약 3년 정도 꾸준히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회화 학원 1시간 수업 중, 말할 기회보다 원어민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걸 깨닫고 당시 수업을 같이 듣던 분들과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임을 약 2년 가까이 이어가다가 이후에는 경제 전문으로 토론을 이끌어주는 스터디 모임에 들어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토론 스터디는 단순 영어 회화뿐 아니라 주제에 대한 사고 확장과 자기 생각을 말로 논리정연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는 유학 전 발표력 향상 목적으로 영어 아나운서 학원에 다녔습니다. 이때도 수시로 저의 발표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모니터링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알게 모르게 자세와 습관 교정, 발성, 영어 표현 등을 많이 익힐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 앞에서 많이 서보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성격도 이전보다 외향적이고 당차게 바뀌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이때 배운 아나운싱 기술이 밑거름이 되어 이후 관련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현재 아나운서와 기자로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취업은 막연함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외 취업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과 함께 따라오는 단어는 '막연함'이 아닐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힘들기 때문일 텐데요. 저는 이미 미국에서 취업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였음에도 막연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고 싶은 회사,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려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 어떤 이력을 가지고 지금 저기서 일하고 있는 걸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보다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의 조언과 이야기가 취업의 윤곽을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뉴욕타임스 사진기자로 일하시는 기자님께 조언을 구해 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뒤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선배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내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외 미국에서 일하시는 다른 현직 언론인의 사례를 찾아 읽어보고 용기를 내 연락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에게서 온 답장들은 정말 큰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공개채용 느낌의 채용방식보다는 Referral을 통한 채용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채용공고가 없어도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현직자에게 연락을 취해본다면 후에 자리가 났을 때 기회를 얻을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도 중요합니다. '디자이너도 아닌데 무슨 포트폴리오?'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포트폴리오는 이력서보다 더 시각적으로 내가 해왔던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무기입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결과물들을 차곡 차곡 정리해서 모아두길 바랍니다. 저는 뉴스 기사와 리포트, 인터뷰, MC 행사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

어서 사진과 함께 상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 블로그를 이력서에 명시하는 곳도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개인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양이 방대해서 시작하기가 겁이 나서 그렇지, 시작이 반이라고 첫발을 내디디니 바퀴는 빠르게 굴러가더군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국도 입사 후 트레이닝 기간이 있지만, 대체로 채용 후 바로 업무 투입이 가능한 유경험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입사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 전에 비슷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 많이들

피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내가 주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단기간 성장이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 이직을 염두에 둔다면, 회사의 현재 네임밸류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꿈의 직장과 얼마나 흡사한 일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면접 기회를 얻고 직무 내용(Job description)을 봤을 때 ‘이건 내 일이다’ 싶었습니다. 하는 일이 당시 뉴욕 방송국에서 하던 일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경력이 짧았고, 면접에서 저를 어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셨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4시간을 달려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면접을 보시던 국장님이 서류를 정리하시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면 너무 아쉽고 억울할 것 같아서 목까지 차올랐던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저를 시험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는데, 이에 국장님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기회를 얻어 에디터님의 안내로 1시간가량 외신기사들을 번역해 정리 작성하는 시험을 쳤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은 1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얼굴이 별절게 상기된 저에게 에디터님은 “태도가 참 좋네요.”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님은 그 자리에 서 방송국 스

튜디오 구경을 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면접 마지막에 그 말을 내뱉지 않았더라면 시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거고 저는 아마 다른 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Be brave to propose your ideas because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뉴스를 만들어 내는 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늘 깨어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일 처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저는 현재 하루에 다섯 번, 라디오 생방송으로 세계 각지의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의 방송에서 최대한 가장 최신의, 의미 있는

뉴스를 전달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뉴스거리를 찾고 이를 시간 내에 작성하고, 방송 때마다 스튜디오를 오가고 하다 보면 정말 분주하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주로 정치·외교·국방 등의 단신 기사를 작성합니다. 가끔 정치, 외교 관련 기사는 하나의 기사를 쓰기 위해 뒷배경과 연결 관계 등 많은 요소를 알고 있어야 가능한데요. 생소한 현안을 다뤄야 할 때, 물론 짧은 통찰이지만 이것들을 제한된 시간에 터득하고 기사를 쓰기 위해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순간순간이 마감 시한인 거죠. 또,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fact check), 후속 상황 점검(follow up)을 하며 정보 업데이트를 합니다. 처음 방송국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이런 뻘뻘한 마감 시한이 몹시 벅찼습니다. 특히 뉴욕 방송국에서는 기사 작성과 뉴스 전달 외에도 인터뷰 준비와 진행, 영상 편집, 그 외 문서정리까지 정말 멀티 태스킹이 요구되어서 점심을 건너뛰기가 일쑤였고, 근무 시간에 긴장이 심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넣었던 근무 환경이 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자신합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기에 한 뼘 성장할 걸 두 뼘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당시에는 힘들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의 저를 있게 해 준 경험들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지 정착 어려움 및 극복과정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지원 직무에 걸맞은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분의 문제입니다.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하죠. 저는 학교 졸업 후 1년이라는 OPT 기간에 뉴욕 현지 방송국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방송국이 사실 열악하기 때문에 비자 스폰서를 받기에는 힘든 상황이어서 취업비자를 지원해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 현재 직장은 연방정부 산하 기관이어서 J-1 비자로 있지만, 당시에는 뉴스 앵커로서 특기자 비자인 O-Visa(오비자)를 준비했었습니다. O-Visa는 가장 관건이 비자 신청자의 'Extraordinary(탁월함)'을 증명해야 해서 추천서가 최소 6장은 필요했고, 불러주는 곳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계약서도 서너 장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고 거절당하기를 수차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매일같이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구체적 성과가 없으니, 비자를 준비할 땐 제 처지가 스스로 딱해서 애상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1년의 OPT 기간이 끝나면 60일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는데, OPT가 끝나기 약 2달 전부터 준비했으니 총 4달을 비자 준비와 구직활동에 매진했네요. 그러나 OPT 종료 시한은 다가오고 결국 한국에서 비자 신청서류를 내는 쪽으로 급하게 결정짓고, 저는 OPT가 끝나는 날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 예전에 연락을 취했던 현재 회사 선배로부터 포지션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틀 뒤, 오전 6시 메가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려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와 시험을 거쳐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Grace period까지 딱딱 채운 OPT 만료 하루를 남겨둔 날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이렇게 절묘할 수 있을까요. 기적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중도에 먼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사람은 대부분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마치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는 실패의 쓴맛이 꽤 오래가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저는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에서 '저질러 보는' 도전과 실패의 교훈이 저를 단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과정은 고스란히 자신의 그릇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이 두드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두드릴수록 더 많이 쌓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 밑거름이 언제 어디서 기량을 발휘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페터 제발트의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의 구절을 인용하며 글을 마치고 싶습니다.

'모든 생명은 나름의 소명을 지닌다. 그 어떤 것도 모조품이 아니다. 신은 습관이 아니라 박차고 나서는 삶을 원한다. 존재의 근원까지 파고드는 무언가를 찾으라고 요구한다. 자신을 불에 내던질 줄 아는 사람, 자기 안에서 울려 퍼지는 어떤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삶의 성취를 맞볼 수 있다.'건승을 빕니다. 파이팅!

PART
05
취업비자



01
취업비자 종류 및 특징





01 취업비자 종류 및 특징

01. 개요

미국 취업비자 종류 및 특징

비자 종류	비자특징	발급조건	체류기간
단기 취업비자 (H-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65,000개 쿼터 석사용 20,000개 비영리기관 쿼터 미적용 매년 4월1일 신청서 접수 (경쟁률 약 3:1), 10월1일 근무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 이상(or 그에 상응하는 경력) 취업직종이 전공과 일치. 해당지역 평균연봉보다 높은 임금조건. 고용주 청원(Pet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1회 연장 가능) 영주권 신청가능
교환연수 비자 (J-1 Intern/ Train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교류비자 교환학생 또는 단기연수 비자발급비용 신청자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J-1 Intern(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재학생 - 졸업 후 12개월 미만 J-1 Trainee(18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후 12개월 이상 - 졸업 후 경력 1년 이상 - 비전공자 경력 5년 이상 DS-7002 발급 후 스폰서 기관에서 DS-2019로 비자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J-1 Intern 12개월 J-1 Trainee 18개월 연장불가 본국거주의무/ 면제가능
특수재능 소유자 비자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체류시 자신의 분야에서만 일해야 함. O-1A: 과학, 교육, 체육 O-1B: 예술, 영화,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 예술, 교육, 운동, 영화 등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 국제적/전국적 수상 신청자에 대한 보도 내용 정부 등으로부터 업적을 인정 받은 자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후 1년씩 연장가능
학생 비자 (F-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유학하는 경우 주 18시간 이상 풀타임 학생 자격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단과대학, 종합대학, 사립고등학교, 영어 프로그램에 유학 학교에 OPT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이 종료시점
O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F-1(학생비자)소지자가 졸업 후 신청 어학연수 또는 단기연수에는 적용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학위 소지자. 졸업 이전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전공 12개월 STEM 전공 36개월

체크포인트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관련서류를 회사측으로부터 제공받아 대사관 인터뷰 후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여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회사 측으로부터 적절한 비자 서포트를 받았다는 내용이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사관에서는 영사관의 인터뷰 후 타당성을 검토한 후 비자를 발급한다. 특히 인턴십 형태의 J 비자의 경우 대사관 인터뷰에서 비자발급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02.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까지의 절차

👤 취업비자 신청 절차



채용 절차를 마치고 Job Offer를 받으면 미국 현지 스폰서가 정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및 비자발급관련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스폰서와 변호사가 정해지면 취업비자를 받기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 노동허가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

미국 노동부에서는 스폰서 회사에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인 왜 뽑아야 하는지를 우선 심사한다. 이를 위해서 제출하였던 이력서, 구인광고내용, Job offer,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주일 정도 심사 후 결과가 나온다.

👉 이민국 서류심사(Petition)

노동부에서 노동허가가 나오면 신분변경을 위한 이민국 절차가 필요하다. 본인의 신분과, 경력, 학력 등의 정보와 함께 I-129 Form을 작성하여 변호사가 제출한다. 여기에는 급행처리와 일반처리 (3개월)가 있는데 급행처리로 할 경우 추가로 \$1,225을 내야하지만 2주안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신청은 4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고, 비자를 받아 입국 가능한 날짜는 9월 21일부터이다. 이민국 서류심사를 마치면 아래와 같은 I797 Form을 받는다.

I-797 Form

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Notice of Action



RECEIPT NUMBER WAC-03-231-23456		CASE TYPE I129
RECEIPT DATE August 8, 1998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PRIORITY DATE	PETITIONER Synfell SYS INC	
NOTICE DATE August 15, 1998	PAGE 1 of 1	BENEFICIARY Krishan Kumar Dev

Notice Type: Approval Notice
Class: H1B
Valid from 01/01/1997 to 12/05/1999

Sample H1B Approval Notice - 1797

The above petition and extension of stay have been approved. The status of the named foreign worker(s) in this classification is valid as indicated above. The form is *not* a visa and can not be used for the petitioner, but only as detailed in the petition and for the period authorized. Any change in employment requires a new petition. Since this employment authorization stems from the filing of this petition/separate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ation is not required. Please contact the IRS with any questions about tax withholding.

The petitioner should keep the upper portion of this notice. The lower portion should be given to the worker. He or she should keep the right part with his or her Form I-94, *Arrival/Departure Record*. This should be turned in with the I-94 when departing the U.S. The left part is for his or her records. A person granted an extension of stay who leaves the U.S. must normally obtain a new visa before returning. The left part can be used in applying for the new visa. If a visa is not required, he or she should present it, along with any other required documentation, when applying for reentry in this new classification at a port of entry or pre-flight inspection station. The petitioner may also file Form I-824,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 with this office to request that we notify a consulate, port of entry, or pre-flight inspection office of this approval.

THIS FORM IS NOT A VISA NOR MAY IT BE USED IN PLACE OF A VISA.

Sample H1B Approval Notice - 1797

Please see the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back. You will be notified separately about any other cases you filed.

IMMIGRATION & NATURALIZATION SERVICE
CALIFORNIA SERVICE CENTER
P. O. BOX 30111
LAGUNA HILLS, CA 92657-0111
Customer Service Telephone: (800) 375-5283

Form I797A (Rev. 09/07/93)N



출처 : I-797 샘플(<https://www.uscis.gov/i-797-info>)

▶ 인터뷰 신청

변호사를 통해 I-797 승인을 공지받았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신청을 해야 한다. 대사관 인터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DS-160 Form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한다.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는 한글 언어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ds160info.asp). DS-160 작성을 마쳤다면 확인페이지 출력과 함께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다. H-1B 비자신청 수수료는 1인당 \$190이다.

U.S. DEPARTMENT of STATE
CONSULAR ELECTRONIC APPLICATION CENTER

Nonimmigrant Visa Application

Application - *Sensitive But Unclassified(SBU)*

Photo Provided:

Confirmation Number:

A A 0 0 0 0 T I L X

Personal, Address, Phone, and Passport Information

Name Provided:	GUPTA , RAMESH
Full Name in Native Language:	DOES NOT APPLY
<input checked="" type="checkbox"/> Other Names Used:	YES
Other Name (1) :	NONE , RAMESHBHAI
Sex:	MALE
Marital Status:	MARRIED
Date of Birth:	01 JANUARY 1945
Place of Birth:	MUMBAI , MAHARASHTRA , INDIA
Nationality:	INDIA
Other Nationalities:	NO
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	DOES NOT APPLY

▶ **대사관 심사**

대사관 심사를 위하여 신청된 I-129 Form 복사본, I-797 승인서, DS-160 confirmation, H-1B 비자수수료 영수증 등의 준비서류와 함께 대사관 인터뷰를 거친다.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Which company do you work for?
- ▶ What is your job responsibilities?
- ▶ How did you come to know about this company?
- ▶ Briefly describe your sponsoring employer company.

▶ **비자발급**

대사관 심사를 위하여 신청된 I-129 Form 복사본, I-797 승인서, DS-160 confirmation, H-1B 비자수수료 영수증 등의 준비서류와 함께 대사관 인터뷰를 거친다.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PART

06

정착 및 생활정보



01

정착

-

02

생활

-

03

생활 에티켓

-

04

각종 주요 용어





01 정착

01. 공항도착

📍 입국심사

국제선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 입국 심사 시 종종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3시간 이후 교통편과 일정을 계획해야 하며 항공권, 비자, 여권을 비롯하여 입국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 (예, 세관신고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입국 심사관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비하여 정확하게 대답하도록 한다.

☑️ 입국심사관 질문 예시

- 입국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s the purpose of the visit?)
- 방문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 미국 내 어디에 머물 것입니까? (Where are you going to stay?)

☑️ 체크포인트

- 여권은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전까지 사용가능한 유일한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 미국 정착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을 구하는 것이다. 사회보장번호(SSN-Social Security Number) 발급, 휴대폰 개통 등 정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절차를 위해서는 집 주소와 본인의 이름이 함께 명기된 우편물 혹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 SSN을 발급 받기 전까지는 많은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거나 불가능하므로, 집을 구한 이후에는 SSN 발급 절차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좋다.

입국심사관의 질문이 끝나면, 사진촬영과 함께 왼손, 오른손 검지손가락의 지문채취가 이루어지고, 입국 스탬프를 찍은 여권 및 비자와 날인한 세관신고서를 돌려준다.

📍 수하물 찾기

직항이 아닌 경우 경유지에서 수하물을 찾아 다시 부쳐야 할 수도 있으므로 처음 짐 부치는 곳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수하물을 찾을 때는 항공편에 따라 수하물을 찾는



장소(baggage claim)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공편 명을 확인 후 안내된 수하물 게이트로 찾아가야한다. 뉴욕, LA, 애틀랜타 국제공항처럼 규모가 큰 공항은 해외 수하물 게이트(international baggage claim)와 국내 수하물 게이트(domestic baggage claim)가 나누어져 있다. 수하물을 찾지 못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 항공편과 수하물 태그, 머무는 곳의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지참하여 수하물 담당 부서로 찾아가면 된다.

▶ 입국절차 요약



입국심사



수하물 찾기



세관검사 & 동식물 검역



도착 로비

02. 주요공항에서 도심 이동 방법

▶ 뉴욕/뉴저지 : 존. F. 케네디 국제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 JFK)

뉴욕 최대 국제공항으로 총 9개의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항공 1번 터미널, 아시아나 4번 터미널).

JFK 공항에서 맨해튼의 중심역인 펜 스테이션(Penn Station)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항철도 Air Train JFK를 타고 자메이카 역(Jamaca Station)에 내려 롱아일랜드철도 (LIRR, Long Island Rail Road)로 갈아타는 것이며 40분 정도 소요된다. 요금은 편도 \$13.75이다.

- 택시: 맨하탄 중심부에서 약1시간 정도 소요, 요금은 60달러로 톨비와 팁은 별도임
- 요금조회사이트: <http://www.supershuttle.com/Locations/JFKAirportShuttleNewYork.aspx>
- 버스(NYC Airporter): 그랜트센트럴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펜스테이션(Penn Station)과 포트오소리티(Port Authority)에서 20-30분마다 공항왕복버스를

운행하며 요금은 편도\$19/왕복\$35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 LAX(Los Angeles Airport)

LAX 공항에서 LA 시내까지는 약 30km정도 떨어져 있어 거리가 멀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시간도 많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한 번 이상은 갈아타야 한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공항 무료셔틀을 타고 Lot C에 위치한 시티 버스 센터로 이동한 후 시내로 가는 MTA 버스를 타게 되며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지하철 (MTA Metre) 이용 시, 공항 터미널 입구에 위치한 LAX 셔틀을 타고 메트로 그린라인 (Metro Green Line Aviation)에서 내려 그린라인을 타고 Imperial 역에서 블루라인으로 환승해 종점인 7th Street 메트로 센터에서 하차한다.

- 택시: LA시내까지 40여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팁을 제외하고 \$60내외
- 버스(FLYAWAY): LA 시내 Hollywood까지 편도 \$8
- 개인 셔틀밴: 이용요금이 LA시내까지 팁을 제외하고 \$20 내외로 택시보다 저렴하며 온라인으로 직접예약을 할 수 있어 편리하나 여러 승객들과 합승하여 가기 때문에 도착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어 불편할 수가 있다. www.supershuttle.com

03. 집 구하기

미국은 대부분 임차가 월세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1년 단위의 계약이 대부분이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 시에는 재정서류 및 신분증이 필요하고 신용점수를 요구하는데 신용기록이 없을 경우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가계약 시 대부분 보증금을 내게 되어 있으며 주택에 따라 처음 몇 개월분의 월세를 선불로 받는 곳도 있다.

☑️ 아파트 계약을 위한 서류

- 신분증(예, 여권, 운전면허증)
- I-797(H Visa), DS-2019(J Visa)
- 재정서류(Bank statement, Pay stub)
- 개인수표(Personal check or Cashier's check)

▶ 임차계약

임차계약서에 여러 조건이 상세하게 명시되며, 집주인의 금기사항을 어겼을 경우 입주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여야 나중에 손해를 줄일 수 있다. 퇴실 시에는 통보기간을 확인하여 메일이나 자필 편지로 미리 알려야 한다. 미국에서 집을 구할 때 주의할 사항은 저렴한 곳 보다는 안전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다.

항목	내용
월세 (Monthly Rent)	- 매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보증금 (Deposit)	- 보증금은 1-2개월 월세 정도의 가격이며 집세와 별도로 지불한다. - 퇴실시 청소비와 수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받게 된다.
임대조건 (Lease Terms)	- 집 임대 계약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된다.
시설 및 서비스 (Utilities)	- 전기, 난방, 수도, 차고 등의 시설을 의미한다. - 월세에 시설비용이 포함되는지, 고정금액을 별도로 지불하는지, 쓴 만큼 지불해야 하는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된다.
가구 구비 사항 (Furnished/ Unfurnished)	- 침대, 책상, 소파,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기본적인 가구가 집에 구비되어 있으면 Furnished, 가구가 없는 주택은 Unfurnished로 구분된다. - 가구가 포함된 집은 이사한 직후 물품 하자 목록 리스트를 작성하여 가구 상태를 확인해 집주인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주거형태

☰ 주거형태

항목	내용
싱글 하우스	출입구가 1개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으로서 한 주택에 한 가족이 사는 형식이다.
타운 하우스	복층으로 구성되었거나 옆집과 벽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집을 말한다.
스튜디오	거실과 침실이 구별되지 않은 원룸을 의미하며 부엌과 화장실이 포함된다.
아파트	2~3층의 다가구 단지를 의미한다.
콘도	한국식 고층 아파트를 의미한다.

▶ 집 구할 때 고려할 점

미국의 주택은 1년 계약이 일반적이고 외곽에 위치한 경우 교통이 불편하여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다면 집 주변의 버스노선 및 전철역과의 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집을 구하기 전에 미리 지인이나 사이트를 통해 지역 교통 및 치안, 시장, 슈퍼마켓, 우체국 및 병원 등의 편의시설, 생활환경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집의 크기와 화장실 등의 시설, 위생상태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조건의 집을 찾기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100% 만족스러운 집을 찾기보다는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집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출국전 미국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일 경우, Share house(1일 \$30~40)에서 1~2주 머물면서 집을 알아보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부동산 검색 웹사이트

- www.apartments.com
- www.zillow.com
- www.rent.com
- www.redfin.com

▶ 뉴욕 인근 지역

> 계약방법

맨하튼의 경우 대부분 현지 부동산 소개업자를 통해 계약한다. 이 지역에는 한인 부동산 소개업자들이 많아서 영어를 잘 못할 경우 한국인들의 희망사항을 잘 반영해 알맞은 아파트를 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료는 임차료 1~1.5개월 분이다. 집주인(Landlord)이 받는 보증금(Security Deposit)은 통상 뉴저지는 임차료의 1.5개월 분, 뉴욕은 1개월 분을 요구하고 있으나 크레딧이 좋지 않거나 한국에서 갓 온 분들에게는 2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동 보증금은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으나 계약 만료 시점에서 주택을 수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동 경비를 제외하고 받는 경우가 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무엇보다도 정원관리와 주요 주택관리는 집 주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화,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 케이블 TV 등에 가입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전화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자신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이 좋다. 전화, 전기, 가스 회사 들은 미국에 처음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정액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Deposit 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계약이 만료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북부 뉴저지 버겐카운티 경우에는 100달러를 보증금으로 예약하고 있다.

▶ 거주지 이전 신고

거주지를 확정한 후 전화국에 전화번호를 신청하면 곧바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와 가스는 지역 전기 및 가스 서비스 담당업체로 연락해 사용자 등록을 변경 혹은 신규 등록하면 바로 제공된다. 전기/ 가스/전화 서비스(택 1) 대금 청구서와 영문 신분증(여권)을 지참하여 관할(각 도시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가서 SSN(Social Security Number)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약 3주 정도 후에 SSN 번호를 받을 수 있다.

체크포인트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SSN은 미국 내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이며, SSN이 없으면 대부분의 주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고절차를 거쳐 번호를 받아야 한다.

<https://secure.ssa.gov/ICON/main.jsp>

📍 LA 인근 지역

▶ 주택임차

미국 거주 방식은 주로 단독 주택, 아파트, 타운하우스(한국의 연립주택 형태)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개업자 또는 신문광고를 보고 주택을 찾아볼 수 있다. 요즘에는 Trulia와 같은 인터넷 주택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대부분이 Unfurnished이나 주방시설 중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는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고 냉장고, 세탁기는 없는 경우가 많다. 임차료와 보증금은 선불이며, 통상 보증금으로 임차인의 신용도(Credit)에 따라 1~2달의 임차료를 요구한다. 보증금은 임차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주택의 손상정도를 감안,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하게 된다. 크레딧이 없는 경우 주택 임대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미국 내 크레딧이 있는 대리인을 Co-signer로 세워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 시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세부사안에 따른 경비부담 당사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리 막는 것이 필요하다(정원 잔디관리, 풀장 관리 등).

▶ 애틀랜타 인근 지역

▶ 주택임차 및 구매 정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둘루스 지역의 평균 아파트 월세는 약 700~1,000 달러 수준이다. 콘도(Condominium)를 임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000 달러에서 최대 3,000달러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부동산(콘도, 주택 구매 시)의 경우, 현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둘루스 지역 주택의 평균 가격은 약 25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된다. 아파트는 모두 월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개인(agent)을 거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의 임대 사무실(Leasing Office, 관리사무소)을 바로 접촉하면 된다. 아파트 임차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일반적으로 1½ 달치 월세) 외에도 이사비용, 임차인 보험(Renter's Insurance)과 같은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관리사무소 접촉 시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04. 교통편

▶ 대중교통이용방법

미국은 도시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다. 자신이 머무는 도시의 대중교통 사이트에서 비용, 노선, 운임시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애틀랜타의 Breeze Card, 뉴욕 Metro Card와 같이 특정 도시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운임 비용, 환승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일/주/월 단위 정기권, 교통카드 등이 많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횟

수와 기간을 고려하여 구입하면 좋다. 대도시가 아닌 경우 미국의 대중교통은 한국보다 운행 간격은 길고 막차 시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철, 버스 시간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택시는 기본요금과 거리 당 이용요금이 한국보다 비싸지만 우버(Uber), 리프트(Lyft) 등의 모바일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 렌트카 이용방법

렌트카 이용 시 만료되지 않은 국제 운전면허증(주에 따라 1년이 아닌 3개월, 6개월 만료를 적용하는 곳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혹은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운전보험이 없는 경우 렌트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렌트카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유명 렌트카 회사의 옵션들을 비교해 주며 원하는 날짜, 비용범위, 장소, 차종을 선택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를 대여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공항 주변이나 공항에 렌터카가 위치하므로 비행 편과 연계하여 알아보면 용이하다. 또한 미국의 속도/거리 단위는 마일(1mile=약 1.6km)을 사용하는 점과 STOP 표지판 등의 기본적인 미국 교통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 렌트카 예약사이트

- Enterprise Rent-A-Car(www.enterprise.com)
- Hertz Rent A Car(www.hertz.com)
- Dollar Rent A Car(www.dollar.com)
- Avis Car Rental(www.avis.com)
- Budget(www.budget.com)

🔍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방법

요즘 미국에서는 우버(Uber), 리프트(Lyft) 등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우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휴대폰으로 1) 우버 앱을 다운로드한 다음 아이디를 등록한다. 이때 휴대폰 번호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결제수단은 비자카드, 직불카드 등이 있고 현찰은 받지 않는다. 2) 이용시에는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차량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예상되는 요금이 나온다. 3)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5)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냥 내리면 된다.

- 2017년 이후 우버 기사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팁 옵션이 추가되었으며, 15~20% 팁

을 주면 된다.

- 예약 취소는 2분 내에 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우버



리프트

🔵 운전면허 취득

미국에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온 경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주에 따라 6개월이나 3개월 혹은 더 짧은 기간까지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장기 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를 미국 면허로 교환할 수 있는 23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 취득 여부, 국제 운전면허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주행시험을 모두 치르고 자신이 체류하는 주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많은 주에서는 주행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돈을 더 지불하지 않고 재시험을 치를 수 있으나 3번 이상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다시 시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를 주는데, 연습면허 기간 동안에는 혼자서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와 경험이 있는 사람과 동승하여야 한다. 주행시험을 볼 때 직접 차를 구해 가야하는데, 이 때 역시 차주와 동승하여 시험장에 가야 한다.

체크포인트 - 한국면허증을 통해 미국면허증 취득

도로교통공단에서 명시한 미국의 23개 주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시험 없이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갱신하여 주는데, 미국 운전면허센터 (DMV)에 가서 한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국제 운전면허증, 여권, 체류신분증명 서류, 이름과 집주소가 명기된 서류와 수수료를 가지고가면 된다. 면허 교환시 SSN 혹은 SSN waiver letter가 필요하다. 운전면허증에 들어갈 사진은 현장에서 바로 찍어준다.

면허 교환이 가능한 주 (2021년 5월 기준)

루이지애나주, 매사추세츠주, 메릴랜드주, 미시간주, 버지니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리조나주, 아이다호주, 아이오와주, 아칸소주, 앨라배마주, 워싱턴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위스콘신주, 오리건주, 오클라호마주, 조지아주, 콜로라도주, 테네시주, 텍사스주, 펜실베이니아주, 플로리다주, 하와이주

Just do it.

022220



Dream with us. Nike Just do it.

PLAYWRIGHT RESTAURANT

BRASSerie
3186
710

Disney
SEE THE REAL
BROADWAY
BLOCKBUSTERS

Lenox
FROZE

JUNIOR





02 생활

01. 물가정보

☰ 미국의 물가정보 (단위: 달러)

구분	항목	가격
식음료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6.79
	비빔밥	19.95
	신라면	1.25
	커피(스타벅스 톨-아메리카노)	2.95
	생수(마트) 500ml	1.25
	코카콜라 500ml	1.99
	소주(360ml)-한식당	9.00
교통비	시내버스 요금	2.75
	지하철 요금	2.75
	택시요금	2.50
여가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남성 기준)	45.00
	무연 휘발류(1 Gallon)	3.01
	영화 입장료	13.00
	담배(말로로라이트) 1갑	15.00

출처: KOTRA 뉴욕 무역관(2021년 4월 기준)

미국은 주마다 소비 항목별 세금정책이 다르며, 같은 주 내에서도 도시, 마트마다 물가가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차량 기름 값과 전자제품을 제외하고는 주택 임대료, 의료비, 보험료, 교통비, 외식비, 식료품비 등 모든 항목에서 미국의 물가가 비싸다. 도시별, 항목별 자세한 물가정보는 <http://www.numbeo.com/cost-of-living/> 에서 찾아볼 수 있다

02. 교육제도

▶ 미국의 교육제도

미국의 교육은 대체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및 지방정부(시 또는 County)의 책임이므로, 학교설립, 교육과정 개발, 등록·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주정부 또는 지방정



부에서 권장한다. K-12로 표시되는 유·초·중등과정은 일반적으로 13년제로 초등 학교 6~8년(유치원 1년 별도), 중학교 2~3년, 고등학교 3~4년으로 나누어지며, 유치원 과정의 의무교육 여부는 주에 따라 다르다.

대학은 4년제와 2년제의 초급대학이 있다.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합대학으로는 하버드·예일·프린스턴·펜실베이니아 등 유명사립 Ivy League대학들이 있고, 공학계로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저렴한 학비로 인해서 버지니아대학(Univ. of Virginia),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Univ. of California(U.C.), Berkeley] 등 명문 주립대학들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연한은 각 주의 법률에 맡기고 있어 일률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주가 16세(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버지니아 등 몇 주는 18세)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미국의 모든 아이들은 최소한 10~11년간의 교육을 받는다. 공립학교의 교육에 관해서는 주정부가 관여하는 부분과 각 지역교육청이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03. 휴대폰 개통 및 통장 개설 방법

▶ 전화 신청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통신사로는 AT&T, Verizon, T-Mobile 등을 들 수 있다. 휴대폰 개통을 하려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통신사의 대리점에 방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을 할 경우 휴대폰 기기를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2년 계약 기간 내 요금제는 변경이 가능하나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미국 대부분의 통신사의 요금제는 통화시간에 데이터를 제외한 발신통화와 수신 통화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문자건수에도 발신건수와 수신건수를 모두 포함한다.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여러 명이 패밀리 플랜으로 가입하면 하나의 데이터 요금제를 공유할 수 있다.

휴대폰 신규 가입 시 등록비용인 \$30 정도의 Activation Fee를 지불해야 하며 사회보장번호(SSN)를 필요로 한다. 만약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면 미국에 거주하는 친인척

의 계좌에 패밀리 플랜으로 가입하거나 통신사마다 상이하나 약 \$400 정도의 보증금 (Deposit)을 내야한다. 집 전화 신청을 하려면 지역 전화 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지역 전화회사는 지역마다 상이한데 Vonage, At&T, Verizon 등에서도 집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 설치에는 설치비가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2일~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된다. 집전화 설치 시에도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며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면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④ 은행 계좌 개설

미국에서 정착 초기에 은행 계좌 개설은 급여 이체를 비롯하여 휴대폰 개통, 월세나 각종 공과금의 자동이체 등을 위해 여러모로 꼭 필요하다. 지역의 소형 은행보다는 지점망이 확충되어 있고 ATM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대형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시티은행의 해외 통장을 개설해 가면 미국에서도 달러 입출금과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한 은행의 계좌를 개설 하는 것이 비용과 편의성 면에서 좋다. 미국의 주요 은행으로는 체이스 은행,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웰스 파고 등이 있다.

계좌 개설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운전면허증 등)만 지참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가급적 은행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것이 신용을 쌓는데 유리하다. 처음 은행을 선택할 때는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은행을 찾는 것이 필수다.

신용점수가 없는 초창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분이 확인되면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발급 전에는 직불카드(Debit Card)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고 이런 과정이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크레딧이 쌓이게 된다.



4.11

4.11

10.19

2012

TOSHIBA

WE DO POWER

TOSHIBA

Address

AT&T

Address

BACK AND
THAN EVER

ATS

GROUNDING
DAY
THE MUSICAL

COMING
AWAY

THE
MUSICAL

MARSHALL
MARTIN



03 생활에티켓

01. 복장

미국인들의 경우 한국인과 달리 비형식적인 면이 강하다. 비즈니스에 임하면서도 간편한 옷차림을 좋아하고, 연령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손님을 접대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사무실에서도 캐주얼 복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장을 입는다.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미팅이나 상담과 같은 자리에는 정장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가정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기 때문에 구두나 신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02. 인사

인사할 때는 웃으면서 인사말을 건넨다.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 인사하더라도 머리카락이나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 형식적인 자리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악수를 하며 인사하는 것이 흔한데, 악수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벗고 상대방과 눈을 맞춰야 한다. 여성이 남성에게, 뒷사람이 앞사람에게,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악수를 청한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예의이다.

특히 악수를 나누거나 대화를 할 경우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호칭할 경우 처음부터 이름(First name)을 부르는 것은 실례다. Mr. Mrs. Ms. 등이나 직업(Dr., Professor, Reverend 등)을 뜻하는 명칭을 성()과 같이 사용해 호칭하는 것이 공식적이며,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03. 선물

선물 이외에 돈을 주는 것은 뇌물로 간주되며, 선물이 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위법이며, 선물이 50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기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



미 있는 작은 선물은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 대면에서 작은 선물은 서먹서먹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바이어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갈 경우에는 꽃이나 화분, 과일 바구니, 책 등이 일반적이며, 선물을 받은 후에는 답례로 카드를 보내는 것이 예의다.

04. 약속

비즈니스 약속은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관습으로 일주일 정도 전에 전화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이메일로 상대방이 편한 시간으로 조율하여 잡는 것도 일반적이다. 약속시간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한 약속 하루 전, 또는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상대방의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고 이메일로 다시 알려주는 성의를 보이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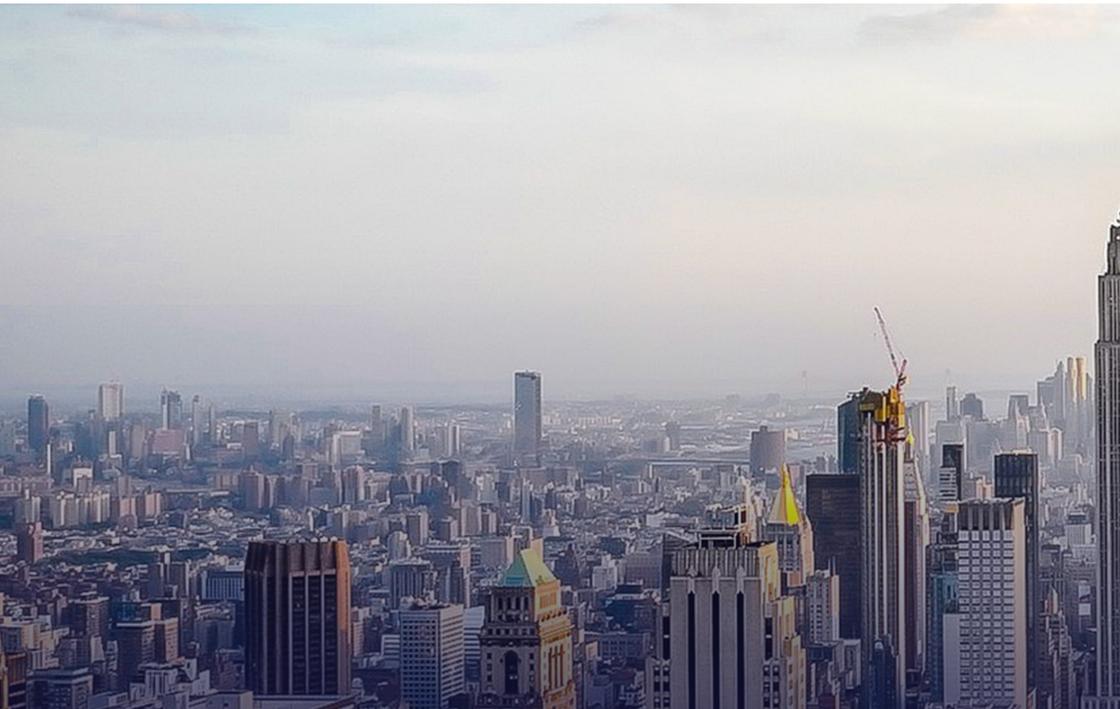
05 식사

개인적인 초대를 받은 경우에는 와인 등의 선물을 들고 가면 되며, 나중에 초대를 해 준 상대방에게 감사의 서신을 보내도록 한다. 미국인들은 저녁식사를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대부분 비즈니스는 점심식사에 이루어진다. 식사는 일반적으로 초대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풀코스로 점심/저녁 식사가 이루어지면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이 소요되는데 중간 중간에 얘기할 이슈(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상식이나 헤드라인 이슈)들을 미리 준비하여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한 식사 예절이다.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것이 예의이며 웨이터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재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점심은 18~20%, 저녁은 20~25%의 팁을 주고 있다. 일반 식당은 점심, 저녁 구분 없이 15% 내외의 팁을 준다.

휴대폰은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한다. 남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전화를 받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 반드시 받아야 할 전화가 있을 때에는 양해(Excuse me)를 구하고 자리를 잠깐 피해서 받는 게 좋다. 소금, 후추 등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남의 그릇 위로 팔을 뻗는 것은 금물이므로 근처 사람에게 “Would you please pass me the salt/ pepper?”라고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 남의 음식에 손을 대거나 내 음식을 남의 그릇에 옮기지 말아야 한다.

레스토랑에서는 손님들이 먼저 자리를 찾아 앉는 것이 아니라, 서버가 자리로 안내해주는 것을 기다린다. 주문을 위해 혹은 식사 중에 서버를 부를 때는 손을 들어 알린다. 식사 중 화장실에 갈 때는 “Excuse me”라고 한 후 일어서며 화장실에 간다고 알리지 않는다. 식사 중 코를 푸는 것도 실례이다. 식사 시 설탕, 소금, 소스 등이 손에 닿지 않으면 직접 집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예의이다. 미국에서는 식당에 여럿이 가더라도 각자 먹은 메뉴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술, 피자 등 나눠 먹은 음식은 인원수별로 나누어서 내면 된다. 팁 역시 각자의 계산서에 적어 놓는다.



06. 대화 에티켓

미국인들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는 것은 불편하게 생각하므로 너무 붙어서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이, 종교, 몸무게, 결혼여부, 정치성향 등과 같은 사적인 질문에 대해 묻지 않는다. 대화중에는 항상 눈을 맞추고 머리를 끄덕이며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보인다.

07 기타 에티켓

문을 열고 닫을 때 뒤에 사람이 있다면 문을 붙잡고 기다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에티켓이다. 사소한 일에도 도움을 받으면 감사인사를 하며,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스치거나 길이 엇갈려 마주치는 경우 “Sorry” 혹은 “Excuse me”라고 해야 한다. 허락 없이 임신한 사람의 배를 만지지 않는다. 임신 여부도 물어보지 않는다. 기침, 재채기, 하품을 할 때는 입을 가리고 하며, 이후에는 “Excuse me”라고 이야기 한다. 말없이 식사하는 것은 매우 큰 실례이다.





04 각종 주요 용어

01. 화폐 단위

☞ 미국의 화폐단위(환율은 계속 변동이 있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전(Coin)	Penny(페니)	1 Cent 짜리 동전(한국의 10원짜리 동전 색과 같음)
	Nickel(니켈)	5 Cent 짜리 동전(한국의 50원 짜리 동전 크기)
	Dime(다임)	10 Cent 짜리 동전(동전 중 크기가 제일 작음)
지폐(Bill)	\$ 1	한국의 1,000원 권
	\$ 10	한국의 10,000원 권
	\$ 20	한국의 20,000원 권
	\$ 50	한국의 50,000원 권
	\$ 100	한국의 100,000원 권
	보통 \$50과 \$100 지폐 사용보다는 작은 단위 지폐 사용을 권장. 두 지폐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위조방지 차원에서 확인을 함.	

02. 병원

기본 단어			
진단하다	Diagnose	처방전	Prescription
합병증	Complications	초음파 검사	Ultrasound test
항생제	Antibiotics	X-레이 검사	X-ray test
검사하다	Run a test	아프다	hurt
처방하다	Prescribe	통증	pain(dull-normal-sharp pain)
두드러기	Rash	치료	treatment
상태 표현하기			
I have... (지금 현재 상태는 ...입니다)			
기침	a cough	열	a fever
가래	phlegm	흉통	chest pains



목 아픔	a sore throat	두통	headaches
발진	a rash		
It is... (지금 ... 입니다)			
간지러움	itchy	부은	swollen
아픈	painful	쓰린	sore
감각이 없는	numb	코막힌	blocked
콧물이 흐르는	runny		
I am... (지금 상태가 ... 입니다)			
호흡곤란	out of breath	통증	in pain
메스꺼움	nausea		
신체 부위 표현하기			
복부	stomach	무릎	knee
어깨	shoulder	손	hand
손목	wrist	다리	foot
목구멍	throat	허벅지	thigh
눈	eyes	코	nose
목	neck	귀	ears
등	back	머리	head
기타 표현			
숨을 쌩쌩거리는	wheezing	점액	mucus
설사	diarrhea	배출	discharge
피로	fatigue	피곤한	tired
불면증	trouble sleeping	감염	infection
소변	urine	배변	bowel movement
면역	immunization	긴장	strain
골절	fracture	근육	muscles
압력	pressure		

PART
07
해외취업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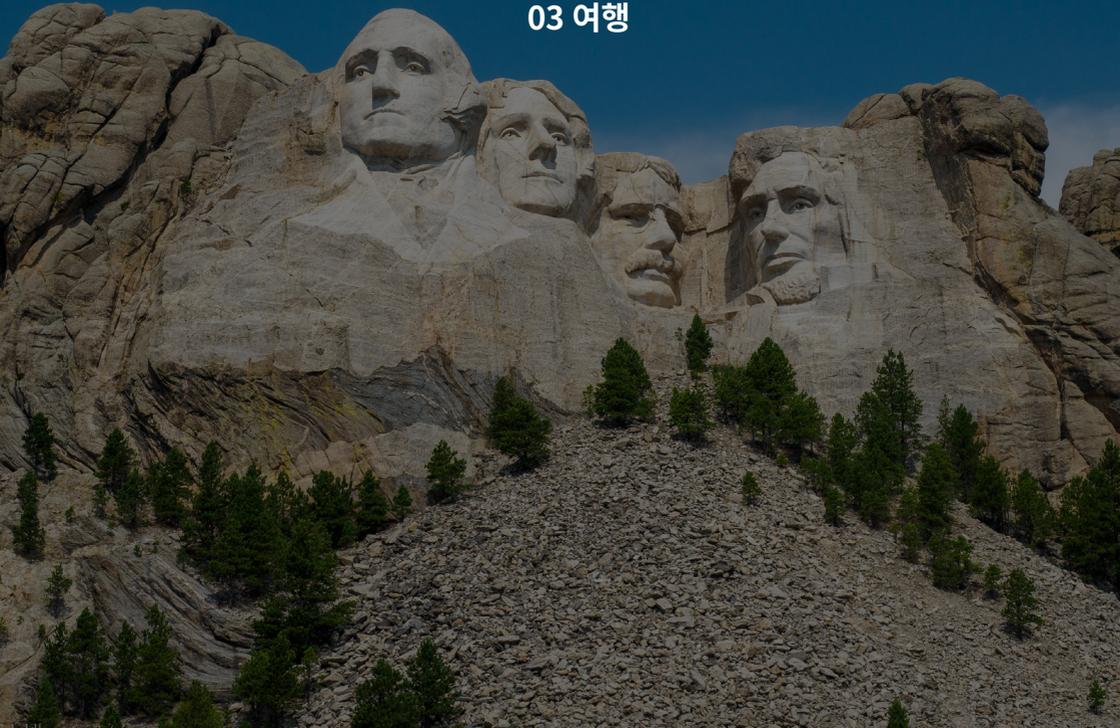
01 취업관련

-

02 생활

-

03 여행





01. 취업관련

Q. 미국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미국 인턴십을 진행하기 위해선 지원자들의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이 카테고리에 따라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을 한지 1년이 넘지 않은 분들은 인턴 카테고리 미국에서 '12개월'동안 인턴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대학교를 졸업한지 1년이 넘었거나, 경력5년으로 미국 인턴십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니 카테고리 미국에서 '18개월'동안 인턴십이 가능합니다.

Q. 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에서 거절당할 시 다시 지원 가능한가요?

A. 미국대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되면 사유를 보충한 뒤 다시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국인턴십 전체 진행비를 다시 납부해야하는 게 아니라 처음 비자인터뷰를 봤을 때 구매했던 비자인지대만 다시 구매하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인턴십 J-1비자의 비자인지대비는 \$160입니다.

Q. 미국 인턴십 지원 후 회사의 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단 미국 인턴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경력 분야의 채용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전공이나 경력이 맞는 경우는 미국 인턴십 진행이 빠른 편이며, 고용주 인터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1~2개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의 전공이 경영인데 무역회사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 패션디자인 전공인데 디자이너 경력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Q. 미국 인턴십 후 H-1B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J-1비자로 인턴십을 한 후 이 기간이 지나고 H-1B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최대 6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는 진행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H-1B 비자



로 채용을 하고 비자를 신청해 줄 고용주(스폰서)가 있어야 하며, 매년 4월 오픈되는 H-1B 쿼터(추첨제, 매년 65,000개)를 받아야 합니다. H-1B 취업비자는 미국 내의 미국 기업에 외국인이 취업할 때 발급되는 취업비자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이어야 하며, 학위가 없을 경우엔 해당 분야의 경력을 제시해야 하며 학위를 취득한 전공분야와 직종이 일치해야 합니다.

02. 생활

Q. 미국에서의 쇼핑방법이 궁금합니다.

A. 백화점과 영화관, 대형 쇼핑 공간들이 모여 있는 Shopping Mall을 이용합니다. 주변에 식당도 많아 식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의 Department Store는 3~5층 정도 규모의 건물이고 신사복, 여성복, 스포츠용품, 액세서리, 잡화 등의 물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고품이나 흠이 있는 상품들을 취급하는 공장 직영점인 Factory Outlet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달에 세일을 하는 특별 기간을 이용합니다.

≡ 월별 특별 세일 기간

1월	New Year's Day	매우 큰 신년 세일
2월	Valentines Day	발렌타인데이 1주일 전부터 시작하며, 선물 위주로 세일
3월	St. Patrick's Day	아일랜드 성인 성파트릭을 기념하는 축제
4월	Easter	부활절 기간의 금요일 - Good Friday
5월	Mother's Day	두번째주 일요일 어머니의 날, 선물용품 위주로 세일
7월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7월 4일)
11월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Black Friday로 불림)
12월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세일

Q. 미국은 생활하기 안전한가요?

A. 미국의 범죄율을 분석해 보면 도시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 LA는 범죄율이 높은 도시로 알고 있지만, 미국내에서 범죄율이 100위 권 밖에 있는 도시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다운타운을 저녁 시간에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동이 필요하다면 차량을 이용하고, 가급적 여러 사람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보다는 위험한 편입니다.

Q. 미국 인턴십의 경우 초반 정착 비용은 얼마정도가 들어가나요?

A. 미국 인턴십의 경우 회사에서 숙소가 제공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인턴십을 하며 받는 급여로 숙식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시간당 15불 정도를 시급으로 받기 때문에 진행비 외에 항공권이나, 첫 달 생활비 즉 집값(보증금+월세)과 식비 등만 준비해 가면 다음 달부터는 인턴십을 통해 받는 급여도 충분히 미국에서의 생활이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크지만, LA 지역의 Share house(월세방과 비숫)는 월 \$600~800 수준입니다.

03. 여행

Q. 미국 내에서 여행 시 버스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A. 미국 버스 회사 중 가장 크고 오래된 회사가 바로 그레이하운드입니다. 그레이하운드 회사에서는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패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패스란 유효기간 내 그레이하운드와 제휴 회사의 노선을 마음껏 탈 수 있으며, 패스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를 발행하므로, 이것을 가지고 지정 버스터미널로 가면 디스커버리패스로 교환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레이하운드 버스 이용 방법은 버스 출발 시각 40분 전부터 대기합니다. 카운터에서 티켓을 발권하고, 수하물이 있을 경우 체크인을 합니다. 짐의 수량을 체크하고, 신고를 하면 행성지가 적힌 태그를 발권해주며 내릴 때는 짐을 담당하는 직원이 태그를 보여주고 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태그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승차는 보통 10분~15분 전에

시작됩니다. 그레이하운드의 좌석은 선착순이므로 일찍 줄을 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찍 줄을 선다고 하더라도 먼저 타고 온 사람이 있을 경우 먼저 타고 온 사람이 먼저 승차 합니다.

Q. 미국 내에서도 기차로 여행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보다는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 때문에 미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차여행을 선택합니다. 미국의 철도회사로는 암트랙이 있습니다. 미국 철도 회사인 암트랙은 America와 Trak의 합성어로 미국 46개 주의 500개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차여행 중간에 시간대가 바뀔 만큼 장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구간도 있고, 시시각각 변하는 미국대륙의 다양한 모습들을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암트랙의 가장 큰 장점은 승하차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내리고 싶은 곳에서 내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구경하고 다음 열차를 타도됩니다. 기차는 대부분 2층 열차로 1층에는 주로 화장실과 식당, 2층은 좌석과 라운지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운지 칸은 풍경을 볼 수 있는 칸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유명한 명소가 나오면 안내방송을 해주기도 합니다. 1층에는 자전거 거치대와 대형가방을 보관할 수 있는 가방보관대, 쾌적한 화장실 등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미국 일주를 하려는 학생들에게 이 기차만큼 편리한 이동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Q. 미국 국내선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싼 항공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3~4개월 정도는 앞서서 예약해야 목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번 티켓을 구입하면 반환이 안 된다든지, 여행 일정 변경에 제한이 따른다든지, 혹은 변경할 경우 적잖은 추가수수료 등의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출발 일자나 시각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없다면 서둘러 예약하는 게 오히려 돈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을 미리 파악하고자 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싼 항공권(Cheap Air Ticket) 등을 검색하면,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파는 사이트의 명단이 나옵니다.

일자리 찾아 세계로

해외취업 완전정복 미국

도서명	해외취업 완전정복 미국
발행인	어수봉
발행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일	제1판 1쇄 2017년 03월 24일 제1판 2쇄 2018년 11월 22일 제1판 3쇄 2022년 1월 10일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문의처	1577-9997
홈페이지	www.worldjob.or.kr
지은이	최우재, 윤동열
디자인	초아출판사
ISBN	979-11-5799-093-1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